

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일시 2025. 6. 25.(수) 13:30~18: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

주최  정읍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일시 2025. 6. 25.(수) 13:30~18: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

주최  정읍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일 정		내 용
13:30 ~ 13:5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말씀 *진행사회 : 허인욱(전북대학교 교수) - 이학수(정읍시장) /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탄진(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13:50 ~ 14:15	25'	<p>주제발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4:15 ~ 14:40	25'	<p>주제발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 - 박정민(전북대학교 교수)
14:40 ~ 15:05	25'	<p>주제발표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김희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15:05 ~ 15:15	10'	휴 식
15:15 ~ 15:40	25'	<p>주제발표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김양식(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15:40 ~ 16:05	25'	<p>주제발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 신진희(경국대학교 강사)
16:05 ~ 16:30	25'	<p>주제발표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16:30 ~ 16:40	10'	휴 식
16:40 ~ 18:00	80'	<p>종합토론 *좌장 :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주현(천도교 상주선도사) /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목 차

주제발표 1 ————— 0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토론문 1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31

주제발표 2 ————— 39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
- 박정민(전북대학교 교수)

토론문 2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63

주제발표 3 ————— 67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김희태(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토론문 3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111

주제발표 4 ————— 117

충청 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김양식(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토론문 4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137

주제발표 5 ————— 141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 신진희(경국대학교 강사)

토론문 5 성주현(천도교 상주선도사) ————— 169

주제발표 6 ————— 173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조재곤(서강대학교 연구교수)

토론문 6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213

주제발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 발표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주제발표 1

1. 머리말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체 조사
4. 문체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5. 참여자 등록현황과 그 의의
6.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

이 병 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1. 머리말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¹⁾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²⁾

1) 특별법 제정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
- 1) 발표자는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 2)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9년 12월 발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하여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4년 9월 17일 설치, 출발하였다.

위원회 설치 근거인 <특별법>이 2002년 10월 21일 민주당 김태식 의원 등 163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3년 11월 21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특별법안 회부 및 공청회를 거쳐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다. 2004년 3월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동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되었고, 동 <특별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24일 공포됨으로써 2004년 9월 6일부터 동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9월 13일 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되었고, 2004년 9월 17일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 2004년 11월 15일 각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 16개 시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해 <특별법> 시행세칙을 2004년 12월 30일 마련하고,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특별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등 정부 위원 7인, 민간위원 8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며, 민간위원은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2004년 9월 17일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내에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민간위원 5인의 이원으로 구성)가 있다.

분과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결정및등록심사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기념사업지원분과의 3개 분과로 나누어지며 분과별 5인으로 조직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8인이 겸직하였다.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결정및등록심사분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명예회복추진분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기념사업지원분과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전국 주요 16개 시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고 위원은 8인으로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시도 실무위원회는 각 시도별 유족의 등록 신청, 1차 심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였다. 16개 시도에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로 줄임)가 2004년 10월~11월 중 구성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시도별로 소속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지정되었다.

2)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총 10회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결정/등록, 특별법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활동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차수	일자	방법	안건
1차	2004.12.30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2차	2005.12.27 (정부중앙청사)	참석 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50건
3차	2006. 6.16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3건
4차	2006.10. 4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21건
5차	2006.11.2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89건
6차	2007.10. 2	서면 심의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7차	2008. 5.2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258건
8차	2008. 9.10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04건
9차	2009. 1.16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안): 149건
10차	2009.11.17	서면 심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결정/등록(안): 3,146건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는 2004년 11월 2일부터 2009년 10월 23일까지 총40회 개최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심사를 주요 안건으로 하여 유족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해 논의, 결정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차수	개최일	개최장소	회의 안건
1차	2004.11. 2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안) 검토
2차	2004.11. 3	위원회 회의실	유족 없는 참여자 심의기준 검토
3차	2004.11.23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검토
4차	2004.12. 6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검토
5차	2005. 1.26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현안문제 검토 및 방안마련
6차	2005. 4.29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기준안 마련
7차	2005. 5.22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 및 유족 심의 세부기준안 마련

8차	2005. 9.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20건 심사
9차	2005. 9.29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4건 심사
10차	2005.10.31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18건 심사
11차	2005.11.14	위원회 회의실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계획 검토
12차	2006. 1.2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1건 심사
13차	2006. 5.10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7건 심사
14차	2006. 5.2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24건 심사
15차	2006. 7. 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0건 심사
16차	2006. 8.1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5건 심사
17차	2006. 9.1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9건 심사
18차	2006.11. 3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2건 심사
19차	2006.12. 4	위원회 회의실	유족 없는 참여자 등록 검토
20차	2007. 1.29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족등록계획 검토
21차	2007. 2.12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 개정안 검토
22차	2007. 6.29	위원회 회의실	특별법 시행세칙 및 서식 개정안 검토
23차	2007. 9.2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6건 심사
24차	2007.11. 2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5건 심사
25차	2007.12.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55건 심사
26차	2008. 2.2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60건 심사
27차	2008. 4.1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3건 심사
28차	2008. 4.2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2건 심사
29차	2008. 7. 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0건 심사
30차	2008. 8.14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55건 심사
31차	2008. 8.16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9건 심사
32차	2008.10.10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70건 심사
33차	2008.11.15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36건 심사
34차	2008.12.18	위원회 회의실	유족등록 신청 43건 심사
35차	2009. 2.13	위원회 회의실	참여자등록 추진계획(안) 검토
36차	2009. 4.24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976건 심사
37차	2009. 6. 5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786건 심사
38차	2009. 8.10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708건 심사
39차	2009. 9.25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502건 심사
40차	2009.10.23	위원회 회의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03건 심사

3) 1차 등록 과정

(1) 심사절차

① 신청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해당 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10개월간이었다. 다만 〈특별법〉 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족(손자/손자녀) 이외의 자가 각 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준용하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기간에 제한 받지 않고 처리하게 된다. 신청 기간에 접수된 유족등록신청은 총 263건이었다. 주요 지역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이루어졌고, 전북 61건, 전남 51건, 서울 49건, 충남 40건, 기타 62건 등이었다. 유족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한 경우는 200건에 달하였다.

② 시도 실무위원회 조사

시도 실무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접수일로 180일 이내 즉 2006년 3월 5일까지 동법 제5조, 시행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신청인과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참여자로 신청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 유무와 유족등록신청자와 참여자 간에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가 성립하는 근거와 이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고 사실조사자의 판단 의견을 제시한 사실조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시행세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를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유족여부 의견서를 첨부한 서류원본을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였다.

③ 심사조서 작성

심의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7년 3월 5일까지, 시행세칙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연구과에서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먼저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송부된 유족등록신청건의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월 1회 직접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위원회 의견서 및 사실보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전문가조사팀 회의에 상정하였다.

④ 전문가조사팀 회의 및 보완조사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이송한 유족등록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조사연구팀에서 검토 분석한 후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이 110여 년이나 지났고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전문가들로 전문가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는 심사담당관이 기초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과위원회에 보내고 문헌근거가 전혀 없거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는 총 15회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에서 검토된 유족등록 신청 건은 263건이며 검토결과, 인정 235건, 불인정 28건의 결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것도 있다.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 결과, 보완의 결정이 내려지면 현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완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구전만이 전해지고 정확한 사료적 근거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완조사는 대개 전문가조사팀 2명, 심사담당관 1명, 조사원 1명 등 총 4명이 한조가 되어 실시하였다. 보완조사는 총 30회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총 82일, 조사건수 155건, 조사연인원 96명에 달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먼저 참여사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참여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한 정밀한 역사적 판단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사실 전승과정을 자세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참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실제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신청인이나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족으로부터 직접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자가 동학농민혁명 이후까지 생존했을 경우, 참여 이후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사 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참여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음 이러한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가조사팀원 중 한사람이 대표로 ‘전문가조사팀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다시 전문가조사팀 검토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정한 뒤 전문가조사팀 전원이 합의하여 서명하였다. ‘전문가조사팀 검토결과보고서’에는 참여사실 전승, 참여내용, 동학과 천도교 활동, 참여이후의 삶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문가조사팀회의를 통과한 유족등록신청건은 대해서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토록 하였다.

⑤ 분과위원회 심사

전문가조사팀에서 서명 제출한 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보 내지 보완, 재검토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전문가조사팀에게 재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10회에 걸쳐 302건을 심의하여 인정 224건, 불인정 28건, 유보 50건으로 결정하였다.

⑥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제4조, 시행세칙 제13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유족등록 여부 결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263건의 참여자 및 유족등록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63건 중 235건은 유족으로 결정하고 28건은 부결하였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작성한 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를 제작하여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참여자명단 색인작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 색인작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5월부터 동년 7월까지 약 60일 동안 동학 전공 연구자 4명을 임시 채용하여,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저, 전 30권)에 기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대상 자료에서 참여자의 성명 및 직위, 활동지역, 사망지역 등을 기준으로 색인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다시 사무국 심사담당관이 추출된 인물의 참여자 여부 검토, 관련 지역 연관성 등 색인어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어 참여자의 성명, 직위, 활동지역, 사망지역, 사망날짜 등 색인 입력 작업을 마쳤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단 색인’ 자료집 50부를 발간하여 시도 실무위원회 16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24부, 기타 10부 등 비치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시/도/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결정 및 유족등록신청 참고자료』를 500부 발간하여, 각 시도, 시군구(256개) 및 동학관계단체(21개)에 비치하여 신청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인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업무의 신청기한(2005. 9. 5)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접수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결정 및 유족등록 참고자료’를 배부하여 신청인의 유족등록 및 참여자결정 신청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3) 심의기준안 마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에 대한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와 제3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2004. 11. 13, 2004. 11. 23)에서 우윤 위원이 작성한 심의기준안을 검토하였고, 제4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심의기준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심의세부기준안을 모색하였다. 마침내 제7차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2005. 5. 23)에서 심의세부기준안을 검토하여 분과위원의 수정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심의세부기준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2005년 6

월 15일 시도 실무위원회 업무담당관회의에서 시도 실무위원회 담당자에게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설명하였다.

〈표 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 심의세부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결정/등록 심의세부기준〉

1. 참여자의 범위

가.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 1차 봉기의 기점은 무장기포일인 1894년 3월 20일(음)로 하며, 2차 봉기의 종점은 최후전투인 금산 대둔산전투 종료시점인 1895년 2월 24일(음)로 함

나.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에 지주와 부농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집강소 시기 동안 2차 봉기 준비에 참여한 자도 참여자의 범위에 포함

-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지주, 부농, 관료, 양반, 백정 등도 포함됨
- 집강소 시기 동안 2차 봉기 준비에 참여한 자의 범위에는 사회개혁 참여자 및 이 시기 전국 각지의 국지적인 전투에 참여한 자도 포함

2. 참여자의 유형 구분

가. 1차 및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나. 1차 및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

- 물자의 범위에는 정보도 포함된다. 물자제공자의 범위에서 강제로 징수/제공 당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자는 제외됨

다. 1차 및 2차 봉기 시 노동력 제공자

라. 기타 1차 및 2차 봉기 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참여자 결정 심사 시 제외대상자(학술적 연구자료 제시)

- 동학농민혁명의 취지와 관계없이 사적 이해관계로 끼여든 자
- 재산이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일시적 비자발적 참여자와 강제적 참여자
- 변절자, 친일자, 교인으로 단순가담자, 무고한 희생자 등
- 변절자/친일자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기간 동안 변절 및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자를 말함
- 동학농민혁명 전개기간 이후에 친일을 한 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그 친일행위가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만 친일자 범주에 포함함
- ‘교인으로 단순가담자’란 단순한 동학교도, 즉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학교도를 말함
- 무고한 희생자란 관군의 수색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말함

3. 유족의 범위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손자녀 : 친손, 외손, 양자손
 - 양자(養子) : 참여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양자손은 참여자 직계비속의 그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특별법> 공포(2004.3.5)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참여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4. 유족등록 신청 시 근거자료

- 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 자료 또는 문헌의 범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및 그 직후에 기록·작성된 관찬사료, 재판기록, 신문기사, 일기자료, 편지, 자서전 등을 말함.
 -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996) 30권의 소장자료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또는 문헌에 속함.
 - 동학농민혁명 당시 발급된 접주임명장도 ‘자료 또는 문헌’에 포함됨
- 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戶口單子) 등]

다. 신청인의 호적등본

라.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참여자의 실명과 관찬사료와 이름이 다른 경우, 양자가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의 확인서
- 기 발표된 연구논문 또는 연구서에서 밝혀진 자료
-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이 보증하는 증언록
- 전공연구자 3인 이상이 보증하는 족보
- 동학농민혁명 후 참여자의 행적을 기록한 개인자료

5. 유족등록 신청시 대표유족 선정기준 및 관할 실무위원회

- 가. 참여자 및 유족의 사실조사와 심사는 유족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표 유족 주소지의 실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대표 유족을 선정하지 않고, 여러 유족들이 신청하였을 경우 유족의 대표자를 선정
 - 참여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 유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실무위원회
 - 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실무위원회
 - 참여자의 주소지(옛 지명 명시)의 관할 실무위원회

(4) 봉사손 유권해석

〈특별법〉 제2조에서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112년이 된 오래된 일이고 유족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호적이나 족보에서 양자 또는 양손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유족 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이와 관련하여 특정 종친회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봉사손(奉祀孫)으로 인정받아 족보에 고손의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대개 봉사손이란 후손이 없거나 사라졌을 때 종중(宗中)으로부터 해당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봉사손이라고 기록된 자를 말한다. 위의 종친회는 첫째 봉사손을 양손자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봉사손을 양손자로 인정한다면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봉사손이 족보에 고손의 자리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유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가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민법〉에 따르면 직계혈족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자녀 및 손자녀’는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의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특별법〉의 국회입법과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당초 초안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자녀 및 손자녀’로 축소하여 규정한 것인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넷째, 〈민법〉 시행 이후에 봉사손이 된 자는 동법에 규정된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양자로 볼 수 없으나, 동법 시행 이전에 봉사손이 된 자는 그 당시의 관습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양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봉사손이 양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봉사손은 고손에 해당하게 되는데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1촌 또는 2촌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만을 의미하므로, 고손에 해당하는 봉사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4) 2차 등록 과정

2007년 1월 26일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범위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2차 신청이 시작되었다.

(1) 심사절차

① 신청

개정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동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해당 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하도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7월 25일까지 6개월간이었다.

② 참여자 신청건 시도 실무위원회 반송 및 처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선 2004년 11월 3일부터 2005년 9월 5일까지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송부했던 참여자 신청 200건을 각 시도실무위원회에 반송하였다.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신청인 ⇒ 실무위원회 ⇒ 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 신청인 등의 순이다.

〈표 4〉 시도별 반송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건수	49	1	1	4	6	12	4	14	21	37	38	4	9	200

각 시도실무위원회에서는 참여사실만을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였고 유족관계를 심사하지는 않았다. 또 실무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법률 개정 내용, 유족의 범위, 제출서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통지하였다. 손부, 증증손 등과 같이 유족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인 경우는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족등록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신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실무위원회에 송부하였다.

③ 실무위원회 조사

이렇게 하여 접수된 유족등록 신청건에 대해 시도 실무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접수일로 180일 이내 즉 2008년 1월 21일까지 동법 제5조, 시행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 과정에서 <전환>, <추가>, <신규> 세가지 분류를 적용하였다. 첫째, 전환이란 1차 등록 당시 유족등록 신청건 중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특별법> 개정으로 심사대상이 되어 <전환>으로 표기한 것이다. 둘째, 추가는 1차 등록 때 유족으로 인정받았던 건 중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증손, 고손까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류를 추가 요청한 것이다. 셋째, 신규는 2차 등록 때 새로 받은 유족등록 신청건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과 분류로 실무위원회에서 재조사한 결과 총 245건(전환 118건, 추가 108건, 신규 19건)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결정자 명단을 송부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실무위원회 58건(신규 6, 추가 37, 전환 15), 인천 실무위원회 8건(전환 4, 추가 2, 신규 2), 경기 실무위원회 10건(전환 9, 추가 1), 대구 실무위원회 2건(전환 1, 추가 1), 광주 실무위원회 20건(전환 2, 신규 7, 추가 11), 대전 실무위원회 3건(추가 3), 강원 실무위원회 5건(전환 4, 추가 1), 충북 실무위원회 12건(전환 7, 추가 3, 신규 2), 충남 실무위원회 19건(전환 18, 추가 1), 전북 실무위원회의 62건(전환 30, 추가 30, 신규 2), 전남 실무위원회 19건(전환 17, 추가 2), 경북 실무위원회 11건(추가 7, 전환 4), 경남 실무위원회 16건(추가 9, 전환 7) 등이었다.

④ 심사조서 작성

심의위원회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09년 1월 22일까지, 시행세칙 제13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조사연구팀에서 심사조서를 작성하였다. 조서작성은 1차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⑤ 전문가조사팀 회의 및 보완조사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조사팀 회의와 현지 보완조사도 계속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팀 회의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총 10회 실시하였고, 현지 방문 및 신청자 직접 방문 등을 포함한 보완조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28회가 되었다.

⑥ 분과위원회 심사

전문가조사팀에서 제출한 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인정, 불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만약 분과위원회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보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전문가조사팀에게 재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16건을 심사 인정 473건, 불인정 38건, 유보 5건 등을 결정하였다.

⑦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제4조, 시행세칙 제13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유족등록 여부 결정하였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11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473건 9,776명은 결정되었고 38건 563명은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결정서」를 작성한 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를 제작하여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실무위원회는 이를 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5) 참여자 직권등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유족등록 신청이 없는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별법 시행세칙 제15조(2007. 10. 2) ‘직권조사에 의한 참여자 등록’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 및 등록기간은 2009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5〉 참여자 조사 등록과정

참여자 조사·분석·정리(사무국) → 전문가조사팀 검토 → 결정및등록분과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등록

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 『사법품보』 20권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사실을 확인하였다. 총 7,279건의 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복사한 뒤 개별파일로 편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전문가조사팀회의에서 상정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는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자심사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빙성, 제시한 내용에 대한 참여사실 여부, 참여지역과 시기 등이었다.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241건을 검토하여 3,175건에서 참여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 보내 심사토록 하였다. 전문가조사팀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참여자심사조서를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 참여사실에 대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며 참여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3,175건을 심사하여 3,146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인정하였다.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동법 시행세칙 제15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참여자여부를 결정하였다. 2009년 11월 15일 3,146명을 심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146명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등록하였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체 조사

심의위원회가 2009년 12월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 2월 24일 설립되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념재단은 민간으로 활동했던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조사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자조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단 내에 참여자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참여자조사위원회는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기념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참여자조사위원회를 위해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는 참여자조사위원, 연구조사부장, 연구조사부 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참여자의 후손을 만나 증언을 듣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족들은 유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참여자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참여자조사위원회 활동 현황(2010~ 2017)

차수	일자	장소	안건	결과
1차	2010. 7. 27	재단 회의실	위원장 선출 등	위원장 선출
2차	2010. 12. 22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7건	인정3, 유보4
3차	2011. 2. 18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계획검토	계획 검토
4차	2012. 2. 3	재단 자료실	참여자조사 39건	인정25, 불인정3, 유보 11
5차	2012. 12. 21	재단 회의실	참여자조사 11건	인정4, 유보7
6차	2013. 10. 25	성균관대 회의실	위원장 선출/참여자조사 8건	인정4, 불인정3, 유보1
7차	2014. 2. 14	성균관대 회의실	참여자조사 14건	인정13, 유보1
8차	2015. 12. 23	용산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281건	인정269, 불인정4, 유보 7, 심사제외 1
9차	2016. 12. 13	서울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29건	인정24, 불인정1, 유보4
10차	2017. 12. 7	용산역 회의실	참여자조사 40건	인정32, 유보8

참여자조사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10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여자조사 429건에 대해 심의하여 인정 274건, 불인정 11건, 유보 43건, 심사제외 1건 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참여자와 유족의 추가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으로 문의해온 많은 참여자의 유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이후 추가등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4. 문체부소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심의위원회 재구성

한시적으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이후 그 사실을 알게된 많은 유족으로부터 추가 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동학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 2018년 9월 1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으로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 4인과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이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사무와 업무처리를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신청에 의한 참여자 및 유족등록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처에서 이를 접수받고, 사무처에서는 신청된 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조사위원과 조사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뒤 유족신청인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이를 조사위원회에 올려 조사된 안전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에서 인정, 불인정을 결정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인정 불인정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류의 결정을 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조사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인정, 불인정이 결정된다. 여기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족등록통지서가 전달되고 불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불인정을 통지한다. 이후 사무처에서는 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와 참여자 및 유족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조사위원회의 활동

2018년 위원회가 재출범한 이후 실무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였으나 위원 수를 늘리고 수행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조사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회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실무위원회 활동현황(2018.12.1.~2019.12.31.)

차수	일자	장소	안건(사전심의)	결과
1차	2018.12. 4	기념재단 회의실	위원장 선출	위원장 선출
2차	2019. 5. 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등록신청 39건	인정30, 불인정4, 유보5
3차	2019.10. 2	기념재단 회의실	시행세칙 개정안	개정안 검토
4차	2019.11.1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등록신청 35건	인정25, 불인정4, 유보6

〈표 8〉 조사위원회 활동현황(2020. 1. 1~현재)

차수	일자	장소	안건(사전심의)	결과
1차	2020. 4. 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0건	인정28, 불인정2
2차	2020. 9. 2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0건	인정14, 불인정12, 보류4
3차	2020. 11.1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5건	인정5, 불인정8, 보류2
4차	2020. 12.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8건	인정2, 불인정2, 보류4
5차	2021. 4. 8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9건	인정23, 불인정5, 보류1
6차	2021. 6. 3	기념재단 회의실	전봉준유족신청 처리방안	처리방안 검토
7차	2021. 7. 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8건	인정22, 불인정6
8차	2021. 10. 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1건	인정7, 불인정12, 보류2
9차	2021. 11.2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7건	인정5, 불인정2
10차	2022. 3.3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3건	인정10, 불인정1, 보류2
11차	2022. 8.2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9건	인정14, 불인정5
12차	2022. 10.2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19건	인정15, 불인정3, 보류1
13차	2022. 12. 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49건	인정45, 불인정1, 보류3
14차	2023. 3.3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2건	인정21, 보류1
15차	2023. 7. 6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2, 불인정4, 보류6
16차	2023. 9. 2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7, 불인정5
17차	2023. 11.2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5건	인정31, 불인정2, 보류2
18차	2024. 3.28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4건	인정24
19차	2024. 7. 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3건	인정31, 보류2
20차	2024. 8.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4건	인정32, 불인정2
21차	2024. 11.29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6건	인정33, 불인정3
22차	2025. 3.2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26건	인정24, 불인정2

조사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2회 개최되었으며 이때 유족신청 542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여 435건을 인정하였고 77건 불인정하였으며 30건을 보류하여 추가조사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조사관과 함께 신청인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를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한 후에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활동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2018년 재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583건을 심의하여 487건을 인정하고 85건을 불인정하였으며 11건을 보류로 의결하였다. 참여자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유족만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고려하면 불인정 85건은 매우 많은 편이다. 이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의 의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심의위원회는 매년 4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

〈표 9〉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8. 9. 1 ~ 현재)

차수	일자	장소	안건(심의·의결)	결과
1차	2018. 9. 4	달개비	위원회 시행세칙안	개정안 통과
2차	2019. 6.12	오송컨퍼런스	유족신청 34건	인정30, 불인정4
3차	2019.12. 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31건	인정23, 불인정4, 보류4
4차	2020. 6. 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30건	인정28, 불인정2
5차	2020.10.22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6건	인정14, 불인정12
6차	2020.12.22	서면심의	유족신청 23건	인정7, 불인정10,보류6
7차	2021. 4.28	서면심의	유족신청 28건	인정23, 불인정5
8차	2021. 7.29	서면심의	유족신청 28건	인정22, 불인정6
9차	2021.11. 2	오송세종컨퍼런스	유족신청 19건	인정7, 불인정12
10차	2021.12.1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7건	인정5, 불인정2
11차	2022. 4.14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11건	인정10, 불인정1
12차	2022. 9.16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19건	인정14, 불인정5
13차	2022.11.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18건	인정14, 불인정3, 보류1
14차	2022.11.1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46건	인정45, 불인정1
15차	2023. 4.1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1건	인정21
16차	2023. 7.2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26건	인정22, 불인정4
17차	2023.10.13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2건	인정27, 불인정5
18차	2023.12. 7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신청 33건	인정31, 불인정2
19차	2024. 4.1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24건	인정24

20차	2024. 7.2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1건	인정 31건
21차	2024.10.31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4건	인정32, 불인정2
22차	2024.12. 5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 및 직권 36건	인정33, 불인정3
23차	2025. 4.10	기념재단 회의실	유족신청 26건	인정24, 불인정2

조사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2회 개최되었으며 이때 유족신청 542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여 435건을 인정하였고 77건 불인정하였으며 30건을 보류하여 추가조사하였다. 조사위원들은 조사관과 함께 신청인을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를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한 후에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인정,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활동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심의위원회는 2018년 재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583건을 심의하여 487건을 인정하고 85건을 불인정하였으며 11건을 보류로 의결하였다. 참여자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유족만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고려하면 불인정 85건은 매우 많은 편이다. 이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의 의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심의위원회는 매년 4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

4) 심의 기준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심의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참여자는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1차 또는 2차 봉기에 물자를 제공한 자 및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도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간 동안 변절하였거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자로 인정하는 자료의 기준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및 그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기록된 자료에서 인명이 확인되면 인정하였다. 해방이후 1994년(동학농민혁명 백주년)까지 기록된 자료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1994년 이후 기록된 자료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제적부)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참여자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전승(진술) 과정의 명확성, 전승(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여부, 족보(사망일자)나 호적 등 방증자료, 제3자의 진술, 비문, 책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하였다. 증언이나 구술만 있는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전승(진술) 과정의 명확성, 전승(진술) 내용의 신빙성, 역사적 사실과의 부합여부, 족보(사망기록)나 호적 방증자료, 사실조사 등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자를 결정하였다.

유족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로 외손, 외증손, 외고손도 포함된다. 참여자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양자를 인정하였다. 또 참여자의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 1인에 한해 양자손을 인정하였다. 유족의 입증근거는 호적(제적부), 가족관계증명서가 우선이며 족보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표 10〉 참여자 유족등록 심의기준

구분	참여자·유족등록 심의기준
참여 기준	<p>가) 참여자로 인정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차 또는 2차 봉기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② 1차 또는 2차 봉기 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③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p>나) 참여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학농민혁명 기간 변절한 자 ②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
유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② 양자(養子) : 참여자가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에 입양(入養)한 자(1인 한함) ③ 양자손 : 참여자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여(女)만 있는 경우에 입양(入養)한 자(1인 한함) <p>※ 자부(子婦), 서(壻), 손부(孫婦), 손서(孫壻)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음</p>
참여 유족 입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학농민혁명 기간 및 그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기록된 자료 ② 해방 이후 1994년(동학농민혁명 백주년)까지 기록된 자료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 ③ 1994년 이후 기록된 자료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제적부) 등 방증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④ 증언·구술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고 족보나 호적 등 방증자료 또는 사실조사 등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 ⑤ 호적(제적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족보 등

5) 직권조사에 의한 참여자등록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참여자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있다. 직권참여자등록이라도 유족 등록 신청 절차에 준거하여 사실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사실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후 심사안을 작성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후에 이것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권등록 된 참여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여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5. 참여자 등록현황과 그 의의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조사하여 등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3,913명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43명(3%), 충청도 1,109명(28%), 전라도 2,083명(53%), 경상도 204명(5%), 강원도 76명(3%), 황해도 111명(3%)로 전라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확인되고 있다.

〈표 11〉 도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미상	합계
143 (3%)	1,109 (28%)	2,083 (53%)	212 (5%)	105 (3%)	111 (3%)	2 (0%)	1 (0%)	147 (5%)	3,913 (100%)

〈표 12〉 1차·2차 봉기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1차 봉기 참여자	2차 봉기 참여자	미구분	합계
224	3,364	325	3,913

1차 봉기 참여자와 2차 봉기 참여자를 구분해 보면 2차 봉기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1차 봉기가 전라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데 반하여 2차 봉기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등록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반란자라고 하여 낙인 찍고 억압을 일삼던 상황에서 국가가 참여자와 유족 개개인에게 역사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다는 점이다. 비록 시간이 흐르고 참여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지 않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개인을 역사적 인물로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겨우 3,913명의 이름이 확인된 것이다. 매우 적은 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와 기록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이름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

가 있다. 역사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동학농민군 개개인의 이름이 참여자와 유족등록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다.

셋째,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으로서 근거지를 잃고, 삶의 기반을 잃고, 교육의 기회를 잃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유족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조상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알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 평등, 자주, 인간존중의 정신을 알게 해 주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 보았다.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등록하였다. 2009년 12월까지 총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였다. 이후 추가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가 2018년 9월 재구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업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였다. 이후 기념재단은 현재까지 참여자 269명, 유족 3,194명을 조사하여 등록하였다. 현재까지 참여자는 3,913명, 유족은 13,761명이 등록되었다. 이러한 등록작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는 2004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등록해야 할 참여자와 유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유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역사적 사건으로 재구성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조사되고 정리된 내용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시와 소설로, 영화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토론문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참여자 등록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토론문

신 영 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과정

동학농민군이 봉기했던 1894년은 국왕이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해서 단독으로 행사하는 전제군주제 사회였다. 왕조정부는 정학인 주자학과 상반된 이단과 사교로 동학을 규정하고 탄압하였으며, 무장봉기한 동학농민군은 병란을 일으킨 반역도로 보고 진압 임무를 부여한 경군을 파견하였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거해서 국왕을 인질로 잡고 국정 간섭을 자행한 이후에도 이 같은 대응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재봉기가 거의 전국에 걸쳐 일어나자 경군을 파병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라는 히로시마대본영의 명령을 받고 온 일본군에게 협조하도록 하였다.

왕조정부의 지배층과 일본침략자들이 동학 비적으로 매도했던 동학농민군에 대한 명예회복은 광복 이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에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학문 연구에서는 일찍 재평가되었지만 한국사의 발전과 국권 유지를 위한 반일전쟁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그 같은 실상은 이미 두 세대를 지날 때까지 이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를 ‘동학란(東學亂)’으로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용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과 학계의 평가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1954년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기념물을 설치한 사업이었다. 천안전씨 문중에서 전봉준 장군이 살던 마을인 조소리 인근의 이평면 창동리 야산에 단비(壇碑)를 조성한 것이다.

60주년이 되는 시기에 전봉준 장군과 관련한 표지를 세운 사업인데 그 비문에 ‘갑오민주창의통수 천안전공봉준지단(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瑋準之壇)’이라고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민주창의(民主倡義)’였다고 새긴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해서 1963년에는 이병기, 김상기, 박용상, 황민구, 이치백 등이 중심이 되어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건립했다. 이때는 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으로 격하하여 가르

치던 때였다.

80주년을 맞는 1973년에는 공주 우금티에 「동학혁명위령탑」이 세웠다. 이어 1977년에 충남 태안의 백화산에 추모탑을 세웠고, 1978년 강원도 홍천 서석면의 자작고개에 위령탑을 세웠다. 태안에서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유족이 추모탑 건립을 주도하면서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했다. 홍천에서는 춘천교대 조동걸 교수의 조사연구에 이어 주민들의 성금으로 위령탑을 세웠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기념사업은 동학농민군과 봉기를 기념하는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미 1895년부터 진압에 공을 세운 민보군과 관군 지휘관을 기리는 기념비 등 반농민군 기념물이 세워진 것과 반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와 ‘창의’ 그리고 ‘혁명’이라고 그 성격을 명백히 내세웠다.

현재와 같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100주년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1989년에 결성한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백추위)」가 연구, 조사, 답사, 사료총서 발간, 언론 활동 등을 펼쳐나갔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한 백추위의 활동은 알려졌고,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전주에서 1991년 11월 「갑오농민전쟁 백주년기념사업회」 발기인 모임을 결성해서 다음해 6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하였다. 설립목적은 “일제 36년과 분단 반세기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한 지역단위의 국지적인 농민항쟁으로, 반역의 사건으로 축소·왜곡되어온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그 참모습을 확인하고자, 학술·출판사업, 문화예술사업, 기념조형물 건립사업,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기념사업을 전개했던 정읍군과 정주시에서 100주년을 계기로 각각 기념사업회가 다시 결성되었다. 이 두 단체가 1995년에 통합해서 오늘날 사단법인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충남 공주에서는 색다른 사건으로 기념사업회가 발족하게 된다. 1993년 공주시가 우금치 전적지 인근에 주유소를 허가한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3년 2월 「우금치동학혁명전적지성역화추진회」를 창립했고, 다음 해 3월에는 우금티가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5년에는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를 결성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100주년 이후 전북·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강원도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속속 결성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같은 성격을 갖는 기념사업회가 연이어 조직된 것은 새로운 모습이었다. 근대 전환기에 일어난 커다란 사건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의병이나 독립운동 등의 기념사업회는 지역마다 설립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동학농민군의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학농민군은 전국적인 단일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의 기본 단위는 접주가 이끄는 접 조직

이었고, 여러 접 조직을 지휘했던 지도자는 포의 대접주였다. 포 조직은 동학의 연원에 의해 구성되는데 지역이 아닌 인맥에 의해 이루어졌다.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활동하거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활동한 것은 이런 구조 때문이었다. 각 지역에서 결성된 동학농민군은 대접주를 통해서 동학 교단이나 남접지도부와 연결되었다.

2차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수는 매우 많았으나 한 지역에 모두 집결해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다. 전봉준 장군이 지휘했던 남접의 주력이 대체로 전북의 전주·금구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삼례 집결 후 논산·공주로 이동하며 전투를 벌였다면, 손병희 통령이 이끌었던 북접농민군 주력은 보은·영동·황간에 주둔했다가 논산에서 전봉준 군과 합류하여 공주전투를 함께 치렀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동학농민군은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기념사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 백주년을 맞이했던 1994년 3월에 창립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이었다.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백추위)」가 동학농민군 후손 증언록인 『다시 피는 녹두꽃』을 만들면서 증언을 했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유족회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2. 특별법이 갖는 <동학농민군 명예회복>의 중요한 의미

2004년 7월 24일에 공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기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왕이 주권을 가진 전제 왕조정부에서 비적으로 탄압하고, 일본의 강점시기에 동학란으로 비하했던 사건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동학농민군의 명예를 법률 제정의 방법으로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라는 약칭에서 그 성격이 드러난다. 처음으로 동학농민군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였다.

<특별법>은 제1조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8조에서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9조에서는 민간 재단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 기념재단이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②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③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④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⑥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⑦ 그 밖에 동학농

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를 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 유족을 확인 발굴하는 작업을 하였고, 증언록 『다시 피는 녹두꽃』의 집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위원으로 유족 등록 사업에도 참여하여 관계서류 검토뿐 아니라 유족을 방문해서 증언을 듣기도 했다.

또한 민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상임이사로 여러 해 동안 일하면서 유족회의 활동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도 하였다. 유족 조사와 등록에 관한 각 단계를 자세히 보고 실무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유족 등록은 그 자체가 동학농민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의의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족들의 증언에는 한 세기를 지난 내밀한 가족 내력이 담겨있다. 3대 또는 4대에 걸쳐 가족 간에도 차마 말로 전하지 못한 참담한 내력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유족들이 국가사업의 하나인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로서 유족으로 등록하는 일은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이다.

3. 유족을 찾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많은 경우 이 사회에서 한 세기 이상 최하층에서 살아왔다. 젊은 나이에 순국한 분들의 유족은 매우 어려웠다. 젊은 가장을 잃은 가족의 삶을 들으면 처절하기 짝이 없다. 당시 토지와 가산을 몰수당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다. 피신을 할 수 있었어도 살던 집을 불살라지면 돌아올 곳이 없었다. 유족이 있어도 선대의 활동상이 전승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등록된 유족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2월까지 총 참여자 3,644명, 유족 10,567명을 등록”하였고, 기념재단이 “기념재단은 현재까지 참여자 269명, 유족 3,194명을 조사하여 등록”함으로 모두 “참여자는 3,913명, 유족은 13,761명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한 사업이 이런 규모라고 한다면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한국 근현대사상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통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의병 참여자들은 광복 직후부터 높이 평가되었다. 갑오년 다음해인 을미년에 민비시해와 단발령으로 일어난 의병은 국가가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했고, 보훈대상이 되어 유족들을 지원하였다. 그런 사업은 3.1만세운동 참여자와 일제 말의 독립운동자까지 이어졌다. 그런 까닭에 당사자는 물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보훈대상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유족이 조사되거나 확인되고 있다. 광복회의 활동도 활발하고, 각 보훈지청의 업무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현재 131주년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대는 한 사람도 없으며, 손자 대는 몇 명이 없다. 증손자와 고손자 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위에 부분적인 증언도 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젊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선대의 일이 장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시대 환경에서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3,761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료에 나타난 참여자를 직권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족이 없는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새로 확인하는 사료에 나오는 참여자 중에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기도 한다.

재단의 주요 업무인 유족등록은 당연히 연구사업과 직결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 참여자를 조사하여 유족을 확인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가 거주하던 마을이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이 마을을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이다. 대접주와 접주 등 주요 인물은 성씨 조사를 통해서 족보를 확인하여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후손이나 방손 또는 마을 유지를 통한 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념재단에 연구소의 기능이 발휘되면 참여자와 유족조사를 중요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담 연구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약한 참여자의 자료를 마을과 문증을 찾아가면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2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

| 발표 |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I. 머리말

II. 전라북도 참여자 데이터 구성과 분석 기준

III.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석

IV.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

V. 맺음말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

박 정 민

(전북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전라도에서 시작된 반봉건·반외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민중운동이었다. 특히, 전라북도(이하 전북)는 1차 고부 봉기에서 무장 봉기, 백산 대회, 황토현 전투, 전주 화약에 이르기까지 동학군의 주요 활동 무대였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전북 지역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2차 봉기에서도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은 논산에서 북접과 합류하였고, 김개남을 중심으로 한 남원 일대의 농민군은 청주 방향으로 진격하는 등 전라도의 농민군은 주력으로 자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사상과 전개 과정, 지도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회적 구성과 지역적 분포를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혁명의 실질적 기반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전북 지역에 한정된 참여자 규모, 연령, 출신지, 직업, 피해 양상 등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회사 분석은 학계에서 아직 부족하다.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사료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연구 동향 자체를 계량정보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최근 들어 사상 중심의 거시적 접근에서 지역 사례와 사회사적 접근으로 다층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동학’을 제목 키워드로 포함하는 논문 2,000여 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역 사례 연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사회적 구성, 지역별 참여 양상 등 미시적·실증적 주제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¹⁾

1)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 3, 2024.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군의 봉기 배경과 이념, 지도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봉기가 끝난 후 ‘이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안 망했을 것’이라는 후손들의 증언은 가족 단위의 생계와 기억의 붕괴를 드러낸다.²⁾ 즉, 동학농민혁명이 단일한 민중 봉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부의 구조와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인식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구축한 공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3,900여 명의 참여자와 약 1만 명의 유족을 등록하면서 참여자의 신상, 활동 이력, 희생 양상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였다.³⁾ 이 자료는 단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참여자 목록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의 사회적 기반과 지역 분포, 계층적 구성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본고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통계적 구조와 사회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러한 통계 분석은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전개 양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며 그 집합적 성격과 지역 기반 동원 역량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우발적 민중 봉기가 아닌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조직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개된 근대적 성격의 운동이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전라북도 참여자 데이터 구성과 분석 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위원회에서 구축한 자료를 기반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총 3,908명의 참여자 정보가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족 증언, 고문서, 판결문, 각종 관련 도서 등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 높은 자료이다.

위원회는 참여자 개개인에 대해 최대 24개 항목의 정보를 기입하였으나, 모든 항목이 완전히 채워진 사례는 없었다. 해당 데이터는 Excel 형식으로 제공되며 각 행은 1명의 참여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총 24개 열(column)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료에는 일부 열의 셀 병합, 비표준 표기, 중복 표기 등 형식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각 참여자에 대해 입력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ID, 구분(1차등록/직권등록), 성명(한글 및 한자), 출생연도, 사망연도, 본적, 성별, 참여 지역(도·시), 당시 연령, 직업, 직책, 참여 일자, 참여 내용,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cdpr.go.kr/commit/>) 검색일 : 2025년 5월 25일.

신상변동 등이다. 3,908명 가운데 모든 항목을 다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옛참여지역명’ 부분만 빼고 23개 항목을 채운 사람도 상당히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손화중이다. 그는 출생연월일과 사망연월일, 본적과 참여연도, 당시 연령과 직업, 직책 등 모든 내용이 다 채워져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기입된 항목은 성명, 성별, 참여 지역, 참여 내용 등이며 출생연도나 직업·직책은 기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문헌 기록 및 유족 증언의 편중성, 조사 당시 확보 가능한 사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참여자 등록’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므로 최소한의 등록 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필수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은 참여자 ID, 구분, 성명(한자 포함), 성별, 참여지역(도), 참여내용이다. 이 항목들이 갖춰진 경우 출생연도, 직업, 직책 등의 정보가 없더라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구체적 활동이 확인될 경우, 생애 전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더라도 명예회복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목록은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가덕중’, ‘가무현’, ‘가병기’와 같이 ‘가’ 성을 가진 인물부터 시작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전투 공헌도 등은 정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여자 등록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1차등록’은 유족이나 지역사회 인사가 직접 위원회에 증거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이다. 둘째, ‘2차등록’은 2009년 국무총리 직속에서 문체부 이관되면서 1차등록 당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심의에서 누락된 인물에 대해 추가적인 사료 및 증언이 확보된 뒤 재심사를 거쳐 등록된 것이다. 셋째, ‘직권등록’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결문, 고문서, 관련 도서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참여 사실이 확인된 인물을 추출해 등록한 경우이다.

전체 참여자 3,908명 중 약 70% 이상은 직권등록이며 1차등록은 약 25%, 2차등록은 5% 수준이다. 이는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후손의 적극적 신고보다 위원회 주도의 문헌 조사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권등록 참여자는 신상변동(예: 처형, 유배)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향을 보이며 1차등록자는 구술 증언 기반의 기록이 많아 참여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정형적이지 않은 표현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전체 참여자 명단 중 전라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인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원자료에는 지역 정보에 다양한 오류와 혼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 및 보정 작업을 병행하였다.

원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행정구역 오기이다(예: 전북 능주, 전북 무안 등). 둘째, 전투지 혹은 활동지 중심의 표기이다(예: 백산, 우금치). 셋째, 과거 지명과 현대 지명의 혼재이다(예: 응포, 대둔산 등). 넷째, 참여지역(도)와 (시) 항목 간 불일치 혹은 누락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오기 수정의 차원을 넘어 사료적 타당성과 통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제 기준 수립이 필수적이었다.

- ① 「참여지역(도)」 항목에 '전라북도' 또는 '전라도'로 기재된 경우를 1차 필터링 기준으로 삼았다. 단, '전라도'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전남 지역과의 혼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지역(시)」 및 「참여내용」 항목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전북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였다.
- ② 「참여지역(시)」 또는 「참여내용」 항목에 전라북도 소속 지명이 명시된 경우를 추가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자료는 현재의 14개 시·군명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항목에는 과거 지명인 '응포'⁴⁾, '대둔산', '고산', '임피' 등이 사용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당대 행정구역인 26개 군현명을 기준으로 지명을 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응포'는 당시 함열에 속했으므로 '함열'로, '대둔산'은 고산 지역이므로 '고산'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의 지리적 맥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표기된 지명이 단순한 집결지 또는 전투지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지역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활동지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김주환은 '백산(전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성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백산 대회에 참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주요 활동지를 반영하여 '장성'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백산 대회에 참여한 사례라도 주도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④ 명백한 지리적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였다. 예컨대 김학준은 '전북 능주', 송관호는 '전북 무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지역 모두 전남에 속한다. 이러한 오류 사례는 행정구역 일람표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수정하였다.
- ⑤ 「참여지역(도)」 및 「참여지역(시)」 항목이 누락되거나 상호 간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라도'처럼 광역 명칭만 기재된 경우에는, '남원', '정읍' 등 전북 소속 지명이 다른 항목에 함께 언급되어야만 전북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도 항목이 불완전하거나 광역 단위만 존재할 경우에는 전남 지역과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내용, 활동지, 본적 등의 정보를 교차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총 868명의 전북 지역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다만, 일부 사례는 지역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통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최익동은 원본 데이터의 「참여지역(시)」에 '전라남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여내용에는 무장 봉기 시 모병 활동과 황룡촌 전투에서

4) 응포는 당시 함열이었으므로 함열로 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둔산은 고산이므로 고산으로 수정하였다.

화승포 사수로 참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정황상 전북 출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본고의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재찬은 손화중 대접주의 재무 담당으로 활동하며 은신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하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에 활용한 전북 참여자 수는 총 868명이다.

이후 데이터 정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연령 정보는 10세 단위 구간(10대~60대)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직업과 직책은 유사 항목을 통합하여 대표 명칭으로 정제하였다. ③ 지역 항목은 고산/고산(대둔산), 응포/함열 등 조선시대 기준 군현명으로 병합하였다. ④ 성별, 신상변동, 등록 구분 등은 누락 값을 제거하고 기입된 값만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신상변동 항목의 분류에 있어 ‘처형’, ‘전사’, ‘사망’, ‘피신’, ‘살해’ 등은 원표기의 혼동과 자료 간 상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김낙철과 임노홍은 원표기상 ‘사망’이나, 실제 사망연도가 각각 1918년과 1912년으로 확인되어 ‘피신’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김원숙은 1894년 11월 논산에서 경군과 전투 중 전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사’로 재구분하였다. 이는 단순 집계 오류를 넘어 사료 간 교차검증을 통한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북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책, 참여 시기, 신상변동, 지역별 분포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논문의 실증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원자료는 수집 과정에서 지역 표기 방식의 불일치, 지명 변천의 반영 부족, 사료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오류와 혼동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오기 수정의 차원을 넘어, 사료적 타당성과 통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한편, 전체 데이터의 기입률은 항목별로 편차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868명 중 연령 정보가 기입된 사례는 235명, 직업 기재는 165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 분석 시 각 항목별로 기준 모수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항목별 분석 시 실제 기입된 사례 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였다. 아울러 원자료의 지역 표기 오류 및 지명 변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체계적인 정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Ⅲ.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석과 사례

본 장에서는 명부에 수록된 전북 지역 참여자 868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명부는 당시의 기록 환경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일부 정보의 누락이나 기재 방식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첫째, 성별 분포이다. 전북 참여자 868명 중 명부상 확인되는 여성은 없으며 전부 남성으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참여자는 거의 전원이 남성으로, 여성의 공식 참여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명부의 특성과 기록 당시의 사회적 성별 인식에 기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여성은 후방 지원, 보급 활동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⁵⁾

둘째, 출생년을 토대로 연령대를 분석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연령이 확인된 총 235명을 10대, 20대 등 10년 단위로 구분한 연령대별 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령대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수	12	61	84	58	15	5	235
비율(%)	5.1	26.0	35.7	24.7	6.4	2.1	100

235명을 기준으로 보면, 20대(26.0%), 30대(35.7%), 40대(24.7%)가 중심을 이루며 20~40대 청장년층이 전체의 약 86.4%를 차지한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단순한 농민층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회적 역량을 갖춘 청장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직업 항목에서 '대접주'로 확인된 인물로는 부안 지역의 김낙철(37세)과 손화중(35세)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중심 인물로서 동학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봉준과 김개남은 직업이 '농업'으로만 기재되어 직업 정보를 통한 분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 정보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직책 정보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명단은 작성 시점의 한계 등으로 모든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며 실제 직책이나 역할이 누락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직업 항목에 '농업'으로 기재된 인물 중에는 김덕명, 오시영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직책 명단에 기재된 대접주는 김개남(42세), 김낙철(37세), 김

5) 박상란, 「동학농민혁명담의 전승과 젠더」, 『동학학보』 42, 2017. 또한, 무안 고막포의 사례를 보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관군에게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을 주목할 수 있다.(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이처럼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여성들이 참여했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흥기(39세), 손화중(35세), 송대화(36세), 김인배(25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책은 공란이나 전봉준(42세) 역시 대접주로 파악되므로, 대접주 그룹의 연령 분포는 40대 2명, 30대 3명, 20대 1명으로 30~40대가 중심이다.

접주 명단으로는 민영진(19세), 국민영(24세), 김연호(38세), 김재홍(40세), 김춘필(36세), 김행범(41세), 박성근(40세), 송경찬(37세), 이형택(36세), 정동훈(34세), 김치범(36세) 등이 있다. 이 중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명, 20대와 10대가 각 1명이다. 이 외에도 기포장 김수병(28세), 교수 박진화(51세), 이재두(35세), 부관 전익호(50세), 접사 송광호(32세), 도집 허현(55세), 비서 정근영(25세), 영술장 최경선(36세), 사수 최윤주(25세) 등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박진화, 전익호, 허현을 제외한 대부분이 20~40대에 속한다.

60대 이상 인물로는 김기병(64세), 김상흠(68세), 송두호(67세), 최영두(66세), 최재신(65세) 등 총 5명이다. 이 중 김상흠은 직업 기재가 없고, 김기병·최영두·최재신은 모두 '농업'으로 기입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송두호로 1893년 11월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고부·백산봉기에 참여한 중심인물이다. 그는 '교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부봉기 직전 사발통문을 자신의 집에서 작성하고, 전봉준, 아들 송대화, 송주성과 함께 서명하였다. 이후 피신 중 체포되어 1895년 1월 나주에서 처형되었다. 송두호는 고령 참여자 중에서도 핵심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보인다. 이 점은 앞서 살펴본 청장년층 중심 구조와도 부합한다.

셋째, 주요 직업 분포를 살펴보겠다. 직업이 기재된 총 166명 가운데 농업이 총 153명으로 92.2%를 차지한다. 이외 대접주 2명, 훈장, 농업(훈장), 교장, 현감 등으로 표기된 사람이 각각 1명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이 압도적으로 농촌 기반 민중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일부는 '농업(훈장)'처럼 복합 표기된 경우도 있어, 실제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중첩 가능성도 엿보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접주와 대부분의 대접주도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성원의 실제 직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며 대접주와 접주, 이외 주요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민충식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임실현감이었는데 1894년 10월 임실에서 김개남에게 항복하여 行軍都省察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뒤 1895년 1월 5일에 충청도 천안에서 탈출하였다고 한다.⁶⁾ 그는 목민관으로 재직 중인데도 동학교도와 결속하여 김개남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스스로 선봉이 되어 전주로 달려가 얼굴을 드러내고 符信을 차고 다니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⁷⁾ 이 내용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김개남과 협력관계였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처럼 지방관이었던 그가 참여자 목록에 수록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양호우선선봉일기」 3, 1894년 12월 1일.

7) 『갑오군정실기』 권8, 1894년 12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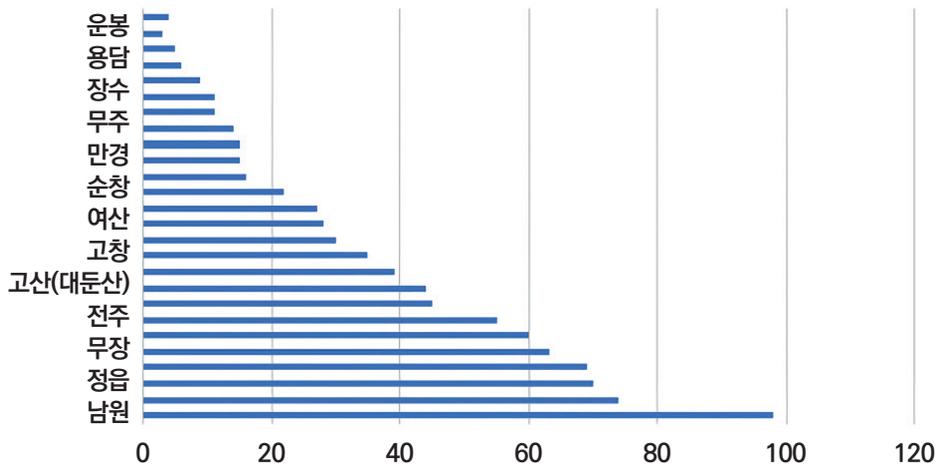
넷째, 전북지역 참여자의 군현별 분포를 살펴보겠다. 지금의 14개 시·군이 아닌,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26개 군현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용안현은 참여자가 없어 제외하였다. 군현별 참여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용안현은 0명)

연번	군현	인원수	비율(%)	연번	군현	인원수	비율(%)
1	남원	98	11.3	14	김제	27	3.1
2	태인	74	8.5	15	순창	22	2.5
3	정읍	70	8.1	16	흥덕	16	1.8
4	임실	69	7.9	17	만경	15	1.7
5	무장	63	7.3	18	함열	15	1.7
6	익산	60	6.9	19	무주	14	1.6
7	전주	55	6.3	20	임피	11	1.3
8	부안	45	5.2	21	장수	11	1.3
9	고산(대둔산)	44	5.1	22	진안	9	1.0
10	고부	39	4.5	23	용담	6	0.7
11	고창	35	4.0	24	옥구	5	0.6
12	금구	30	3.5	25	운봉	3	0.3
13	여산	28	3.2	26	미상	4	0.5

전체 868명 중 군현별 참여자 수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원이 98명(11.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태인(74명, 8.5%), 정읍(70명, 8.1%), 임실(69명, 7.9%) 등이 잇는다. 이들 상위 네 지역만으로 전체의 약 35.8%를 차지한다. 반면, 운봉은 3명으로 가장 적은 참여자를 보인다.

<그림 1>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



남원은 김개남의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핵심 거점이자 운봉 민보군과의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높은 참여자 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⁸⁾ 현재는 임실로 분류되지만, 당시에는 남원에 속했던 오수 지역까지 포함하면 남원의 실질 참여자는 더 늘어난다.⁹⁾ 이 때문에 임실 역시 69명에 달하며 남원·임실·운봉을 동일한 세력권으로 간주할 경우 총 170명(19.5%), 즉 전체 참여자의 약 1/5에 해당한다.

한편, 김개남의 고향인 태인, 손화중의 근거지였던 정읍과 무장, 전봉준이 집결한 고부를 포함한 현재의 정읍권 일대(정읍·태인·고부)는 총 183명(21.1%)에 달한다. 여기에 무장봉기 중심지인 고창(무장·흥덕·고창)은 114명(13.1%)까지 포함하면, 이 지역만으로 전북 남부에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순창(22명)까지 포함하면 55.9%에 달하며 이는 참여자의 과반 이상이 전북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정읍·고창 중심의 서남권은 전체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동학농민혁명의 공간적 핵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중서부권의 김제 지역(금구 30명, 김제 27명, 만경 15명)은 총 72명(8.3%)으로 중간 규모의 참여자 분포를 보인다. 부안(45명)을 포함할 경우 중서부권의 비중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북 동북부 지역인 무주(14명), 장수(11명), 진안(9명), 용담(6명) 등은 총 40명(4.6%)으로, 참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동학 조직망의 미약함, 관군·향촌세력의 강력한 통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전북 지역 참여자 분포는 단순한 인원수 차이를 넘어, 고부 봉기, 무장 봉기, 황토현 전투와 같은 혁명 초기의 핵심 사건이 전개된 서남부 지역에 동학농민군의 실질적인 지역 기반과 조직 동원 등이 집중되었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김개남 군의 핵심 지역이자 농민군과 민보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남원 역시 참여자가 많았다. 의외로 전라도의 수부이자 전주 화약이 있었던 전주는 삼례를 포함해 총 55명의 참여자가 확인되며 숫자가 많지 않다. 이는 혁명 주체 세력의 주요 근거지라기보다는 점령 이후 통치 중심지로 기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동학농민군의 실질적인 지역 기반, 그리고 조직 동원과 투쟁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었는가를 잘 드러낸다. 즉, 동학농민혁명의 공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했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단서로 기능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의 공간적 지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분포가 아니라 조직과 봉기, 점령과 통치, 전투와 협상의 복합적 국면이 응축된 역사적 공간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이다. 신상변동이 명시된 인물은 365명으로, 전북 지역 전체 참여자 868명 중 약 42%에 해당한다. 이들의 신상변동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형(201명), 피신(43명, 도피, 부상 후 피신, 피신 후 부상 포함), 전사(32명), 사망(24명, 처벌 후 사망,

8) 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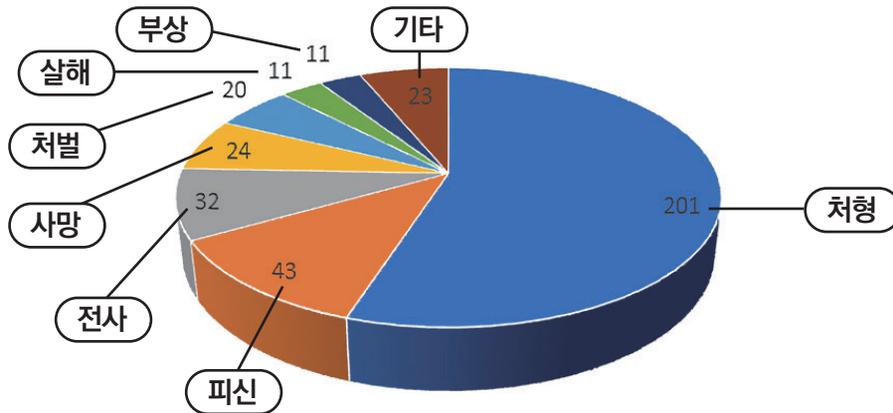
9) 이병규,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흥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3, 2014.

옥중 사망 포함), 처형(201명), 살해(11명), 부상(11명), 기타(23명)¹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

신상변동	처형	피신	전사	사망	처벌	살해	부상	기타	합계
인원수	201	43	32	24	20	11	11	23	365

<그림 2> 참여 내용과 신상변동



이와 같은 분포는 당시 각종 사료에 나타나는 “수천 명의 사망자”라는 기술이 실제 전공 과시를 위한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한다. 실질적으로 전투 중 사망보다 후속 진압 과정에서 조직적 처형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894년 후반기 이후 국가의 강경 진압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처형자 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군현별 데이터를 분석하면, 남원, 정읍, 태인, 임실 등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계열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처형자가 두드러지게 많다. 이들 지역은 동시에 동학군의 전략적 거점이자 지휘급 인물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남원의 전체 참여자 98명 중 처형자는 60명 이상으로 확인되며 이는 단일 지역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읍과 태인 또한 각 70명, 74명의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처형되었고, 임실 역시 전체 참여자 중 상당수가 처형되거나 전사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투의 격렬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직망이 견고했던 지역일수록 진압 이후 처형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학 조직의 와해를 목표로 한 지역 단위의 집중 숙청 전략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진압은 단지 개인이 아닌 조직의 중심과 거점의 제거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인다.

동학 조직 내 지휘급 인물인 접주·대접주는 일반 참여자보다 현저히 높은 처형률을 보인다. 본 분석

10) 나머지 7대 신상변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두 기타로 처리하였다.

에 따르면 대접주 7명과 접주 11명,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처형되었다.¹¹⁾ 피신한 인물은 총 6명으로, 국인영, 김낙철, 김재홍, 김치범, 박성근, 송대화이다. 요약하면 대접주 7명 중 5명(71.4%)이 처형, 2명은 피신하였고, 접주 11명 중 6명(54.5%)이 처형, 3명은 피신하였다. 민영진은 데이터에 기재되지 않았다.¹²⁾

한편, 처형 시기 역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894년 12월 한 달에만 96명이 처형되었고, 동년 11월 34명, 1895년 1월 21명으로 3개월간 총 151명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연도만 기재된 1894년 처형자 13명을 포함하면 이 시기 집중적 숙청의 양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 본격적으로 관군과 일본군이 농민군을 색출하며 전개한 일련의 진압 작전과 궤를 같이한다. 접주·대접주와 같은 지휘급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조직을 해체하고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부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도부 숙청’ 전략의 실행은 일본군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동학 진압 작전에 참여한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는 “다른 날 재기할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소 살벌한 정책을 취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비도를 죽이는 방침을 세웠으며” 자신 또한 “많이 죽이는 정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실제 동학교도들을 잡으면 바로 죽였다고 한다.¹³⁾ 이러한 보고는 동학농민혁명 말기 진압 작전이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해체와 재건 불능화를 노린 선택적·전면적 폭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투 중 사망이 아니라 체포 후 처형, 부상 후 사망, 또는 민보군과 마을 주민에 의해 살해된 사례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살해’ 사례는 공식 처형이 아닌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그 성격상 국가에 의한 직접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비공식적 위임 또는 방치 속에서 발생한 일종의 준처형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국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 중 ‘처형’, ‘전사’, ‘사망’, ‘살해’와 같은 신변상의 극단적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말기 진압 작전이 군사작전이자 정치적 숙청이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¹⁴⁾

11) 김개남, 김연호, 김인배, 김춘필, 김행범, 김흥기, 손화중, 송경찬, 이형택, 전봉준, 정동훈.

12) 민영진은 2차 봉기 당시 삼례를 거쳐 북상한 뒤 관군과의 전투를 마치고 귀가하였으며 1947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휘급 인물 중에서도 일부는 생존하여 장기간 은거했음을 보여준다.

13) 강효숙,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 -미나미 고시로(南小西郎), 이두황,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2, 2011, 137쪽.

14)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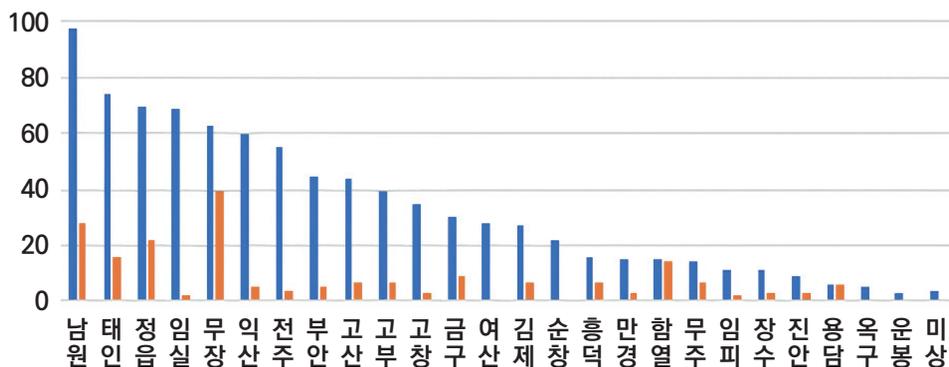
한편,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도 흥미롭다. 처형자는 868명 중 201명으로 23.1%이고, 각 군현별로 참여자와 처형자를 분석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북지역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

연번	군현	인원수	처형자 수	비율(%)	연번	군현	인원수	처형자 수	비율(%)
1	남원	98	28	28.6	14	김제	27	7	25.9
2	태인	74	16	21.6	15	순창	22	1	4.5
3	정읍	70	22	31.4	16	흥덕	16	7	43.8
4	임실	69	2	2.9	17	만경	15	3	20.0
5	무장	63	39	61.9	18	함열	15	14	93.3
6	익산	60	5	8.3	19	무주	14	7	50.0
7	전주	55	4	7.3	20	임피	11	2	18.2
8	부안	45	5	11.1	21	장수	11	3	27.3
9	고산(대둔산)	44	7	22.7	22	진안	9	3	33.3
10	고부	39	7	17.9	23	용담	6	6	100
11	고창	35	3	20.0	24	옥구	5	1	20.0
12	금구	30	9	30.0	25	운봉	3	0	0
13	여산	28	0	0	26	미상	4	0	0

전체 평균인 23.1%를 상회하는 곳은 남원, 정읍, 무장, 함열, 금구, 무주, 장수, 진안, 용담이다. 이들 지역은 강경한 진압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높은 비율이 해당 지역의 조직력, 지휘급 인물의 존재 등과 관련되는지는 추가적인 사료 검토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담으로 6명 중 6명 모두 처형당하였지만, 표본이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함열도 15명 중 14명(9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모두 함열에 속한 옹포에서 처형당하였다.

<그림 3> 전북지역 군현별 참여자 및 처형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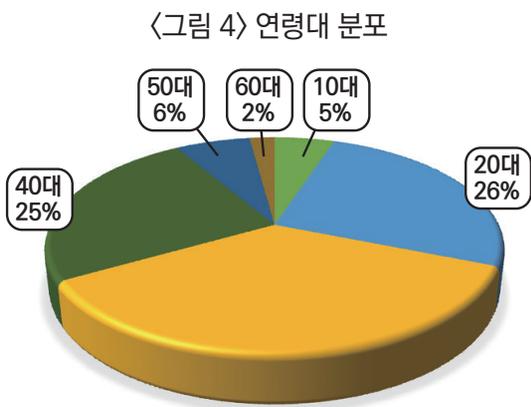
가장 많은 처형자가 있는 곳은 무장이다. 이곳은 63명 중 39명(61.9%)이 처형당하였다. 무장에 대한 강력한 진압은 이곳이 무장봉기 본거지이자 손화중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무장 지역이 단순한 봉기 지역을 넘어 동학의 전략적 전환과 조직 재편이 시도된 중심지였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강경 진압이 특정 거점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¹⁵⁾

이와 같은 군현별 처형자 분포는 정량적 수치와 비율의 편차를 통해 당시 진압 양상의 불균형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단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처형률이 높거나 낮은 지역은 군사적 충돌 외에 사료의 기입 양태, 등록 경로 등 다양한 영향을 함께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은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이 직면한 국가 폭력의 현실과 지휘구조 해체를 노린 표적 진압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드러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 양상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그 역사적 함의와 구조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V.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통계 분석은 혁명의 집합적 주체 구성과 조직 구조, 나아가 국가의 진압 전략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단서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 양상의 구조적 특징과 여기에서 도출되는 역사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나 요약만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해석적 시도이다. 특히, 본 장에서는 연령대, 직업, 지역 분포의 세 가지 주요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명의 집합성과 조직적 특질, 그리고 국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청장년 남성 중심으로 조직적 주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봉기의 주체가 단순한 하층 농민의 자발적 결집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자원과 동원 능력을 갖춘 조직적 주체였음을 시사한다. 앞서 본 것처럼 연령 정보가 확인된 236명 중 20대가 26.0%, 30대가 35.7%, 40대가 24.7%로 전체 참여자의 86.4%가 20~40대 청장년층에 집중되었다. 이 연령 분포는 단순히 다양한 방면에서 왕

15) 고산도 특이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대둔산으로 표기된 10명 가운데 김석순 한명은 자결이고 강태종 등은 모두 전사하였다. 이는 대둔산 항쟁에 참여했던 인원이었기 때문이다.

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의 실질적 조직을 이끈 지휘급 인물, 즉 접주와 대접주 역시 대부분 이 연령대에 속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동학농민혁명이 생존을 위한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학 교단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교조신원운동을 기점으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 결사체로 전환되었다.¹⁶⁾ 내포와 태안 지역 등에서 나타난 동학의 교세 확장과 조직화의 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신앙 전파에 그치지 않고, 마을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춘 인물들을 매개로 빠르게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성격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 일정한 위상을 지닌 인물들인 청장년층 일부가 포덕과 조직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나아가 이들은 단지 이념적 신념에 기반한 참여자가 아니라 실질적 작전 수행, 조직 동원, 지역 거점 유지 등 혁명의 물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지휘 구조가 단순한 지시·복종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접주나 접주는 해당 지역에서 동학 조직을 유지·운영하고, 병력을 편성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군사를 이끄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동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지역 내 불만을 결집시키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¹⁸⁾ 즉, 초기 봉기의 빠른 확산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축적된 조직적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이러한 연령 분포는 당시 조선 사회의 세대 구조 및 가족 경제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40대는 가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던 핵심 계층으로, 이들의 집단적 참여는 곧 가족 단위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세대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가족사적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유족의 구술 자료를 보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겪은 고난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유족의 증언을 보면 그 아내들이 고생했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¹⁹⁾

여성의 후방 지원, 정보 전달, 식량 조달 등 다양한 역할은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보면 ‘가족 단위의 연동된 참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동학

16) 다음 논문에서는 사회적 결사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학의 확산과정에서 민중의 결집과 1888년 삼남일대 큰 가뭄시의 행동 등으로 강한 내부적 결속과 상호 부조를 통한 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논증하였다.(임형진, 「전라북도와 전주 일대의 동학 포덕과정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51, 2019)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결사체로 볼 수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7)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 경로와 조직화 과정」, 『동학학보』 29, 2013 ; 「태안지역의 동학포덕과 조직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60, 2021.

18) 이병규,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8, 2021.

19) 여성들의 역할, 몇 세대에 이어지는 기억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박소정, 「이름 없는 동학도를 위한 허스토리 - 구술사로 재구성한 여인오대의 동학사」, 『동학학보』 68, 2023)

농민혁명이 단지 남성 중심의 군사적 봉기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과 안위를 건 총체적인 저항 운동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자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신상 정보를 넘어 당대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결국 청장년 남성 중심의 참여 구조는 단지 연령대 통계에 머물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반과 조직 동원 역량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참여자의 직업은 대다수가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을 분석하면, 직업 항목에 농업으로 기재된 인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농업 사회였던 당시의 사회 구조를 감안하면 이러한 표기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접주, 대접주, 영술장, 비서 등 동학군의 조직 운영과 지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미비라기보다, 명단 작성이 인물의 생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탓에 실제 사회적 역할이나 지휘 위치가 드러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천(현재 충남 천안) 지역에서는 천안 남면 죽거리의 김화성, 목천 伏龜亭의 대접주 김용희, 그리고 김성지 세 사람이 소위 ‘목천의 동학삼로’라 불리며 지역 동학 조직의 핵심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충북 보은에 있던 최시형으로부터 직접 동학에 가입한 뒤 각기 東包와 西包를 설치하고 조직 확대를 꾀하였다. 이들은 6천 냥에 이르는 거금을 모아 『동경대전』 1백 권을 간행하는 등 동학에 대한 깊은 신념과 함께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성희²⁰⁾는 명단에 없고, 김화성은 농업, 김용희는 직업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동학 교단의 포덕 활동과 조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김양식이 분석한 집강망과 각 지역 동학지도자 명단을 보면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동학농민군으로 결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²¹⁾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생존을 위한 봉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운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예는 백산대회 당시 총참모였던 김덕명과 오시영이다. 두 사람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는 단순히 ‘농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비서였던 송희옥 역시 직책은 누락된 채 동일하게 농업 종사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기상의 단순 누락이라기보다 명부의 작성 과정에서 직권등록이 많다보니 사료에 기재된 ‘사건 중심의 체포·심문 기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당시 기록은 참여자의 행위나 위상보다는 처벌을 위한 신원 정보 확보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후의 사료 활용과 역사적 서술에도 구조적 한계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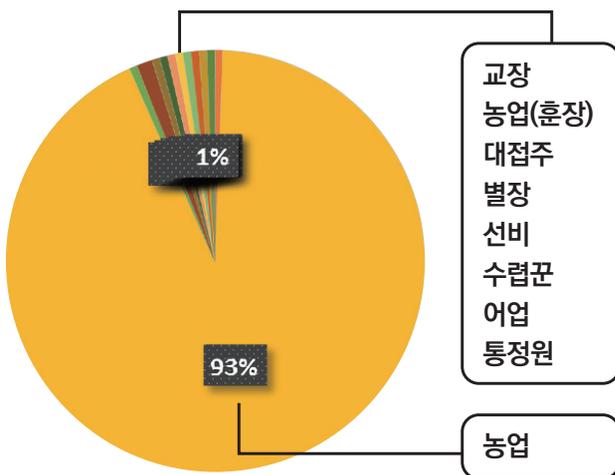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명부 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일 사료

20) 전북 지역 명단에는 있으나 목천 지역의 김성희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김양식,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전투」, 『군사』 70, 2009.

에 의존한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유족 구술, 지역 문집, 교단 문서 등 다양한 사료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참여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활동 이력을 복원하는 시도를 해야한다. 특히, 각 인물의 생애사나 지역 내 위상, 교단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는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의 '직업'과 실제 '역할' 간 괴리는 기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향후 동학농민혁명 서술에서 명단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입체적 해석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림 5〉 참여자 직업 분포



셋째, 조직망과 진압 강도의 지역 편차이다. 본 연구는 전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처형자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1789년(정조 13년) 『호구총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약 100년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당시 전북 지역 균현 인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때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표 5〉와 이를 시각화한 〈그림 6〉을 통해, 동학 교단의 조직망 형성과 국가의 진압 양상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남원, 정읍, 무장, 태인 등지

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집중된 반면, 무주·진안·장수 등 동북부 산간 지역에서는 참여자 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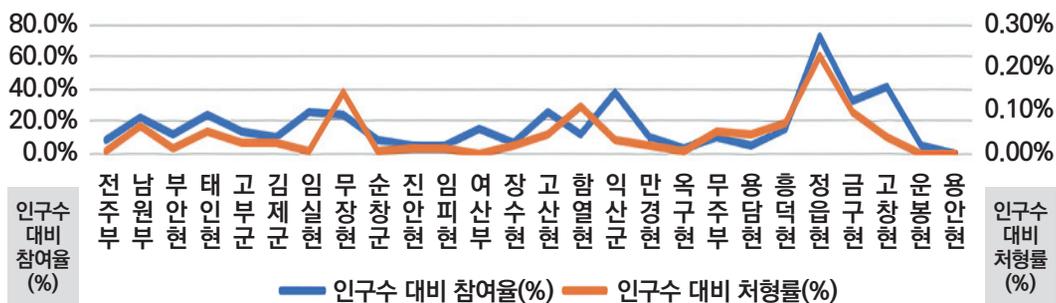
실제로 1789년 『호구총수』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인구수 대비 참여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표 5〉와 〈그림 6〉에서 보듯이 남원, 무장, 태인, 고창, 임실 등 주요 거점 지역의 인구 대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정읍현은 인구수 대비 참여율이 0.724%에 달해 해당 지역 내 동학농민군의 조직적인 민중 동원 능력이 매우 활발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지역적 조직망과 참여자 밀집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민중 동원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주, 진안, 장수와 같은 동북부 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수 대비 참여율을 보여 지리적 접근성이나 인구 밀도, 혹은 동학 교단의 조직망 확산 정도의 차이가 민중 동원 역량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2) 『호구총수』는 동학농민혁명 시기와 약 100년의 시차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인구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작성된 읍지류에 나타난 호수 및 인구 수가 『호구총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 인구 편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표 5〉 전북지역 참여자 군현별 분포

군현명	1789년 인구수	동학 참여자수	동학 처형자수	인구수 대비 참여율(%)	인구수 대비 처형률(%)
전주부	72,505	55	4	0.076	0.0055
남원부	43,411	98	28	0.226	0.0645
부안현	38,448	45	5	0.117	0.0130
태인현	31,205	74	16	0.237	0.0513
고부군	28,631	39	7	0.136	0.0244
김제군	27,585	27	7	0.098	0.0254
임실현	27,516	69	2	0.251	0.0073
무장현	27,149	63	39	0.232	0.1437
순창군	26,849	22	1	0.082	0.0037
진안현	22,210	9	3	0.041	0.0135
임피현	22,131	11	2	0.05	0.0090
여산부	19,011	28	0	0.147	0
장수현	17,539	11	3	0.063	0.0171
고산현	16,773	44	7	0.262	0.0417
함열현	12,829	15	14	0.117	0.1091
익산군	15,822	60	5	0.379	0.0316
만경현	14,674	15	3	0.102	0.0204
옥구현	14,649	5	1	0.034	0.0068
무주부	14,032	14	7	0.1	0.0499
용담현	12,860	6	6	0.047	0.0467
흥덕현	10,115	16	7	0.158	0.0692
정읍현	9,674	70	22	0.724	0.2274
금구현	9,242	30	9	0.325	0.0974
고창현	8,402	35	3	0.417	0.0357

〈그림 6〉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인구수 대비 참여율 및 인구수 대비 처형률 (1789년 인구 기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역별 참여 밀집도가 국가의 진압 강도, 특히, ‘인구수 대비 처형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림 6>에서 드러나듯이, 무장, 정읍, 태인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곳은 처형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정읍(0.2274%), 무장(0.1437%), 함열(0.1091%), 금구(0.0974%) 등 참여율이 높거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에서 ‘인구수 대비 처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비록 절대적인 수치(대부분 인구 대비 0.3% 미만)는 낮지만, 이는 해당 지역에 가해진 국가 폭력의 강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단순한 전투 결과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동학의 지도부와 조직 기반을 제거하려는 선택적 진압 전략을 구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택적 진압은 단순히 반란 진압을 넘어 동학의 뿌리를 뽑고 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신영우는 고창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선택적 진압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명히 보여준다. 무장 지역은 전북 전체 참여자 868명 중 39명이 처형되었다. 이는 전북 전체 평균 처형률(약 23.1%)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61.9%라는 압도적인 참여자 수 대비 처형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 대비 처형률 또한 0.1437%로 전북 지역 내에서 정읍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무장이 단순한 봉기 발생지가 아니라 손화중과 같은 핵심 지도자가 활동하며 동학군의 조직 재편과 항전 지속을 위한 중추적 거점이었음을 방증한다. 즉, 고창 지역에 일본군과 정부군이 무혈 입성한 후에도 다수의 농민군을 처형했으며 지역 양반들이 결성한 민보군이 동학세력 색출과 처형에 적극 협력하여 기존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점을 강조한다.²³⁾ 이러한 점을 보면 중앙 정부와 일본군의 조직적 와해 전략에 지역 기득권 세력까지 합세하여 동학의 핵심 인물과 조직 기반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손화중은 무장 출신의 대표 지도자로서 백산대회 이후 무장과 고창을 중심으로 조직망을 정비하고 교단 세력을 재조직하였다.²⁴⁾ 이러한 활동으로 당시 조선 조정과 일본군은 무장 지역을 동학 세력의 핵심 거점이자 재기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진압을 시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조직망의 중심과 접촉한 인물들이 포함된 지역일수록 처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집단적 보복이 아니라 ‘조직적 와해’를 목표로 한 선택적 진압이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통계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지 농민의 자발적 봉기가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구조화된 조직적 운동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넷째, 통계 기반 분석은 한계를 내포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분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단이라는 공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참여 양상과 사회 구조를 실증적으로

23)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24)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 2017.

조망하려는 시도였다. 기존의 '전봉준 중심 영웅서사'²⁵⁾나 '혁명 담론 중심 서사'²⁶⁾에서 벗어나 동학군을 집합적이고 지역 기반의 주체로 재구성하려는 관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지평을 개인의 영웅적 행위나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 구성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체적인 역사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직업과 직책의 작성 기준의 차이로 인한 역할 반영의 한계, 연령 및 지역 정보의 결손, 여성 참여자 기록의 부재 등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보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결국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통계 분석의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통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기록의 성격과 작성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연구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주소지와 활동지 기반의 GIS 지리정보 분석, 유족 구술 및 교단 문서와의 교차 분석, 타지역 참여자 데이터와의 비교 연구, 참여자 생애사 추적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참여 양상의 복원이 가능하다. 특히, 통계 기반의 지역 편차 분석은 향후 지역 기억 연구, 기념시설의 방향 설정, 지역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실천적 과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통계 분석이 단순히 과거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역사 교육 및 기념 사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자발적 민중 봉기의 성격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조직망과 청장년 계층이 주도한 구조화된 저항 운동이었다. 이번 분석은 그러한 집합적 운동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통계적·사회사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하나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3.1운동 전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 등 주요 인물 중심의 영웅서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중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웅 서사는 이후 동학농민혁명 연구 초기부터 강력하게 형성되어 1980년대 이후 민중 사학의 성과와 함께 더욱 공고화된 측면이 있다.(홍동현,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변화와 확산」, 『동학학보』 55, 2020)

26)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전봉준 등 주요 인물 중심의 영웅 서사와 더불어 반봉건·반침략이라는 '혁명'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혁명' 담론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 공인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동학농민혁명에 내재된 복합적인 성격과 다층적인 의미를 단순화하고, 운동의 지역성이나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노출하였다.(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28, 2015)

V. 맺음말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통계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는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통계적,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여 혁명의 성격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조직적 성격을 가진 집합적 운동이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약 86.4%가 20~40대 청장년층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투 및 동원 역량 확보에 유리한 연령대가 핵심적인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며 근대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한다.

둘째, 봉기 이후 국가의 진압 과정에서 '선택적 진압'이라는 명확한 전략이 존재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전북 전체 평균 처형률이 약 23.1%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장 지역은 전북 전체 평균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61.9%라는 압도적인 참여자 수 대비 처형률을 보였다. 이는 무장 지역이 전봉준, 손화중 등 핵심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자 조직 기반이 강했던 곳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국가 권력이 혁명의 핵심 조직망과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차등적인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각종 사료에 등장하는 “수백, 수천 명의 사망자”라는 기술은 실제 전투 중 사망보다는 진압 이후의 처형에 집중된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894년 후반기 이후 국가의 강경 진압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기 인명 피해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케 한다.

셋째, 청장년층의 집중적인 참여와 그로 인한 높은 인명 피해 및 신상 변동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해당 참여자 가족의 광범위한 붕괴를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20~40대 청장년층이 혁명의 주역(86.4%)이었고, 그 중 처형, 전사, 사망, 살해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인원만 268명에 달한다. 피신, 처벌, 부상 등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해당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붕괴로 직결되었을 것이라는 유족들의 증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앞의 책, 2024 등.

및 기존 연구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을 본 통계 분석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수많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정량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은 동학농민군이 단지 민중의 자발적 결집이 아닌, 일정한 조직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근대적 성격의 사회운동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물론 본 분석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직

업과 직책의 괴리, 여성 참여자의 기록 누락, 지역 표기 방식의 혼란 등은 데이터 자체가 지닌 구조적 제약으로, 향후 보다 정밀한 교차 검증과 질적 자료의 병행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 단지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 현실과 기억의 층위를 밝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지역 문집, 유족 구술, 교단 문서 등의 질적 자료와 연계하여 개인사 복원, GIS 기반의 참여자 분포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의 조직적 연결 구조와 공간적 확산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주요 사례의 생애사 분석, 교육 자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학술적·사회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호구총수』 「양호우선선봉일기」, 『갑오군정실기』

2. 저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3. 홈페이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cdpr.go.kr/commit/>)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4. 논문

표영삼,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1999.

김양식, 「목천지역 동학농민군 활동과 세성산전투」, 『군사』 70, 2009.

강효숙, 「동학농민군 탄압 인물과 그 행적-미나미 고시로(南小西郎), 이두항, 조희연, 이도재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22, 2011.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2012.

임형진, 「내포지역의 동학 유입 경로와 조직화 과정」, 『동학학보』 29, 2013.

이병규,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흥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3, 201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2015.

배항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역사연구』 28, 2015.

김양식, 「조선·일본군의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연구」, 『군사』 103, 2017.

박상란, 「동학농민혁명담의 전승과 젠더」, 『동학학보』 42, 2017.

정성미,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의 지역적 기반과 활동」, 『동학학보』 45, 2017.

임형진, 「전라북도와 전주 일대의 동학 포덕과정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51, 2019.

홍동현, 「3.1운동 전후 동학농민전쟁 인식의 변화와 확산」, 『동학학보』 55, 2020.

이병규,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8, 2021.

임형진, 「태안지역의 동학포덕과 조직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동학학보』 60, 2021.

박소정, 「이름 없는 동학도를 위한 허스토리 - 구술사로 재구성한 여인오대의 동학사」, 『동학학보』 68, 2023.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 3, 2024.

토론문 2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에 대한 토론문

조 광 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발표문은 머리말에서 밝힌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통계적 구조와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없었던 이러한 시도는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참신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연구자들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문의 내용에 공감하며,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은 참여자로 수록된 전북 지역 참여자 868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역 참여자의 군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서 남원이 98명(11.3%)으로 가장 많으며 그 이유로 남원은 김개남의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핵심 거점이자 운봉 민보군과의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높은 참여자 수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봉기 이후 국가의 진압 과정에서 ‘선택적 진압’이라는 명확한 전략이 존재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전북 전체 평균 처형률이 약 23.1%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장 지역은 전북 전체 평균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61.9%라는 압도적인 참여자 수 대비 처형률을 보였다. 이는 무장 지역이 전봉준, 손화중 등 핵심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자 조직 기반이 강했던 곳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국가 권력이 혁명의 핵심 조직망과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차등적인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봉준의 핵심 거점이자 고부농민봉기와 황토현 전투가 있었던 고부군은 남원이나 태인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도내 10번째로 참여자 수가 적고(39) 처형률(0.0244) 또한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물론 통계상 결과라지만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결론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전북 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약 86.4%가 20~40대 청장년층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전투 및 동원 역량 확보에 유리한 연령대가 핵심적인 주체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며 근대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타 민중봉기나 각종 전쟁에서도 전투능력이 있는 청장년층 남성이 핵심적인 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년층 남성이 핵심적 주체로 나선 것만을 가지고 단순히 우발적인 민중 봉기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 “동학의 교세 확장과 조직화의 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신앙 전파에 그치지 않고, 마을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춘 인물들을 매개로 빠르게 조직화되었다.”라며 충청 지역 내포 태안 사례를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물론 더 적합한 사례라 판단되어 인용하였겠으나 전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이해하려면 교조신원운동기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금구집회 등을 통해 살펴보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발표자는 전북 지역 참여 양상의 특징과 시사점을 논하면서 내포·태안 사례를 인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중 직권등록으로 의결된 참여자 대부분(참여자 3,146명)은 2009년 11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¹⁾ 따라서 이 자료는 15년이 지난 것이기에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에 ID: GEC2, 김응칠(金應七)의 참여지역은 고부이며 신상변동은 수감, 참여내용은 “김응칠은 대포대장(大砲大將)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전라도 고부에 수감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54쪽²⁾에 따르면 김응칠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화포 대장으로 활약하다 1894년 12월 6일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되어 동년 12월 23일 형사(刑死)한 것으로 나옵니다.³⁾ 향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cdpr.go.kr/commit/>) 검색일 : 2025년 6월 17일.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증언록』,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정읍시, 2019.

3) 언양김씨족보(彦陽金氏族譜) 卷之 六. 언양김씨대동보수보위원회. 2001.

주제발표 3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희태 (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주제발표 3

1. 머리말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1) 무안지역

2) 함평지역

3) 영광지역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

4. 맺음말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김 희 태

(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통해서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 지역은 무안¹⁾, 함평²⁾, 영광³⁾이다.⁴⁾

1) 무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이화·배향섭·왕현종,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 호남 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혜안, 2006.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무안동학농민혁명사』, 2008.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 과업 결과 보고서』, 2013.

배향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정경운·임선주,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29,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5.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2015.

김봉곤,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62, 동학학회, 2022.

홍동현,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지역적 특징」, 『남도문화연구』53,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4.

2) 함평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소영,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고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71, 동학학회, 2024.

3) 영광 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사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광향토문화연구회, 『동학농민혁명 영광사료집』, 1995.

신영우,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26, 동학학회, 2012.

조재곤, 「동학농민전쟁과 전운영(轉運營)-송문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34, 역사학연구소, 2018.

권용수, 「1894년 호남 지역 동학농민군의 독자적 都所 설립」,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4) 본고는 앞에 예시한 자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참여자 등록 관련 자료(내부자료)를 참고하였다. 개설적인 내용은 다음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상식·홍영기·박맹수,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 지역을 택한 것은 이미 살펴본 다른 지역과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접근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장흥과 강진을 살펴본 바 있고⁵⁾ 나주도 정리 한 바 있다.⁶⁾ 이같은 권역별 정리와 분석을 통해서 최후까지 동학농민전쟁에 나섰던 현장과 기록과 인물을 살펴 보고자 함이다.⁷⁾ 먼저 동학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군은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3,913명이다. 이 가운데 직권등록은 3,347명(85.54%), 1차 등록은 496명(12.68%), 2차 등록은 70명(1.79%)이다. 지역명을 검색어로 하여 확인하여 가장 많은 수치로 들자면, 무안은 69분, 함평은 98분, 영광은 39분⁸⁾ 등 206분이다. 이 가운데 중복된 인물 제외하면 196분이고, 추가검색을 통해 확인한 분을 포함하면 201분이다. 201분 가운데 직권등록은 159분(79.10%), 1차 등록은 37분(23.27%), 2차 등록은 5분(0.03%)이다.

전체 참여자 등록 비율로 비교해 볼 때 2차 등록이 전국 평균 보다 10%이상 웃도는 것은 무안지역 21분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나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열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⁹⁾ 2차등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자료 확인과 후손들

-
- 5) 김희태, 「유족 증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지역 동학농민군의 순국」,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63~121쪽.
 - 6)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 총서 2집-, 나주시, 2022., 121~150쪽.
 -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분은 3,913명인데 전라도로 검색하면 1,805명으로 46%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전남의 동학농민군활동은, 전라남도에서 조사할 때 서·북부 지역(영광·함평·장성·무안·진도), 중부지역(광주·나주·화순), 중북부 지역(담양·곡성·구례), 남부지역(장흥·강진·보성·영암·해남), 동부지역(순천·광양)으로 구분한 바 있다.(『전남 동학농민혁명사』, 1996)
 - 8) ‘영광’ 검색어로 41명이 검색되는데 2인은 지명이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 9) 이같은 열성과 지혜가 모여져 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최종보고-, 2025.01.10.(유인물)) 이와 관련하여 정리중인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자료』(가제)(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25)를 본고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 10) “무안 접괴 배정규(裴正圭)와 박순서(朴順西)는 12월 8일에 잡을 때 쏘아 죽었다. 동당(同黨) 서여칠(徐汝七) 등 6명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했다. 적당(賊黨) 18명을 9일에 잡았는데, 그 중에 거괴 김응문(金應文)·김자문(金子文)·정여삼(鄭汝三)·김여옥(金汝玉)·장용진(張用辰)·조덕근(趙德根)은 신문을 겪은 후에 죽었고, 동당(同黨) 12명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하였음.”, “망운목(望雲牧) 적괴(賊魁) 이익선(李益善) 등 4명은 진영(鎭營)에 압송하여 넘기고 엄중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게 하였음.”(『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爰及所獲汁物并錄成冊』)

과의 연관성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함평지역에서 기념사업회 설립, 함평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1) 무안지역

무안지역에 ‘동학’이 언제부터 전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인근 나주가 1885년, 장흥과 강진이 1891년과 1892년에 동학이 전파된 점으로 보아 1890년을 전후하여 무안에도 동학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92년 무안의 김의환·이병경, 청계의 조병연·이병대·고군제·함기연, 몽탄면 한용준, 1893년에는 청계면 송두옥·송두옥·한택울·송군병·박인화, 무안을 정인섭 등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위해 상경한 대표 40인 가운데 무안의 배규찬이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배규찬은 무안의 대접주인 배상옥(배규인)의 동생이다. 1893년 3월에 있던 보은집회는 당시 무안군에서는 80여 명의 동학교도가 참여하고 있다.

1894년 3월 25일 전봉준이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한 백산대회에 지도자급으로 배상옥,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윤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 김응문 등 15명이 다수의 사람을 이끌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학사』 4월 18일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 일부가 무안을 넘어가서 하루를 머물다가 나주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2,000명 ~ 14,000여 명에 달했을 정도로 세가 결집되었다.

무안지역에서는 배상옥의 근거지인 청계면 청천리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비를 마련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훈련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문 일가의 동학농민군도 배상옥과 연계하여 군비 제공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해제면 석용리 석산마을 민대들에서 최씨 삼형제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들이 훈련하였고, 이후 고막포 전투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학샘⁹⁾이 전하고 있다.

2차 봉기 시기에 전봉준이 삼례에서 재봉기를 선언했을 때, 무안 배상옥이 2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호응했으나, 배상옥 부대는 후방 방어를 위해 무안으로 되돌아왔다. 나주성 공략을 위해 배상옥(배규인)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1월 17일 무렵 고막포로 모여들어, 11월 18일 나주 수성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헤아릴수 없는 동학농민군이 고막포에 빠져 순국하였다.

무안에 진출한 순무영선봉진 부대(이규태)에 피체된 동학농민혁명군은 효수나 총살, 화형 등 가혹한 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다. 12월 8일 접주 배정규와 박순서가 피체되어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12월 9일 김응문을 비롯하여 18명이 체포당하였는데 김응문·김자문·정여삼·김여정·장용진·조덕근 등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였고, 12월 12일 김효문(김응문 동생)·배규찬·오덕민·조광오·김문일·박경지·박기운·양대숙·서여칠·박기운 등도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여 순국하였다.¹⁰⁾ 무안을 교촌리 송림마을

‘차밭머리’, 무안읍성 남문 밖 불무제 등이 처형장소였다고 한다.

나주김씨 김응문(김창구), 김효문(김영구), 김자문(김덕구) 3형제와 김응문의 큰아들 김여정(김우신) 등은 효수형을 당하여 순국한 것으로 전한다. 2022년 김응문, 김자문 두 형제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학 참여자와 유족이 확인된 동학 농민혁명 최초의 신원이 확인된 순국자로 기록되게 되었다.

배상옥은 해남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12월 24일 해남 유생 윤규룡이 이끄는 민보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군 보병대위 마스끼 세이보(松木正保)에게 총살당해 순국하였다.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군대 어데 두고 쑥국대 밑에 잠드느뇨’라는 애닦은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¹¹⁾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참여자검색(이하 ‘누리집 참여자’)¹²⁾에서 검색어를 ‘무안’으로 하여 검색하면 전체-무안 75분[건], 참여내용-무안 69분, 참여지역-무안 68분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검색/통계[재단 참여자 등록 관련 자료]에서 참여자(이하 ‘재단 참여자’)로 검색하면, 이름-무안은 68분, 본적-무안은 26분, 참여지역-무안은 59분, 참여내용-무안은 68분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분석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참여자의 본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재단 참여자’에서 무안 본적인 분은 26분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10대는 1분(오인점, 19세), 20대는 12분, 30대가 5분, 40대가 7분, 50대가 1분(최장현, 57세)이다. 20대가 12분으로 가장 많은데 절반에 가까운 46.15%이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농업이 22분,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분이 4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의 참여가 압도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그런데 다시 살펴 볼 것이 있다. 조선시대 말기 당시 사회는 ‘농본(農本)’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농사는 기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11) 이상식·홍영기·박맹수, 『전남 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및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자료』(가제), 2025. 발췌 인용함.

12) <https://www.cdpr.go.kr>. 누리집에서는 통계자료가 ‘분’과 ‘건’, 두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으로 표기할 것이다.

13) 김기봉(金基鳳, 1868~1894.1212) : 무안지역 대접주 배상옥, 김응문, 김효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관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하였다. 김기봉의 이름이 「호적」(金基鳳),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金文日), 『羅州金氏大同世譜(用奉, 字文一)』에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先鋒邑了發關及甘結과 족보에서 자가 한자음이 일치하고, 족보에 기록된 사망일이 '甲午十二月二十日임이 확인되며, 先鋒陣各邑了發關甘結에서 함께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효문이 김문일과 같은 나주김씨로 같은 마을에 살았음이 확인됨을 근거로 金基鳳 金文日 金文一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 개별 행적은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

다. 예를 들면 약국을 경영했다든지, 유학자로서 서당 훈장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무안의 동학농민혁명군 가운데에도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고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올라있어 유학자라 할 수 있는데, 직업은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김덕구, 김여정, 박인화, 배상옥), 4월이 3명(김기봉, 김영문, 김응문), 11월이 2명(김우백, 박치상)이고, 17명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분(배병헌), 접주 3분(박기옥, 박명하, 배상옥)이다. 배병헌은 31세이고, 박명하는 28세, 박기옥은 47세. 배상옥은 32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고창 1분(박인화), 나주 1분(김덕구), 함평 1분(장경광)이고, 23분은 무안이다. 1차 참여는 나주가 6분으로 박인화는 1차 고창, 2차 무안으로 확인되며, 5분은 1차 무안, 2차 나주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분이 13분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분은 3분(최선현, 최장현, 최기현)이다. 총상 등 부상은 2분(박인화, 박치상), 피체되어 고문후 유증으로 순국한 분은 1분(백용선)이다. 피신은 3분(박명하, 오인겸, 장재명)이다.

〈표 1〉 무안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구분
							1	2		
1	김기봉 金基鳳 ¹³⁾	1868~1894	1894.04	27		-	무안		처형 순국	1차
2	김덕구 金德九	1868~1894	1894.03	27		농업	나주	무안	처형 순국	1차
3	김여정 金汝正	1867~1894	1894.03	2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4	김영구 金永九	1851~1894	1894.04	45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5	김우백 金禹栢	1875~1904	1894.11	20		농업	무안		-	1차
6	김응문 金應文	1849~1894	1894.04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7	박규상 朴奎相	1849~1894	1894.00	46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8	박기옥 朴淇玉	1848~1894	1894.00	47	접주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박명하 朴炳夏	1867~1921	1894.00	28	접주	-	무안		피신	1차
10	박인화 朴仁和	1847~1926	1894.03	48		농업	고창	나주	총상	1차
11	박치상 朴致相	1869~1949	1894.11	26		농업	무안	나주	부상	2차
12	배병만 裵炳慢	1872~1894	1894.00	2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3	배병헌 裵炳顯	1864~1894	1894.00	31	대접주	-	무안		처형 순국	1차
14	배병환 裵炳煥	1862~1894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5	배상옥 裵相玉	1863~1894	1894.03	32	접주	농업	무안	나주	-	1차
16	배용보 裵用甫	1871~1944	1894.00	24		농업	무안		-	1차
17	배정기 裵禎基	1862~1941	1894.00	33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18	백용선 白用善	1869~1895	1894.00	26		농업	무안		병사 순국	1차
19	오인겸 吳仁兼	1876~1948	1894.00	19		농업	무안		피신	2차
20	이병화 李炳化	1866~1894	1894.00	29		-	무안		처형 순국	2차
21	장경광 張京光	1868~1922	1894.00	27		농업	함평		-	1차
22	장재명 張在明	1862~1916	1894.00	33		농업	무안		피신	2차
23	최기현 崔琪鉉	1866~1894	1894.00	29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4	최선현 崔善鉉	1852~1894	1894.00	43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5	최성모 崔聖模	1848~1894	1894.00	47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26	최장현 崔璋鉉	1838~1894	1894.00	57		농업	무안	나주	전사 순국	1차

2) 함평지역

함평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로 1862년의 함평농민항쟁을 들 수 있다.¹⁴⁾ 이 농민항쟁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일부는 달성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좌절하고 말았다. 이같은 사회사정이 있던 함평에 동학이 언제 전파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⁵⁾ 다만, 무장의 손화중파가 호남의 대표적인 동학 조직인 것으로 보아 인근 함평에도 동학이 일찍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평에는 유명한 동학접주 이화진이 활약했던 본거지이며 이화진의 고숙이고 명망있던 장옥삼을 비롯한 장경삼, 장공삼 삼형제가 동학농민혁명군으로 활약한 것을 보면 함평의 동학활동은 세력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함평읍 출신으로 무과에 합격하여 고군산첨사(1890.10~1891.07)를 지냈던 이태형(李泰亨, 李啓均, 자 相三, 1841~1894)이나 해보면 출신으로 학식이 있었던 정평오는 함평이씨와 진주정씨라는 점도 활발한 함평 동학농민세력과 연계될 것 같다.

함평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누리집 참여자’에서 검색어를 ‘함평’으로 하여 검색하면 전체-함평 98분, 참여내용-함평 90분, 참여지역-함평 93분이다. ‘재단 참여자’에서 검색하면, 이름-함평은 91분, 본적-함평은 9분, 참여지역-함평은 95분, 참여내용-함평은 91분이다.

함평 본적이 확인된 분은 9분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보인다. 30대는 2분(임경윤, 전장하), 40대는 5분으로 가장 많다. 50대가 2분(장경삼, 이태형)이다. 함평 본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함평 출신 정동화(鄭東華, 1848~1913)는 나주 나동환의 배우자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최초의 여성 동학 참여자이다. 부부가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참여 당시 직업은 함평 본적 9분 모두가 농업이다. 무안의 경우처럼 유학자나 복수의 직업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4월이 2명(정평오, 임경윤), 12월이 3명(장경삼 장공삼, 장옥삼)이다. 4명(이태형, 전장하, 전창섭, 장삼여)은 1894년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참여 당시 직책은 대접주 1분(정평오), 군포관 1분(전장하)이다. 정평오는 48세이고, 전장하는 35세였다. 군포관은 군량이나 군수물을 담당하는 직임으로 보인다. 대접주 정평오는 호남초토영 문서에서 ‘거괴(巨魁)’로 표기되고 있다. 다음 기록이다.

14) 신영호, 「1862년 함평 농민항쟁에 대한 재검토 : 대립세력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5

15) 이경인이 1892년 경에 「동학도개국음모건」에 이름이 올라 있어 동학교도이거나 동학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71, 2024)

“거괴 윤정보(尹正甫)·장경삼(張京三)·박춘서(朴春西)·정평오(鄭平五)·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김경문(金京文)·박경중(朴京仲)은 [1894년 갑오 12월] 11일에 잡을 때에 쏘아 죽였다.”¹⁶⁾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함평이 가장 많은 6분(전창섭, 이태형, 장공삼, 장옥삼, 정평오, 임경윤), 나주(전장하), 무안(정삼여), 영광(정경삼)이 각각 1분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분이 6분(정삼여, 장경삼, 장공삼, 정평오, 장옥삼, 이태형)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장 전투 중 전사하여 순국한 분은 2분(전창섭, 전장하)이다. 1분(임경윤)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평오와 장경삼은 1894년 12월 11일 잡혀서 포살[총살]을 당했다.

〈표 2〉 함평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 구분
							1	2		
1	이태형 李泰亨	1841~1894	1894.	5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2	임경윤 林京允	1863~1923	1894.04	32		농업	함평	영광	-	1차
3	장경삼 張京三	1842~1894	1894.12	53		농업	영광	무안	처형 순국	1차
4	장공삼 張公三	1854~1895	1894.12	41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5	장옥삼 張玉三	1851~1895	1894.12	4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6	전장하 全章夏	1860~1894	1894.	35	군포관	농업	나주		전사 순국	1차
7	전창섭 全昌燮	1854~1894	1894.	41		농업	함평	나주	전사 순국	1차
8	정삼여 鄭三汝	1847~1894	1894.	4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정평오 鄭平五	1847~1921	1894.04	48	대접주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女	정동화 鄭東華	1848~1913	1895	46			나주	함평	피체 고문	2차

3) 영광지역

영광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누리집 참여자’에서 검색어를 ‘영광’으로 하여 검색하면 전체-영광은 41분, 참여내용-영광은 37분, 참여지역-영광은 36분이다. ‘재단 참여자’에서 검색하면, 이름-영광은 37분, 본적-영광은 7분, 참여지역-영광은 36분, 참여내용-영광은 37분이다.

영광 본적이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7분이다. 참여 당시 나이를 보면 60대까지이다. 10대는

16) “巨魁 尹正甫 張京三 朴春西 鄭平五 金時煥 尹贊辰 金京文 朴京仲 十一日 捉得 臨捉砲殺”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奎17189))

1분(김용경, 15세), 20대는 4분(최평집, 장호진, 최시철, 김재묵), 30대는 1분(이관현), 60대가 1분(최재신, 66세)이다. 비율로 보면 20대가 57.1%에 이른다.

참여 당시 직업을 보면, 7분 가운데 6분이 농업이다.

참여시기로 보면, 1894년 3월이 4명(최재신, 최평집, 김재묵, 최시철), 1894년 4월이 2명(이관현, 장호진)이다.

참여 당시 직책은 접주가 1분(장호진)인데 24세였다.

참여 지역은 1차 참여가 영광 3분(장호진, 최재신, 이관현), 고창 2분(최시철, 김재묵), 장성 1분(최평집), 전주 1분(김용경)이다.

참여자 신상에 대해서는, 처형당해 순국한 분이 2분(최시철, 최재신), 피체 1분(김재묵), 피신 1분(김용경), 행방불명 1분(이관현) 등이다.

〈표 3〉 영광 본적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연번	동학농민군	재세시기	참여월	당시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신상변동	등록 구분
							1	2		
1	이태형 李泰亨	1841~1894	1894.	5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2	임경윤 林京允	1863~1923	1894.04	32		농업	함평	영광	-	1차
3	장경삼 張京三	1842~1894	1894.12	53		농업	영광	무안	처형 순국	1차
4	장공삼 張公三	1854~1895	1894.12	41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5	장옥삼 張玉三	1851~1895	1894.12	44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6	전장하 全章夏	1860~1894	1894.	35	군포관	농업	나주		전사 순국	1차
7	전창섭 全昌燮	1854~1894	1894.	41		농업	함평	나주	전사 순국	1차
8	정삼여 鄭三汝	1847~1894	1894.	48		농업	무안		처형 순국	1차
9	정평오 鄭平五	1847~1921	1894.04	48	대접주	농업	함평		처형 순국	1차
*女	정동화 鄭東華	1848~1913	1895	46			나주	함평	피체 고문	2차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

1) 농민과 유학자/유해와 국가유산 -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

동학농민혁명은 그 용어가 지칭하듯이 농민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앞서 무안, 함평, 영광의 등록 참여자의 경우에서 살펴 보았듯이 참여자 대부분이 직업을 농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과 유학자는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무안의 나주김씨 김응문의 경우에는 무안 향교 재장을 역임하고 노사 기정진의 문인록에 들어 있다. 이를 농민으로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유해가 확인되어 국가유산 등록을 추진한 바 있다.¹⁷⁾ 이들 자료를 정리하면서 동학농민참여자의 성격을 살펴 보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안 출신의 노사 기정진의 문인은 모두 30명인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4명이 나주김씨이다. 이러한 정신은 김응문(창구) 일가가 1890년대 무안향교의 장의(掌議)와 재장(齋長)을 맡아 무안향교를 이끌어가면서 1894년 부패한 봉건정부를 일소하고,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사상적 원천이 되었다. 향교에는 재장(교장, 도유사), 장의, 색장을 두어 향교를 운영한다. 재장은 향교의 책임자, 장의는 향교의 각종 회의와 의례를 주관하는 직임이다.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았던 김창구(응문)와 김영구(효문) 역시 노사 기정진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⁸⁾

나주김씨 김창구(응문) 일가의 김광수, 김창구(응문), 김우신(응문의 아들)이 위정척사운동을 일으킨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며, 김창구(응문)와 동생 김영구(효문)가 무안향교의 직임을 맡고 있었다.

1932년 간행된 『무안향교지』에 향교의 직임에 대해서 연도, 직책, 성명, 자(字), 호(號), 본관, 현조(顯祖)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김창구(응문)는 1887년(고종 24), 김영구(효문)는 1889년(고종 26) 장의(掌議)를 지냈다. 김영구(효문)는 다시 1894년에는 재장(齋長)을 지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김창구(응문) 일가는 1880년대에 향교의 장의를 맡았고, 1894년에는 향교의 재장을 맡았을 정도로 무안 양반 사회에서 중망이 높았던 것이다.

〈표 4〉 김응문 일가 무안향교의 직임(『무안향교지』, 1932)

연대	직책	성명	자, 본관	호, 선대	전거
丁亥(1887년) 秋	장의(掌議)	金昌九	字 應文 羅州人	號 茶史 鷲岩適後	『무안향교지』 (1932年刊)
己丑(1889년) 春	장의(掌議)	金永九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亭 鷲岩適後	『무안향교지』 (1932年刊)
甲午(1894년) 春	재장(齋長)	金永九	字 孝文 羅州人	號 孝亭 鷲岩適後	『무안향교지』 (1932年刊)

〈표 5〉 김응문 일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현황

참여자			유족수	비고
등록명	제적부	족보(字)		
김응문(金應文)	창구	응문	김성황 등 54명	
김영구(金永九)	영구	효문	김병기 등 14명	김응문의 동생
김덕구(金德九)	덕구	자문	김영재 등 61명	김응문의 동생
김여정(金汝正)	우신	여정	김성운 등 79명	김응문의 아들

17)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 작성에 참여한바 있어 이 자료를 인용한다.(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

18)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1960년 간행)



노사선생연원록(상하, 담대헌) 표지

蘆沙先生淵源錄目錄

卷之一	墓碣銘	二六	羅繼嚴先生門人
年譜	卷之三	柳敬周先生門人	
納涼私議	先生門人編	金聖訓先生門人	
三政策	卷之四	奇龍山弘道門人	
丙寅錄	李南坡僑門人	李岐山升德門人	
再疏	南浦巖啓濟門人	柳紹庭寅門人	
聖筆	安羅上車慶門人	曹三石繼德門人	
關祭文	金福應 遺門人	曹東錫致坤門人	
卷之二	趙月阜性家門人	金白琴泰淳門人	
行狀	閔鳳里義容門人	張竹圃監漢門人	
神道碑銘	李石田最善門人	鄭月坡時林門人	

노사선생연원록 목록

蘆沙先生淵源錄卷之三
先生門人編

吳相鳳字台至號止樂辛酉生成陽人雲潭世熊后壽通政居雲峯
魏成祚字聖憲號槐山辛酉生長輿人縣監大成后居昌平

노사선생문인록
선생문인편 첫부분

李鎮萬字仁和號石南己酉生永川人孝友堂宗儉后居光州
金昌九字應文號茶史己酉生羅州人鷲庵適后居務安
劉秉榮字君範號思軒己酉生江陵人文僖公敞后居興陽

김창구(응문)
노사선생연원록권3 18

金亨九字子七號星沙丁未生羅州人鷲巖適后居務安
金福泰字聖重號龜湖丁未生金海人錄事炤后居綾州
崔寅鉉字致瑞號錦湖丁未生全州人晚六澆后居咸平

김형구(자칠)
노사선생연원록권3 17

金東默字仁碩號箕史辛亥生金海人文愍公駟孫后居羅州
金永九字孝文號淵史辛亥生羅州人支巖躍華后都事居務安
金基洙字道源號野隱辛亥生商山人陽山佑生后居羅州

김영구(효문)
노사선생연원록권3 18

己丑春

掌議柳復基字良七 號雪坡 文

掌議金永九字孝文 號孝亭 羅

色掌林炳奎字魯瞻 號鶴峰 善

掌議金震浩字敬集 號羅州

掌議吳錫祐字國希 號思順 人

色掌金皞運字權弼 號明庵 尤

기축(1889) 춘 김영구(효문)

丁亥秋

掌議金昌九字應文 號茶史 羅

掌議徐詳基字永南 號月汀 利

色掌朴淇鈺字善進 號壯趾 堂務

掌議

掌議丁奎儁字漢羅 號公彥 號花

色掌

정해(1887)춘 김창구(응문)

乙丑春

高宗

掌議朴玟采字聖宅 號益安 人

鄉校

掌議

養士齋

장의안

甲午

癸巳

高光五字應三 號菊隱 長興

李儒馨字取賢 號宗義 咸平

金永九字孝文 號孝亭 羅

趙桂鉉字振白 號永貽 堂金

朴淇聲字重益 號白堂 務安

갑오(1894) 김영구(효문)

甲子

齋長案

徐浩永字天淵 號日省 齊利

崔翼模字士裕 號水原 人

재장안

務安鄉校誌 二

무안향교지 (1932)



동학혁명투사현彰비(1996년)

이 碑에 景況코자하든 分들은 이 마을출신으로 暴政을 除去하여 도란에서 허덕이든 民衆을 구하고 日本등 外세를 물리쳐 民族自主 平等社會를 建樹하려는 除暴救民과 千洋斥倭의 功績을 擧고 일어난 東學革命에 參與하여 大韓帝國을 樹立코자 奮發한 東學革命 先賢과 殉難한 日本軍과 싸우다가 殉難하신 義士와 日本침략에 抗거하되던 義勇한 先賢을 景況코자 高貴한 功績을 擧고 功勳을 後에 記하여 永傳코자 景況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이 碑를 세운다.

金應文 (1849-1894) 本貫은 羅州 別號는 茶史인데 仁川東學에 入門하여 이 地方을 주로서 東學革命時 白山을 遊歷한뒤에서 功을 세우고 羅州入城을 위한 高陽원전투(1894年11月16-17)에서 殉難하고 日軍에 殺害되어 1894年12月8日 무안현장에서 殉難했는데 그의 아들 高信도 殉難하여 殉難한 義士와 同日 殉難한 義士 孫孫 載福

金永九 (1851-1894) 本貫은 羅州 別號는 禮史인데 羅州全通文의 功績으로 東學혁명군에 加入하여 高陽원전투시에 日軍에 殺害되어 1894年12月12日 무안현장에서 殉難한 孫孫 南榮

金德九 (1868-1894) 本貫은 羅州 別號는 農圃인데 孫孫金應文의 아우로서 東學혁명군에 加入하여 高陽원전투시에 日本軍에 殺害되어 1894年12月8日 무안현장에서 殉難한 孫孫 孫吉衡

金孝九 本貫은 羅州 別號는 東學혁명군으로 孫孫金永九의 功績에서 加入하여 高陽원전투에서 殉難한 義士로 景況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이 碑를 세운다.

金成權 本貫은 羅州 別號는 東學혁명군으로 孫孫金永九의 功績에서 加入하여 高陽원전투시에 日軍에 殺害되어 現狀에서 景況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이 碑를 세운다.

金用信 (1896-?) 本貫은 羅州 別號는 抗日의 義勇함으로 1909년에 孫孫을 이끄고 日軍과 抗爭하여 日本헌병들을 殺害하고 日軍軍용지들을 燒燬하여 이 碑를 세웠고 이 碑에 刻한 義士의 功績을 永傳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永傳코자 이 碑를 세운다.

1996年9月 日 차의마을 주민공동 세움

김응문 일가 행적 - 1996년 9월 차의 주민 공동 세움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응문 김효문 김자문 김여정 현창비(2022년)

*김응문 대접주 유해와 국가유산

무안 동학농민군 대접주 김응문 유해(金應文 遺骸)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혁명 동안 고막포 전투 등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하여 순국한 역사 인물의 인골이다. 당시 호남초토영(초토사 나주목사 겸임)에서 중앙에 보고한 공문서(규장각 소장)에서 인명과 체포 연월, 치폐(致斃, 고문으로 죽음)가 확인된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2008년 참여자로 등록되었고 유족(증손자 김성황 등 54명)도 등록되었다. 2019년에 동학농민군 지도자 묘역 및 추모공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2년 4월 28일 김응문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과학적 분석(유전자 검사)을 통해서 직계 후손이 확인된 동학농민군 인골로서는 최초 유일 사례로서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기념이 되는 가치가 있고,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등록된 참여자(2025년 4월 15일 기준, 3,9095명)로 한정하더라도 직계 유족이 유전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귀 사례(0.00025%)로서 상징적 가치가 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23.5.24.)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혁명사적 관점, 척양척왜, 위정척사, 동학혁명 정신 고양 및 계승, 지역사회 평생교육 관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탁월하다.

2) 참전과 보호 -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전사 순국하거나 포살당해 순국하기도 하고 교수형이나 화형 당하여 순국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하거나 피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록 기준에는 물자를 지원하거나 보호를 해 준 경우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 조항에

따른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보호’와 관련하여 등록된 정동화의 사례를 살펴 본다. 여성 동학 참여자로서도 의미가 크다.

여성 동학 참여자로 최초로 등록된 정동화(鄭東華, 1848~1913)는 함평 출신이지만 함평 본적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나주의 나동환과 혼인하였기에 나주 본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려는 것은 함평 출신이기도 하지만, 등록 사유가 함평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살펴 본다. 나동환(1849~1937)은 동학 교장이자 접주로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처가인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다라실로 피신하였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관군이 들이닥쳤으나, 정동화는 남편과 아들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관군들에게 잡혀 압슬형(壓膝刑)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남편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였고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1913년에 사망하였다.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의적비와 효열비가 세워졌다. 나동환은 2024년 11월 11일 참여자로 등록되었다.¹⁹⁾

나동환 참여자 등록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나동환의 부인 진주정씨 정동화의 경우도 동학농민혁명군을 보호하는데 있어 고문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내용이 <나주나공동환의적비(羅州羅公東煥義蹟碑)>(1972)와 <효열부진주정씨행적비(孝烈婦晉州鄭氏行蹟碑)>(1974)²⁰⁾ 등에 기록이 있고 구전 내용이 부합됨으로 별도 절차를 통하여 참여자 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진주정씨 비문> 내용을 간추려 본다.

“일군(日軍)과 관군(官軍)의 수색을 피하여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처가에 은신하며 동지들과 은밀히 재기를 모색하던 중 수색대들은 공을 체포하려고 나주 택촌(澤村) 본가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공이 있지 않으므로 그 집에 방화하고 다시 함평 해보에 가 공의 은신처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역시 공을 발견치 못하고 그 부인 정씨(鄭氏)를 잔인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나 죽기를 작정하고 입을 다문 채 저항하면서 자기 생명을 죽여 남편을 구출하였으니” <진주정씨 비문> (발췌)

19) 나천수, 「다시 쓰는 나주 동학농민운동 이야기 -나주 동학 접주 羅東煥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94집, 2022. 나천수회장은 나동환과 정동화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20) “일군(日軍)과 관군(官軍)의 수색을 피하여 함평군 해보면 연암리 처가에 은신하며 동지들과 은밀히 재기를 모색하던 중 수색대들은 공을 체포하려고 나주 택촌(澤村) 본가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공이 있지 않으므로 그 집에 방화하고 다시 함평 해보에 가 공의 은신처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역시 공을 발견치 못하고 그 부인 정씨(鄭氏)를 잔인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나 죽기를 작정하고 입을 다문 채 저항하면서 자기 생명을 죽여 남편을 구출하였으니” <진주정씨 비문> (발췌)

이런 제안이 계기가 되었는지, 참여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와 심의를 통하여 2025년 4월 10일 등록이 결정되었다. 정동화의 참여자 등록은, 여성 동학인으로서 최초라는 점과 동학농민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을 보호하는데 참여한 사례로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¹⁾

정동화의 사례처럼 보호와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인명이 확인되지 않고 ‘직임’이나 ‘신분’이라 할 ‘조이[召史, 소사]’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인명이 기록되지 않은채 전해 오는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인명을, 1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확인하기란 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다. 따라서 ‘직임’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그대로 직권등록을 했으면 한다. 이미 등록된 참여자의 경우에도 ‘직임’ 또는 ‘별칭’일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직권 등록된 사례를 참고한다면, 여성 동학의 경우에도 ‘성(姓)+조이[召史, 소사]’ 표기 그대로 직권등록을 먼저 했으면 한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의 ‘특별한 목적’이라 생각하고 싶다. ‘인명’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소극적 논리보다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표기대로 등록을 먼저 하고 확인할 자료를 찾아 가자는 것이다. ‘법령’도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이[召史]’는 그 호칭을 그대로 쓴다는 오가작통법의 규칙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줄에는 모인(某人)이라고 적는다.[조관(朝官)은 관호(官號)를 쓰고, 사인(士人)은 사인이라고 쓰며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農民), 공민(工民), 상민(商民)이라고 쓰고, 이역(吏役)은 이역이라고 쓴다. 재인(才人)과 피공(皮工)은 각기 그 명호대로 쓴다. 동몽(童蒙)과 조이[召史]는 각기 그 호칭을 쓴다.] 모성(某姓) 모명(某名)이라고 적는다.[조이[召史]는 모관(某貫) 모씨(某氏)라고 적는다.]”²²⁾

별칭이나 직임으로 보이는 인명을 가진 이들을 등록한 사례는 장강다구(張江多九)와 강감역(姜監役) 사례가 있다.

○ 장강다구(張江多九) : 사료에 나오는 인명이지만, 지역에서 흔히 쓰던 ‘깡다구-강다구’의 별칭이 올랐을 수도 있다. 본명이나 족보 등의 인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직권등록만 된 상태이다.

21) 나동환, 정동화 조사 자료 등 참조.

22)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후(後)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규칙[五家統規]

23)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爰及將領姓名並錄成冊』(1895:「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복심의위원회 번역자료, 2008, 10~11쪽)

“(1895년) 1월 일 전라도 각읍에서 노획한 동도의 수효와 장령의 성명을 적은 성 책 …… 능주(綾州) 비괴(匪魁) 조종춘(趙宗楡)은 을미년(乙未年, 1895년) 1월 11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는데, 순포장(巡砲將) 최주화(崔周華) 등이 잡았다. …… 장강다구(張江多九)는 전 우후(前虞候) 박종규(朴鐘奎)가, 서민 수(徐民洙)는 방수장(防守將) 윤자경(尹滋慶)이 체포하였고”²³⁾

○ 강감역(姜監役) : 강감역은 1894년 8월 19일 전라도 남원 부동(釜洞)에서 유학규와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남원부를 공격한 문헌이 있다. 그런데 감역은 인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표기 또는 호칭을 그대로 사료에 표기하였고, 이를 근거로 참여자로 직권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8월 19일 본부(本府, 남원부) 부동(釜洞)의 동학적도 강감역(姜監役), 유학규(劉學圭)가 다른 고장의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본부에 와서 병장기와 활, 총, 화약을 도둑질하여 빼앗아서 말에 싣고 부동으로 갔다. 망가진 활과 남겨진 철조각은 모두 길거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²⁴⁾

‘조이[召史, 소사]’로 표기된 몇 사례를 예시해 본다.

“[5월 25일] 정읍현에서 낸 보고에, 이번 5월 17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 무렵에 동도 수백 명이 각각 창과 총을 가지고 태인현의 경계에 와서 정읍 북면 한교(漢橋)를 지났으며, 점(店)에 있는 노파인 양조이(梁召史)를 묶어서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²⁵⁾

“박기오(朴己五)·이돌몽(李突夢)·김수인(金守仁)·한명언(韓明彦)·김내삼(金乃三)·두운장(杜允長)·정익서(鄭益西)·조기회(趙己會)·한공서(韓公西)·허내원(許乃元)의 처 이조이(李召史)·정국찬(鄭國贊)의 처 김조이(金召史)·김영조(金永兆)·이보일(李甫一) 등은 처음 사교(邪教)에 물들었다가 곧 귀화하였다고 합니다. 혹 동도로서 남에게 지목을 받았으나 실제로 범한 바가 없다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13사람은 문초할 때 받은 실토하고 받은 숨겨 급하게 처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진영의 옥에 가두어 다시 엄하게 조사한 뒤 참작하여 처단할 생각입니다.”²⁶⁾

24) 『嶺上日記』(김재흥, 189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번역자료』, 2008, 17쪽)

25) 『수록』 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奇]

26) 『兩湖招討臚錄』 光緒二十年四月十二日 親軍壯衛營正領官兩湖招討使臣洪啓薰謹啓爲相考事)

“접귀(接魁) 전유창(全有昌)의 처(妻) 이소사(李召史, 조이)와 박□□(朴□□)는 해당 읍에 가 두고 그 아버지와 남편이 나타나도록 독촉함.”²⁷⁾

“엄조이[召史]는 동학의 통령[東學通靈]을 일컬으며 관가에 자수하였습니다.”²⁸⁾ “엄소사(嚴召史)는 ‘동학통령(東學通靈)’이라 칭하는데 공정(公庭)에서 자수하였습니다.”²⁹⁾

“東軍に女丈夫あり 東徒中に一美人あり 芳紀二十二 容色城を傾くの美色ありと云ふ 名を李召史と云ふ 久しく東徒の間に在りて奔走し 馬上に跨り 長興府を焼きたるときの如きは 彼れ馬上にて指揮し 居れりと云ふ 彼れて夢に天神現はれ 古錠を興へたりと 東徒皆な尊むで 神女となせり 然るに 長興の一敗 韓兵に捕はれ 今や 同地の鐵窓中に在りと云ふ 蓋した 去年の神童の如きものか”³⁰⁾

3) 교도와 밀고 - 함평 이고창 사례

4. 맺음말

27)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28)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膽錄)』(1895년 1월 초 10일)

29) 『선봉진정보첩』(광주목사 첩보)

30) <國民新聞(국민신문), 1895년 02월 09일

참고문헌

- 『전라도각읍소척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규장각 소장, 奎 17189)
- 『전라도각읍소척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及將領姓名竝錄成冊)』(규장각 소장, 奎 17190)
-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증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
-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이병수(李炳壽))
- 『나주김씨대동보(羅州金氏大同譜)』(2001.)
-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담대헌(澹對軒), 1960.)
- 『동학사(東學史)』오지영(吳知泳)(草稿本)(국사편찬위원회DB)
- 『무안향교지』(무안향교, 1932.)
-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甘結務安縣 十二日)(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한국사료총서10-』, 1959.
- 『천도교서(天道敎書)』(천도교중앙총부(天道敎中央總部), 1921.)
- 김정호 편저,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1988.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주관기관), (주)디엔에이링크·인류진화연구소(검사기관), 『김응문 일가 유골 조사 및 유전자검사 용역-인류학 및 유전자검사 보고서』, 2022. 10.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2022.11.03.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무안승달문예회관, 2015.11.13.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회』, 2017.11.28.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무안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무안동학농민혁명연구 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회』, 2016.12.16.
- 무안군·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무안동학농민혁명 역사성 고증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2013.
- 무안군사편찬위원회편, 『무안군사』, 1994.
-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무안동학농민혁명사』, 2008.
-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 이이화·배향섭·왕현종,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호남서남부 농민군, 최후의 항쟁』, 혜안, 2006.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금강출판사, 1983.

김봉곤, 「김응문(金應文) 일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와 유체발굴의 의의」, 『동학학보』 제62호, 2022.

김봉곤, 「나주 동학농민군 활동 재조명」,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시민사회로의 확산』,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김봉곤,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연구』79,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20.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대회-한恨에서 흥興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9.10.30.

김희태, 「동학농민군의 나주 압송과 처형」, 『나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나주시, 2020.10.28., 105~119쪽. ;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 2022.

배석오, 「동학혁명과 무안지방의 봉기」, 『무안군사』, 무안군사편찬위원회, 1994

배향섭, 「1894년 무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古幕浦 전투」, 『한국민족운동사연구』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2015.11.13.

배향섭,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11, 2002.

배향섭, 「제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시기 농민군의 행동양태와 지향」, 『한국근현대사연구』21, 2002.

신영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해 발굴과 그 의미」, 『김응문 일가 유골 수습의 의미와 기념 방안 학술세미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김응문유골특별위원회.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2022.11.03.

왕현종,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과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2015.11.13.

정경운·임선주,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 활성화 전략」-무안지역 및 고막포전투지구를 중심으로-, 『남도 문화연구』 제29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5. ;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2015.11.13.

정소영, 「함평 지역의 동학 조직과 '이교창 사건(이경인 밀고 사건)' 검토」, 『동학학보』71, 2024, 233-267쪽

표영삼, 「전라도 서남부 혁명운동」, 『교사교리운동』8호, 200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www.db.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http://www.1894.or.kr>)

〈부록 1〉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연표³¹⁾

시기	구분	참여 내용	미등록	비고
1892.	동학입교	무안 조병연(趙炳淵)(청계면 남성리), 이병대(李炳戴)(청계면 남안리), 고군제(高君濟)(청계면 도림리), 한용준(韓用準)(박곡면[몽탄면] 갈곡리), 함기연(咸奇淵)(남리)	이병대 고군제 함기연	
1892.07.17		무안 김의환(金義煥)	김의환	
1892.11.07		무안 이병경(李秉炯)	이병경	
1893.		무안 송두옥, 송두옥, 한택을, 송군병, 박인화(청계면), 무안읍 정인섭(무안읍)	송두옥 ³²⁾ 한택을 송군병 정인섭	
1893.02.11	광화문 복합상소	무안 배상옥(규옥, 상선) 동생 배규찬 참여		
1893.03.11	보은 취회(장내리)	무안 배규인 등 무안집 80여명 참여		
1893.03.27		영광 동학군 호남 영광 등지에서 100여명이 보은 도착(『취회』) *전라도 23고를 참여(나주, 남원, 무안, 순창, 순천, 영광, 영암, 장수, 전주, 태인, 함평/장흥, 익산, 여산, 진도, 임실, 부안. 고흥, 강진, 광양/임피, 함열)		
1893.04.02	함평, 영광 동학군 해산	함평, 영광, 남원, 순창, 무장, 태인 등지 동학군 200여명 해산하여 돌아감.		
*1894.01.10	고부 농민 봉기	고부 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1894.02.28	영광 민란	영광에서 농민항쟁(민란)이 일어남(오하기문)		
*1894.03.13	고부 농민 해산	고부 농민 해산		
1894.03.15	무안 동학군 무장과 합세	무안 배상옥(배규인), 해남 김춘두 등과 무장의 동학 농민군과 합세		
*1894.03.20	무장기포 (1차기포)	동학농민군 무장포고문 공포 영광 법성 진량면 용현리에 대밭의 죽창으로 무장,		
*1894.03.23		무장기포 동학군, 고부 다시 점령		
1894.03. 26.~29	백산대회, 호남창의대장소 설치	백산으로 이동, 부안 김제 고부 태안 영광 등지 농민 결집 연합부대 편성, 지도부 확대 개편		
		전라도 53고를 중 전남 영광, 무안, 장성, 나주, 광주 등 17개 고을 기병, 백산 참여(동학사)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장령급 15명 참석, 그 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윤화,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경춘, 이동근(이여춘)	노윤화 임경춘	
1894.04.02	정부, 양호초토사 흥계훈 임명	정부, 전라감사 겸 장위영 점령관 흥계훈을 양호초토사, 이문영을 전라병사로 임명 *흥계훈부대(800명), 서울, 인천 (04.03), 군산(04.06), 임피, 전주 도착(04.07)		

31) 무안, 함평, 영광의 동학농민혁명 자료와 참여자 자료를 정리하여 일자순으로 재 배열함. 일부 중복이 있거나 동일 인명인데 표기가 다른 경우(본명, 관청기록명, 족보명, 호적명, 자 호 등)도 있을 것이다. 미등록자는 기록에 나오는 인명이지만 등록 명단에 없는 경우이다.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표기는 전체 관련 사항임.

1894.04.04	동학군, 법성포 이항에 통문	영광 법성포 이항(吏鄕)들에게 통문을 보내 폐막 시정 촉구		
1894.04.06	나주 서문 전투	무안 배상옥과 함평의 이화진이 연합해 나주 수성군과의 싸움에서 동학군 이여춘(이동근) 등 30명 체포당함.		
*1894.04.06.~.07	정읍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군 황토현 전투 승리, 전라감영군 대파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차례로 점령		
1894.04.11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이여춘(이동근) 등 3명 처형당해 순국함. 27명 출신 고을[自邑]에서 처리토록 함.		
1894.04.12	영광군 점령	백산 윤집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격파하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을 거쳐 영광 도착, 4일간 주둔. 「대적시 약속(大敵時 約束) 4항」, 「12조 계군호령(戒軍號令)」 동학군, 영광군 점령, 군기고에서 군기 탈취		
1894.04.14	영광 법성포 폐단개혁	동학군, 영광 법성포 산과 구수산 등에 주둔. 일본인 객주 여각 습격, 폐단 개혁		
1894.04.16	동학군 무안 진출	동학농민군, 무안으로 진출		
	동학군 함평 관아 점령	동학농민군 전봉준 주력군 6~7천명이 함평으로 남하, 함평 관아 점령		
1894.04.18	동학군 무안 주둔 함평 이동	무안 배상옥 주도 동학농민군 7~8천명 무안 산내면에 주둔 후 함평으로 이동		
	전봉준, 나주공형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나주목의 공형(公兄)에게 동학교인 석방하면 나주 공격을 않겠다는 뜻을 나주목사에게 전해 달라고 글을 보냄.		
1894.04.21	경군 영광도착	경군(홍계훈), 전주(04.18) 출발하여 동학농민군 추격을 시작하여 금구, 태인, 정읍, 고창을 거쳐 영광에 도착		
1894.04.19	전봉준, 양호초토사에 글 보냄	함평에서 전봉준장군이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 글을 보냄		
1894.04.중순	동학군 무기 탈취	무안 배상옥 부대 무안현 등 29개소 무기 탈취		
1894.04.21	경군 영광 이동	경군(홍계훈), 영광 도착		
1894.04.22	동학군 장성, 나주 이동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함평 떠나 장성으로 이동. 일부는 나주로 향함.		
	경군, 장성 이동	홍계훈, 경군 470명 중 300명을 이학승, 원세록 등에게 인솔하여 대포 2문을 주어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게 함		
*1894.04.23	장성 황룡촌 전투	동학농민군 황룡촌 전투 승리, 경군 정예부대 대파		
*1894.04.27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		
*1894.05.04	청국군 상륙	청국군(淸國軍), 아산만 상륙		
*1894.05.06	일본군 상륙	일본군, 인천항 상륙		
*1894.05.08	전주 화약	동학농민군 전주화약(和約) 체결, 동학농민군은 해산하고 고을로 돌아가 폐정개혁 단행		
1894.05.09	동학군 지주, 탐관오리 공격	무안 동학농민군 악덕 지주와 탐관오리 공격		
1894.05.00	집강소 설치	무안 청계면 청천리 청천재에 집강소 설치		
1894.06.00	동학군 목포진 공격	무안 배상옥 목포진 공격		
*1894.07.01	일본군 선전포고	일본군 선전 포고		
*1894.07.06	집강소 설치	전봉준, 전라감사 김학진과 집강소 설치 합의		

1894.07.00	함평성 공격	함평 접주(거괴) 이은중이 함평성을 공격함(12.15 현감 보고)		
1894.07.말	동학군 세력	무안 배상옥 세력 몇만 명에 이룸. *전봉준, 김개남의 2.5배에 이룸		
1894.09.10	삼례기포(2차기포)	동학농민군 9월 재봉기. 반일 민족항쟁 시작 무안 배상옥, 김응문 등 농민군 2,000명 삼례 집결 *기록에는 삼례에 집결했다고 되어 있으나 후방 방어를 목적으로 무안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	*오응문	
*1894.10.12~16	남북접 논산 집결	남북접 동학농민군 논산 집결		
1894.10.00	동학 입교	영광 서우순(道內面 古城里) 동학 입교 (무장 장재면 남계리 오응문에게 동학을 전수 받음)		
*1894.11.08.~11	공주 우금치전투	동학농민군 공주 우금치전투, 패배		
1894.11.16~21	고막포 전투	무안, 함평 동학농민군 나주 공격을 위해 고막포 일대 집결, 나주 수성군과 접전 농민군 5~6만명, 사상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함		
1894.11.00	동학군 활동	함평 이화진의 수종 박준상은 해제로 고부 부민 황경여의 도조를 받으러 갔다가 접주 최문빈(최장현)의 방해로 실패.		
1894.11.20	나주 집결	동학농민군 나주성 집결. 손화중, 최경선, 장흥 이방언,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담양 국문보 등		
	영광 점령	영광 동부면 접주[괴수] 양경수(梁京洙) 등이 마구 포를 쏘며 성을 침입하여 영광군 다시 점령		
1894.11.22	함평으로 이동	고창 임천서가 기병하여 함평으로 갔다고 함(봉남일기)		
1894.11.27	광주 입성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손화중 등 광주 입성		
	전봉준, 동학군해산	전봉준 장군, 장성 갈재에서 군대해산, 은신		
*1894.11.27	태인전투	동학농민군 태인전투 패배, 동학농민군 주력 해산		
1894.11.28	선봉장 군 나주로 출발	선봉장 이규태, 통위영 2개소 병력과 일본군 100여명과 전주에서 나주로 출발		
	동학군 해산	광주에서 동학군 해산		
*1894.12.01.~10	동학지도자 피체	동학 주요 지도자 최경선(12.1, 동북) 전봉준(12.2) 김개남(12.3), 손화중(고창) 등 피체 함평 이화진, 무안 배규인 등 돌아와 활동		
1894.12.02	함평 접주 등 포살 순국	함평 접주 김경오, 이춘익, 이재면, 이근진, 김성필, 김인오, 김성서, 노덕필 ³³⁾ 등은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함	김성필 ³⁴⁾	
1894.12.03	영광 양경수 피체	영광 양경수, 진사 김응선을 중심으로 조직된 수성군에 잡힐 때 총살당해 순국 ³⁵⁾		
	함평 이화진 포살 순국	함평 이화진 포살당해 순국. 수종 6명 붙잡음.		
1894.12.05	영광 서우순 등 처형 순국	영광 서우순, 함평 동학지도자들과 함께 피체 처형 당해 순국 영광 접주(적괴) 송문수 ³⁷⁾ , 오태숙 효수[효경] 당해 순국 영광 최준숙 등 9분,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 영광 박인지 등 10분, 압송당하여 장위영[장위대관]에 넘겨짐.	최준숙 ³⁶⁾	
1894.12.06	함평 접주 5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 김치오, 정원오, 정근서, 김경선, 윤경옥 등 처형당해 순국.		

1894.12.06	함평 접주 이화진 수종 6명 피체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 등 피체 구속해 처분 기다림(함평현감 첩보)		
1894.12.07	무안 동학군 이동	무안 배상옥 영암, 강진 등지로 이동		
	함평 접주 5분 처형 순국	함평 접주 이두연, 김학필, 이관섭 ³⁸⁾ , 이창규, 공명오 처형당해 순국(12.10 현감 보고)		
1894.12.08	무안 2분 처형 순국	무안 접주(접괴) 배정규, 박순서 포살당해 순국. 무안 서여칠 등 6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배정규 ³⁹⁾	
1894.12.08	함평 접주 이은중 피체	함평 접주(거괴) 이은중이 수성군에게 체포당함. 함평현에서 조사하여 초토영으로 압송할 것을 보고(12.15. 현감 보고)		
1894.12.09	함평 접주 8인 처형 순국	함평 접주(거괴) 윤정보, 장경삼, 대접주 박춘서, 정평오, 김시환, 윤찬진, 김경문, 박경중 등 잡힐 때 포살당해 순국(12.10 현감 보고)	김경문 ⁴⁰⁾	
1894.12.09	무안 동학군 신문 후 순국	무안 동학농민군 18명 피체, 접주(거괴) 김응문(김창구), 김자문(김덕구), 정여삼, 김여옥, 장용진, 조덕근 신문을 겪은 뒤 순국함.		
		무안 동학군 12명, 죄의 경중을 가려 처리하도록 함.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현 도착		
1894.12.10	일본군 함평도착	일본학살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의 제2중대(서로군) 함평 도착.		
1894.12.12	무안 동학군 처형 순국	무안 동학군 70명 생포(30명 처결, 40명 구속) 배규찬, 김효문(김영구), 오덕민, 조광오, 김문일(文一, 文日, 김기봉, 김용봉), 박경지, 박기운, 양대숙, 서여칠, 박기연, 박규상, 박기옥 등 처형당해 순국		
		영광 출신 송진팔 등 18분이 무장에서 피체 영광으로 압송되어 경중에 따라 처형당해 순국.		
1894.12.14	좌선봉장, 무안 배상옥 체포 지시	좌선봉장 이규택 무안 수성군 오한수에게 해남에 있는 배상옥 잡을 것을 명령		
1894.12.15	장흥 석대들 전투	무안 배상옥이 참여한 것으로 보임, 전투에서 패배 후 해남, 완도 등으로 피신		
1894.12.22	함평 이화진 수종 6분 조사	함평 접주 이화진의 수종 조병목, 서우순, 김문조, 이응모, 김봉규, 박준상의 동학 입도과정, 활동상 자세히 조사. 김봉규는 구타당해 순국함.		
1894.12.23	무안 동학군 해남에서 피체	해남에서 무안 접주(박치경, 박채현) 접사(임학) 김몽길 등 4명 체포당함.		
1894.12.24	무안 배상옥 해남에서 처형 순국	무안 배상옥, 해남 은소면[현 송지면]에서 윤규룡에게 잡히자 일본군 보병 대위 마스게 세이보(松本正保)에게 현장에서 총살 당해 순국(현상금 1,000냥)		
1894.12.27	무안 해제 최씨 3분 처형 순국	무안 해제면 최장현(최문빈), 최선현, 최기현 삼형제 처형당해 순국		
1894.12.28	무안 배상옥 마부 해남에서 처형 순국	김종곤(金鍾坤) 거(居) 무안(務安) 배규인(裴奎仁)의 마부 패도(佩刀) 아울러 포살당해 순국	패도(佩刀) ⁴¹⁾	
		윤석호(尹石浩), 윤문여(尹文汝) 거(居) 무안(務安) 배상옥(裴相玉)을 수종(隨從)하여 청계민(淸溪民)들에게 잡혀 포살당해 순국.		

1894.12.30	나주 일본진영, 포살 순국	나주 일본진영에서 영광 14분 포살당해 순국, 영광 ; 대접주 이현숙(李賢淑)·노명언(魯明彦)·정기경(丁基京), 접주 도령기수(都令旗手) 박인지(朴仁之), 접주 김관서(金寬西)·전후겸(全厚兼)·강대진(姜大振)·조명구(曹明九)·임명진(林明辰)·김원실(金元實)·황상련(黃相連)·봉윤홍(奉允弘)·고휴진(高休鎭)·봉윤정(奉允正)·신항용(申恒用)	이현숙
		나주 일본진영에서 함평 25분 포살당해 순국. 함평(咸平) : 도독대장(都督大將) 이상삼(李相三), 접주 이익성(李益成)·이경식(李京植)·최유헌(崔有憲)·박용무(朴用武)·장소회(張所回)·박겸오(朴兼五)·최기현(崔基玄)·노인경(盧仁京)·노홍상(魯洪尙)·최문빈(崔文彬, 최정현)·이오서(李五瑞)·장현국(張賢局)·서치운(徐致雲)·이계성(李季成)·이창주(李昌朱)·이순백(李順伯)·박만종(朴萬宗)·박문팔(朴文八)·윤상근(尹相近)·최이현(崔二玄)·김치오(金致五)·윤영국(尹永菊)·김덕홍(金德洪)·김춘경(金春京)	
1895.01.05	무안 박정환 처형 순국	무안 박정환, 무안 교동 일본 진영에서 처형당해 순국	
1895.01.06	우선봉군 영광 도착	양호우선봉군, 영광 도착하여 머무름. 동학 접주[거과, 소위 의병장] 이현숙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15명이 갇힘.	
		양호우선봉군, 법성(法聖)의 백성들을 안무(按撫)하고자 교장 양기영과 병대 30명을 보냄.	
1895.01.09	함평 동학군 포박	함평 동학 도독대장(都督大將, 소위 수성장) 이상삼(李相三)이 양호우선봉군에 포박당하여 문초당함. 동학군 27명이 갇힘.	
1895.01.11	무안 백용선 병사 순국	무안 백용선(청계면 남안리), 고문 후유증 병사	
	홍낙관, 손화중 함평으로 압송	홍낙관·손화중을 같이 압송하라 하여 함평으로 압송. *홍낙관(洪洛寬)은 1월 9일 흥덕현 임리(林里)에서 잡힘. 손화중(孫化中)을 고부군 부안고면(扶安古面) 수강산(壽江山) 산당(山堂)에서 12월 11일 잡힘.	
1895.01.12	양호우선봉군 군기등 획득 기록	양호우선봉군, 각처에서 획득한 군기와 돈·곡식·소·말에 대한 기록 법성(法聖) : 전문(錢文) 1000냥, 백미 433석, 조(租) 37석. 백미와 조는 해당 진[該鎭]의 이방처소[吏房處]에 맡겨 두었다. 총 148자루 중에서 100자루는 스즈끼(鈴木)의 지시에 따라 영광 수성군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부수었다. 철창(鐵槍) 279자루, 환도(環刀) 9자루는 다 부수었다.	
1895.01.18	우선봉군, 일본군대와 합침	영광에서 양호우선봉군과 일본 군대가 합침	
1895.01.19	함평 21분 피체	함평 서우순 등 10여명 경군에 피체 우진영(나주) 압송 심문.	
		함평 홍곤삼 등 11명 피체 압송당하여 조사받음.	
1895.01.20	영광 5분 피체	영광 법성진 남궁달, 박복암 피체, 나주 우진영으로 압송당함.	
		영광 오홍순, 이만순, 김풍종 등 피체	
*1895.03.30	동학지도자 처형 순국	*동학 주요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등 교수형 처형당해 순국.	

- 32) “[포덕 35년 갑오(甲午)] 10월에 신사가 각 포 도인을 불러 만나 보시고 손병희로 하여금 각 포를 통솔케 하시다. 이 때를 전후하여 포를 일으킨 사람을 셈할진대 … 무안(務安) 배규인(裴圭仁), 배규찬(裴圭贊), 송관호(宋寬浩), 박기운(朴琪雲), 정경택(鄭敬澤), 박연교(朴淵教), 노영학(魯榮學), 노윤하(魯允夏), 박인화(朴仁和), 송두옥(宋斗玉), 전행노(全行魯), 이민홍(李敏弘), 임춘경(林春景), 이동근(李東根), 김응문(金應文), … 영광(靈光) 오정운(吳正運), 최재형(崔載衡), 최시철(崔時澈), 흥양(興陽) 구기서(具起瑞), 송연호(宋年浩), 정영순(丁永詢), ”(『천도교서』 제2편 海月神師)
- 33) 『[開國五百三年 十二月 日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는 노덕휘(魯德輝)로 기록.
- 34) 『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와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07.)에 “김성필(金成必)” 기록.
- 35) “이달 초 3일에 이것이 시초가 되어 읍 밑에 있는 진사 김응선(金應善)이 이교와 더불어 의거를 일으켜 방비책을 지시하고 가리켜주어 엄히 단속하여 성을 지켰습니다. 이미 뒤를 쫓아가서 붙잡은 적도가 많으며, 이른바 적의 괴수 양경수는 지금 겨우 잡아서 총살하였습니다.”(『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1894.12.21.)) ; “거괴 양경수(梁京洙)는 잡을 때에 쏘아 죽였고”(『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 36) “최준숙(崔俊淑) 등 9명은 잡을 때에 쏘아 죽였고”(『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 37) 송문수 : 흥농, 법성 일대 활동,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현숙(법성포 鎭吏)에 의해 피체 효수 당해 순국. 이현숙도 효수당함.
- 38) 이관섭(李觀燮) : 『巡撫先鋒陣膽錄』 함평현감첩보, 『전남 동학농민혁명사』는 이만섭으로 오기.
- 39) “무안(務安) 접괴 배정규(裴正圭)와 박순서(朴順西)는 12월 8일에 잡을 때 쏘아 죽였다.”(『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及所獲汁物并錄成冊』)
- 40) “함평현감이 치보합니다. 이 달 초9일에 본현 비류의 거물급 괴수인 윤정보(尹正甫), 장경삼(張京三)과 대접주(大接主)인 박춘서(朴春西), 정평오(鄭平五), 김시환(金時煥), 윤찬진(尹贊辰), 김경문(金京文), 박경중(朴京仲) 등 8명도 또한 잡아서 포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연유를 첩보합니다.”(『선봉진정보첩』 함평현감 치보(1894.12.10))
- 41) “김종곤(金鍾坤) 거(居) 무안(務安) 배규인(裴奎仁)의 마부(馬夫) 패도(佩刀) 아울러 28일(廿八日) 포살(砲殺)”(『各陣將卒成冊』 罪人錄(甲午十二月 日))

〈부록 2〉 전라도 서남부(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⁴²⁾

연번	참여자	참여내용	참여 지역	순국일 ⁴³⁾	순국 장소 ⁴⁴⁾	출신지 (본적)	유산	등록일	검색 ⁴⁵⁾			
									직	1	2	
1	강대진 (姜大振)	강대진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2	강봉희 (姜鳳熙)	1887년 동학에 입도하여 1892년 삼례 집회, 1894년 3월 백산봉기, 이후 함평점령과 나주성공격에 참여한 후 전사 순국함	전라도 부안	1863. 5.4. ~1894.				2006. 11.20	○			◎
3	고휴진 (高休鎭)	고휴진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4	공명오 (孔明五)	공명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5	권풍식 (權豊植)	권풍식은 1894년 전라도 함평현감으로 재직중 동학당 엄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전봉준 등과 함께 일본공사관으로 이송되었고 법무아문에서 재판을 받아 1895년 3월 '장일백(杖一百)'의 처벌을 받음	전라도 함평	1860. ~?				2009. 11.25	○			◎
6	김경선 (金京先)	김경선은 접주(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7	김경오 (金京五)	김경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8	김관서 (金寬西)	김관서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9	김기봉 (金基鳳)	1894년 전남 무안지역 대접주 배상옥, 김응문, 김효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관군에게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8. ~1894. 12.12.		(무안)		2009. 01.16		○		○

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검색(이하 등록참여자)에서 '무안', '함평', '영광'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인명을 초성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중복된 인명은 제외하였다.

10	김낙선 (金洛先)	김낙선은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1	김덕구 (金德九)	1894년 3월 형제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백산전투와 나주 고막원 전투에 참전, 12월 8일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나주 무안	1868. 3.20. ~1894. 12.8.	(무안)	비석		2006. 10.04	○			○
12	김덕홍 (金德洪)	김덕홍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	김몽길 (金夢吉)	김몽길은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4	김몽치 (金蒙治)	김몽치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수성군(守城軍)에게 1894년 12월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5	김문조 (金文祚)	김문조는 1894년 8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1월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16	김복환 (金卜煥)	장성에서 동학접주로 활약하다가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공주전투 패전 후 남하하면서 관군과 일본군의 살육작전에 맞서 싸우다가 함평에서 전사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8. ~1894.				2005. 12.27	○			◎
17	김봉규 (金奉奎)	김봉규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옥에서 사망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8	김성서 (金成西)	김성서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9	김성오 (金成五)	김성오는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20	김시선 (金是先)	김시선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21	김시환 (金時煥)	김시환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22	김여옥 (金汝玉)	김여옥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23	김여정 (金汝正)	몽탄면 접주인 아버지 김응문과 함께 백산대회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체포된 뒤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7. 5.3. ~1894. 12.9.	(무안)	비석	2006. 11.20	○				○
24	김영구 (金永九)	1894년 형 김응문, 동생 김자문, 조카 김여정과 함께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고, 함평 고막원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12월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51. 9.19. ~1894. 12.12.			2009. 01.16		○			○ ◎
25	김영달 (金永達)	무장기포후 문서송달 담당, 민보군에 체포되어 처형	전라도 고창/영광	1852.9.28. ~1894.12.27.			2005. 12.27	○	○			●
26	김용덕 (金容德)	김용덕은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27	김용택 (金容宅)	동학접주로서 장성 황룡촌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 후 사망 순국함	전라도 영광함평	1858.12.25. ~1916.4.27.			2005. 12.27	○				● ◎
28	김우백 (金禹栢)	동학농민군으로 1894년 11월 무안지역에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방면된 후 후유증을 앓다 1904년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75. ~1904. 11.19.	(무안)	(무안)	2008. 05.20		○			○
29	김원숙 (金元叔)	김원숙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8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8.			2009. 11.25	○				◎
30	김원실 (金元實)	김원실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31	김응문 (金應文)	무안 몽탄면의 접주로서 동생 김효문·김자문, 아들 김여정과 함께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고, 함평 고막원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94. 4.22. ~1894. 12.8.	(무안)	유해 비석	2008. 05.20		○			○ ◎
32	김익수 (金益洙)	김익수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33	김인오 (金仁五)	김인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34	김정필 (金定必)	김정필은 접주(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7일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35	김종곤 (金鍾坤)	김종곤은 전라도 무안 출신으로 배규인의 마부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36	김진환 (金鎭煥)	장성에서 접주로 활동하다 공주방면 전투에 참여한 후 1894년 12월 함평에서 전사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62~ 1894.12.					2008. 05.20		○		◎
37	김춘경 (金春京)	김춘경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38	김치오 (金治五)	김치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39	김태서 (金台書)	김태서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접주 이은중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피신한 후 1899년 영학당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됨	전라도 함평	1855. ~?					2009. 11.25	○			◎
40	김태원 (金泰元)	김태원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접주 이백인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41	김풍종 (金豐宗)	김풍종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20일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42	김학필 (金學必)	김학필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해남	?~ 1894. 12.7.					2009. 11.25	○			◎
43	김행로 (金行魯)	김행로는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송두옥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44	남궁달 (南宮達)	남궁달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1895년 1월 20일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에 압송된 뒤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45	노덕팔 (盧德八)	노덕팔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46	노덕휘 (魯德輝)	노덕휘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47	노명언 (魯明彦)	노명언은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48	노영학 (魯榮學)	노영학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49	노윤하 (魯允夏)	노윤하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50	노인경 (盧仁京)	노인경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1	노홍상 (魯洪尙)	노홍상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2	박겸오 (朴兼五)	박겸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53	박경중 (朴京仲)	박경중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54	박경지 (朴京之)	박경지(異名:京知)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55	박규상 (朴奎相)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불무재에서 12월 7일 화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9.~ 1894. 12.7.		(무안)		2009. 01.16		○		○
56	박기연 (朴淇年)	박기연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57	박기옥 (朴淇玉)	동학접주로서 무안지역 전투 이후 현경면 평산리에 은신 중에 마을 사람의 밀고로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8.~ 1894. 12.12.		(무안)		2009. 01.16		○		○
58	박기운 (朴沂雲)	박기운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59	박돌암 (朴堧岩)	박돌암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3일 전라도 무안에서 나주 민병에게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0	박만종 (朴萬宗)	박만종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61	박문팔 (朴文八)	박문팔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62	박병하 (朴炳夏)	무안 접주 배상옥 등과 함께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이서면 접주로서 일서면 접주 박헌상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전라도 무안	1857. 4.15. ~1894.		(무안)		2005. 12.27		○			○
63	박복암 (朴卜巖)	박복암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체포되어 1895년 1월 20일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에 압송된 뒤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64	박성실 (朴成實)	박성실은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5	박순서 (朴順西)	박순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8.				2009. 11.25	○				○
66	박연교 (朴淵敎)	박연교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67	박영삼 (朴永三)	박영삼은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나 1894년 12월에 풀려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68	박용무 (朴用武)	박용무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69	박인지 (朴仁之)	박인지는 도령기수(都令旗手)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70	박인화 (朴仁和)	1894년 3월 무안에서 배규인 등15인과 함께 백산봉기에 참여하였고, 나주 전투 중에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신함	전라도 고부백산	1847. 8.14. ~1926. 10.21.				2008. 05.20		○			○
71	박정환 (朴正煥)	박정환은 접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에 수감된 후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72	박준상 (朴俊尙)	박준상은 1894년 9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2월 3일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73	박종양 (朴仲良)	박종양은 접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영광·무장에서 탐리(貪吏)를 징치하고 군기(軍器)를 몰수하는 활동을 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74	박채현 (朴采玄)	박채현은 접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75	박춘서 (朴春西)	박춘서는 대접주(大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박치경은 접주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76	박치경 (朴致京)	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77	박치상 (朴致相)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나주 고막원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맞고 퇴비창고에 숨었다가 귀가	전라도 무안	1869. 1.28. ~1949. 7.1.		(무안)		2020. 11.02				○	○
78	배규찬 (裴奎瓚)	배규찬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의 동생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1일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11.				2009. 11.25	○				○
79	배병만 (裴炳慢)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접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72. ~1894. 12.14.		(무안)		2005. 12.27	○				○
80	배병현 (裴炳顯)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접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4.~ 1894. 12.14.		(무안)		2005. 12.27	○				○
81	배병환 (裴炳煥)	전남 서남부 일대의 도접주 배상옥의 종질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2. 12.28. ~1895. 1.7.		(무안)		2005. 12.27	○				○
82	배상옥 (裴相玉)	대접주로서 1894년 3월 백산전투, 9월 삼례전투 등에 참여한 후 12월 24일 체포되어 처형당하여 순국함	무안 나주	1863. ~1894. 12.24.		(무안)		2008. 05.20	○				○
83	배용보 (裴用甫)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함	전라도 무안	1871.4.18. ~1944.11.14.		(무안)		2009. 01.16			○		○
84	배정기 (裴楨基)	동생 배달기와 함께 1894년 무안 지방의 접주로 활동하다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피신함	전라도 무안	1862. 12.28. ~1941. 2.14.		(무안)		2008. 05.20			○		○
85	백용선 (白用善)	무안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12월 농민군들에게 소를 잡아 준 후 관군에게 쫓기다 병으로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9. ~1895.		(무안)		2009. 01.16			○		○
86	봉윤정 (奉允正)	봉윤정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87	봉윤홍 (奉允弘)	봉윤홍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88	서기현 (徐基鉉)	서기현은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89	서여칠 (徐汝七)	서여칠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0	서치운 (徐致雲)	서치운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91	송관호 (宋寬浩)	송관호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92	송담신 (宋談臣)	송담신은 대정(大正)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93	송두욱 (宋斗旭)	송두욱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배규인(배상옥)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4	송문수 (宋文水)	송문수(異名:文洙)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1차, 2차 봉기시 전라도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3일 라도 영광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됨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장	?~ 1894. 12.3.				2009. 11.25	○				●
95	신항용 (申恒用)	신항용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96	양경수 (梁京洙)	양경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				2009. 11.25	○				●
97	양대숙 (梁大叔)	양대숙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8	오덕민 (吳德敏)	오덕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99	오인겸 (吳仁兼)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같은 마을 친구인 배용보, 노병용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76. ~1948.		(무안)		2019. 06.12				○	○
100	오정운 (吳正運)	오정운은 1894년 10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01	오태숙 (吳泰淑)	오태숙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5일 참형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5.				2009. 11.25	○			●
102	오홍순 (吳弘順)	오홍순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1895년 1월 20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03	윤경옥 (尹景郁)	윤경옥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104	윤문여 (尹文汝)	윤문여는 전라도 무안에서 배상옥을 따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105	윤상근 (尹相近)	윤상근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06	윤석호 (尹石浩)	윤석호는 전라도 무안에서 배상옥을 따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8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28.				2009. 11.25	○			○
107	윤영국 (尹永菊)	윤영국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08	윤정보 ⁴⁶⁾ (尹正甫)	윤정보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09	윤정보 (尹正甫)	윤정보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11일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11.				2009. 11.25	○			◎
110	윤찬진 (尹贊辰)	윤찬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9.				2009. 11.25	○			◎
111	윤태한 (尹泰翰)	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침산전투, 용진산전투, 무안 고막원전투 등에 참전하고 은신하다 귀가함	전라도 나주 무안	1857. .8.15. ~1932.				2006. 10.04	○			○
112	이경식 (李京植)	이경식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13	이계성 (李季成)	이계성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14	이곤진 (李坤辰)	이곤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15	이관섭 (李觀燮)	이관섭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7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7.				2009. 11.25	○			◎
116	이관현 (李官現)	영광, 함평, 나주 등지의 전투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뒤 행방불명됨	전라도 영광	1865. 7.1~?	(영광)			2008. 05.20	○	○		◎ ◎
117	이돈섭 (李敦燮)	이돈섭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7. ~?				2009. 11.25	○			◎
118	이돈창 (李敦倡)	이돈창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70. ~?				2009. 11.25	○			◎
119	이두연 (李斗連)	이두연은 접주(接主)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20	이만순 (李萬順)	이만순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 법성진에서 1895년 1월 20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21	이목헌 (李穆憲)	이목헌은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9. ~?				2009. 11.25	○			◎
122	이민홍 (李敏弘)	이민홍은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전라도 무안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백산	?~?				2009. 11.25	○			○
123	이백인 (李伯仁)	이백인은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24	이병렬 (李炳烈)	이병렬은 성찰(省察)을 따르는 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3일 전라도 무안에서 나주 민병에게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25	이병화 (李炳化)	이병화는 전라도 무안에서 부친 이여춘(이동근)과 함께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4월 26일에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6. 10.11. ~1894. 4.26.	(무안)			2025. 04.10			○	○
126	이상삼 (李相三)	이상삼(異名:象三)은 아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수성장(守城將) 행세를 하였다가 1894년 12월 9일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일본군 진영에서 총살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27	이순백 (李順伯)	이순백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28	이여춘 [이동근] (李汝春 [李東根])	이여춘(이동근, 諱名 이상술)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4월 26일에 아들 이병화와 함께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5. 6.6. ~1894. 4.26.					2009. 11.25	○			○
129	이오서 (李五瑞)	이오서는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0	이용덕 ()	이용덕은 1894년 7월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1915.8.27.					2009. 11.25	○			◎
131	이유수 (李儒洙)	이유수는 집강(執綱)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0. ~?					2009. 11.25	○			◎
132	이유영 (李儒英)	이유영은 교수(教授)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64. ~?					2009. 11.25	○			◎
133	이은중 (李殷仲)	이은중은 전주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34	이응모 (李應模)	이응모는 1894년 8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1월 이화진을 따라 전라도 무안으로 갔다가 12월 4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135	이익선 (李益善)	이익선은 전주(接主)로서 전라도 무안군 망운목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체포되어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으로 압송당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36	이익성 (李益成)	이익성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37	이재면 (李在冕)	이재면(異名:滋冕)은 전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38	이재민 (李在民)	이재민은 전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2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2.					2009. 11.25	○			◎

139	이재복 (李在卜)	이재복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8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8.				2009. 11.25	○			◎
140	이종훈 (李鍾勳)	대접주의 지위로 2차 봉기시에 손병희의 동학농민군 좌익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법성포	1856. ~1930.				2006. 11.20	○			●
141	이창규 (李昌奎)	이창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				2009. 11.25	○			◎
142	이창주 (李昌朱)	이창주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43	이춘익 (李春益)	이춘익은 접주(接主)로서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44	이태형 (李泰亨)	1894년 함평접주 이화진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12월 이고창의 밀고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1. ~1894. 12.24.		(함평)		2009. 01.16		○		◎
145	이헌조 (李獻祚)	이헌조는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46	이화량 (李化良)	이화량은 접주로 전라도 함평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1894년 11월 5일 총살당하여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1.5.				2009. 11.25	○			◎
147	이화진 (李化辰)	이화진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5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5.				2009. 11.25	○			◎
148	임경윤 (林京允)	1894년 4월 23일 장성 월평리전투에 참여하고 2차봉기 시 이화진, 장공삼 등과 농민군을 규합하여 삼례 출전	전라도 함평영광	1863. 6.18. ~1923 .9.21.		(함평)		2006. 11.20	○			● ◎
149	임기운 (林琪雲)	임기운은 1894년 10월 전라도 무안에서 송관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2차 봉기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50	임명진 (林明辰)	임명진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51	임운홍 (林雲洪)	임운홍은 1894년 3월 전봉준이 기포할 때 전라도 무안에서 송관호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52	임춘경 (林春京)	임춘경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접주 이백인을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53	임치덕 (林致德)	임치덕은 1894년 7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농민군에게 배를 주었다가 체포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54	임학 (林鶴)	임학은 접사(接司)로서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면민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인계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55	장경광 (張京光)	1894년 함평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12월 무안군 해제면으로 피신함	전라도 함평	1868. 9.9. ~1922. 7.15.		(무안)		2009. 01.16		○		○ ◎
156	장경삼 (張京三)	동학도로 동생 장옥삼·장공삼 등과 함께 1894년 영광·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피신,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2. 5.14. ~1894. 12.9.		(함평)		2008. 05.20		○		○ ● ◎
157	장공삼 (張公三)	동학도로써 형 장경삼·장옥삼 등과 함께 1894년 영광·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피신,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4. 12.12. ~1895. 2.17.		(함평)		2008. 05.20		○		○ ● ◎
158	장소회 (張所回)	장소회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59	장옥삼 (張玉三)	처 조카 이화진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형 장경삼, 동생 장공삼 등과 함께 영광 무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던 중 부상을 당하고 피신, 이후 피체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51. 3.7. ~1895. 2.17.		(함평)		2006. 11.20	○	○		○ ○ ●
160	장용진 (張用辰)	장용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161	장재명 (張在明)	1894년 전라도 무안 석용리에서 훈련 대장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62. ~1916.		(무안)		2019. 06.12			○	○
162	장현국 (張賢局)	장현국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63	장호진 (張昊鎭)	1894년 영광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 전시기에 걸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함	전라 영광, 금곡, 충청 논산	1871.1.3. ~1949.8		(영광)		2006. 11.20	○			●
164	전기섭 (全琪燮)	전기섭은 집강(執綱)겸 도집(都執)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65	전창섭 (全昌燮)	1894년 나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으며, 나주성 북문 안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사망 순국함	전라도 함평 나주	1854. 7.20. ~1894.		(함평)		2009. 01.16	○			◎
166	전후겸 (全厚兼)	전후겸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67	전희중 (田希仲)	전희중은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수성군에게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68	정경택 (鄭京宅)	정경택(異名: 敬澤)은 전라도 함평,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에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
169	정곤서 (鄭坤西)	정곤서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170	정기경 (丁基京)	정기경은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71	정동화 (鄭東華)	정동화는 나주 접주 나동환의 부인으로 나동환을 본가로 피신시켰고, 대신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1913년에 사망 순국함	전라도 나주	1848. ~1913. 5.5.		** (함평)		2025. 04.10	○			◎
172	정삼여 (鄭三汝)	무안 지방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7. 11.27. ~1894. 12.8.		(함평)		2008. 09.10		○		○
173	정안면 (鄭安冕)	정안면은 집강(執綱)겸 접주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정여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74	정여삼 (鄭汝三)	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12				2009. 11.25	○			○
175	정원오 (鄭元五)	정원오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6.				2009. 11.25	○			◎
176	정평오 (鄭平五)	함평의 대접주로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후, 12월 피신도중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1847. ~1894. 12.11.		(함평)		2008. 05.20	○			◎
177	정해욱 (鄭海郁)	정해욱은 집강(執綱)겸 접사(接司)로서 1894년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78	정훈직 (丁熏直)	정훈직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79	조광오 (趙光五)	조광오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됨	전라도 무안	?~?				2009. 11.25	○			○
180	조덕근 (趙德根)	조덕근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무안에서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 신문(訊問) 후 순국함	전라도 무안	?~ 1894. 12				2009. 11.25	○			○
181	조명구 (曹明九)	조명구는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82	조병묵 (曹丙默)	조병묵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6일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됨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83	조병연 (趙炳淵)	조병연은 1892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에 입교한 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무안	1865.~ 1925. 7.28.				2009. 11.25	○			○
184	최기현 (崔琪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전라도 무안·나주	1866.~ 1894.2.27		(무안)		2009. 01.16		○		○
185	최선현 (崔善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 이후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나주	1852. 12.9. ~1894. 12.27.		(무안)		2009. 01.16		○		○
186	최성모 (崔聖模)	무안지역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다 관군에 잡혀 화형당해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48. ~1894.		(무안)		2009. 01.16		○		○
187	최시철 (崔時澈)	종조부 최재신, 종제 최평집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 기포, 고부 황토현부안 백산전투 등에 참여한 후 무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충청 전라	1870. 12.5. ~1894. 12.5.		(영광)		2008. 05.20		○		○
188	최유헌 (崔有憲)	최유헌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1 2.30.				2009. 11.25	○			◎
189	최윤주 (崔潤柱)	1894년 3월 무장봉기에 참여하여 영광, 장성일대에서 모병활동을 하고 화승포 명사수로 황룡대첩에 참전	무장 고창 영광	1870. 12.15. ~1949				2006. 11.20	○			●
190	최이현 (崔二玄)	최이현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함평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후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함평	?~ 1894. 12.30.				2009. 11.25	○			◎
191	최장현 (崔璋鉉)	동학접주로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나주전투에서 순국함	전라도 무안·나주	1838.~ 1894.12.27.		(무안)		2009. 01.16		○		○
192	최재신 (崔載愼)	손자 최평집, 종손자 최시철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 기포, 고부 황토현부안 백산전투 등에 참전한 후 무안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충청 전라	1829. 6.6. ~1895. 2.14.		(영광)		2008. 05.20		○		○

193	최재형 (崔載衡)	최재형은 1894년 10월 전라도 영광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함	전라도 영광	?~?				2009. 11.25	○			●
194	한백룡 (韓白龍)	한백룡은 대정(大正)으로서 1894년 7월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함	전라도 함평	1871.~?				2009. 11.25	○			◎
195	한용준 (韓用準)	한용준은 1894년 전라도 무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고막원 전투에서 패하여 피신한 뒤 1895년 순국함	전라도 무안	1865. 4.10. ~1895.				2009. 11.25	○			○
196	홍곤삼 (洪坤三)	홍곤삼은 전라도 함평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5년 1월 19일 체포되어 우진영(右鎭營)[전라도 나주]으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음	전라도 함평	?~?				2009. 11.25	○			◎
197	황상련 (黃相連)	황상련은 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전라도 영광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된 뒤 1894년 12월 30일 일본진영에서 총살당해 순국함	전라도 영광	?~ 1894. 12.30.				2009. 11.25	○			●
1	김용경 (金龍京)	부친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전주성 전투에서 부상당한 부친을 업고 돌아옴	전라도 전주	1880. 2. 6.~ 1918. 4. 3.		(영광)		2019. 06.12			○	
2	김재묵 (金在默)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나 패전한 후 관군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귀가	전남/고창 ⁴⁸⁾	1868.10.10. ~1901.01.11.		(영광)		2006. 11.20		○		
3	임천서 (林天瑞)	1894년 3월 1차 봉기에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 참여한 후 11월 함평에서 체포되어 1895년 3월 포살당해 순국함. ⁴⁹⁾	고창	1864. ~1895. 3.		(옥구)		2008. 05.20		○		
4	전장하 (全章夏)	동학농민혁명 당시 군포관 및 군자금 조달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나주지역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함	전라도 나주	1860. 3.23 ~1894. 11.20		(함평)		2009. 01.16		○		
5	최평집 (崔平執)	부친 최재신, 종형 최시철과 함께 1894년 3월 무장에서 기포하였으며, 이후 장성 황룡촌, 고막포전투 등에 참전, 피체되었다 상처 악화로 석방됨	충남 전라/장성 ⁵⁰⁾	1872. 12.12. ~?		(영광)		2006. 11.20		○		
									159	37	5	
*	최도열 (崔道烈)	함평의 대접주로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후 12월 피신도중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해 순국함 ⁵¹⁾	강원도 홍천	1870 ~1894		(홍천)		2008. 05.20		○		

43) 순국일자 : 출생·사망연월을 순국일로 표기하였다.

44)

45) 검색 지역 : ○무안, ●영광, ◎함평

46) 윤정보(尹正甫) : 동명으로 2인 등록. 처형 당해 순국한 일자만 다름. ?~1894.12.9., ?~1894.12.11. 2009.11.25. 등록일자는 같음.

47) 장공삼(張公三) : 동명으로 2인 등록. 서로 다른 인물로 보임. 충청도 홍주 장공삼(?~1894.12.10.)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2월 10일 충청도 홍주에서 사망함. 2009.11.25. 등록

48)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전남, 재단 참여자 - 고창

49)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1894년 3월 고창봉기에 참여함

50)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충남 전라, 재단 참여자 - 장성

51) 참여지역 : 누리집 참여자 - 1894년 10월 흥천 서석면 품암리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으며 서석전투 중 사망함.

토론문 3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통계적 구조와 역사적 함의에 대한 토론문

전 경 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희태선생님의 연구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는 그 제목과 부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라도 서남부에 해당하는 무안, 함평, 영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중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발제문 제2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활동>에서는 전라도 서남부 지역에 기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활동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이 세 지역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의 재세시기와 참여시기, 당시의 연령, 직책, 직업, 참여지역, 처형여부, 등록 구분 등을 세세히 살펴서 일목요연한 3개의 도표로 작성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 도표를 작성한 것은 이미 선생님의 축적된 연구력과 놀라운 추진력을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부록으로 제시한 전라도 서남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연표는 자료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전라도 서남부 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끈기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연표를 작성해주신 김희태선생님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제3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성격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향하거나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나주김씨 김응문 일가 사례를 통하여 농민과 유학자의 구분이 과연 가능하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상세히 논했습니다.

사실 ‘직업’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도입된 것은 일제의 영향입니다. 문서학적으로 보면 ‘직업’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 신호적을 작성하게 된 이후입니다. 신호적 작성란에 ‘직업’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용어가 생경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양반이라는 뜻에서 ‘사(士)’ 또는 ‘유(儒)’라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실제 자

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農)’이라 썼으며 또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절충적으로 ‘사’와 ‘농’을 함께 기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 양반 출신으로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한 유학자들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사’ 혹은 ‘농’으로 밝힌 것을 김희태선생님께서 주목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현상을 지적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학농민혁명군의 지도자층에 대한 연구를 좀더 심도있게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접장을 역임한 동학농민혁명 지도층의 일부는 그 지역 유명한 유학자의 문인이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도 시골에서 학동들을 가르키는 서당의 훈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도는 유랑지식인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밀도있게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유랑지식인의 지도자가 없이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실패한 민란과 식견과 대안을 가진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동학농민전쟁과의 구분이 좀더 명확해지는 동시에 민란과 동학농민혁명의 사회 발전적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여성 동학 참여자 정동화를 소개하셨습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사회정치적인 행위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적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기록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의 여성 역할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데 혹시 또 소개할만한 여성 동학참여자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고창현감이었던 이경인이 자신 역시 동학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도 이태형과 동학에 협조적이었던 함풍현감 권풍식을 밀고하여 처벌받고 파면되게 했던 사건을 ‘교도와 밀고’라는 항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기 왕조국가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에는 항상 변절과 밀고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도 전봉준을 밀고한 김경천, 김개남을 고발한 임병찬, 영광의 송문수를 살해해 바친 이현숙 등이 배신과 밀고를 한 인물로 거론되었습니다. 혹시 전라도 서남권의 이 세 지역에 이경인과 이현숙과 같은 인물로 더 소개할 사람이 있는지요.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행현이 쓴 『홍재일기』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으면서 기행현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합리적 근대형의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는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서당과 산사에서 열심히 전통적인 유학 공부와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유학에 기반한 과거 준비생과 과거시험 합격자 및 지역의 유학자들과 매우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그는 훈집(訓執) 등 부안지역의 행정 실

무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향리와 지역행정실무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학자들과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지사(地師)와 의사(醫師) 등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 무덤을 명당에 묻기 위해 그랬으며 의사와 친밀하게 지낸 것은 아들과 손자 및 며느리가 자주 병을 앓았기 때문에 치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때 지역에서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한 동학교도와 천주교도, 일진회원과 진보회원 등과도 배척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잘 어울려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이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소위 지역의 마당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안은 전남의 서남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서도 기행현과 같은 인물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서없는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4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발표 |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주제발표 4

1. 머리말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4.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5. 맺음말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김 양 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그 실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음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역적의 자식으로 살아온 후손들 역시 선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해 9월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는 특별법이 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2024년 12말 현재 등록된 참여자는 총 3,903명으로, 그 가운데 충청도에서 활동한 참여자는 총 1,228명이다. 그 가운데 1차 등록 149명, 2차 등록 15명, 직권등록 1,064명이다. 충청도에서만 참여한 동학농민군 외에 타지역 출신으로 충청도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한 예로 전봉준의 경우 주로 활동한 지역이 전라도이지만 충청도에서도 활동하여 충청도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한 참여자 등록 엑셀파일을 분석하였다. 이 파일에는 참여자의 생몰연대·본적·활동지역·활동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되,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은 참여자 관련 자료나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정성적인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정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추세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긍정적이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를 일일이 분석해서 통계 데이터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참가자 개인 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차후 보완하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출생과 사망

1) 출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출생연도가 밝혀진 인물은 22.6%이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는 1821년생 임재수이다. 임재수는 충북 단양 출신으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1895년 3월에 장 일백에 삼천리 유배형을 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73세였던 임재수가 단양 출신이라는 점이다.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된 곳이다.

〈표 1〉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출생연도 현황

연도	1820-29	1830-39	1840-49	1850-59	1860-69	1870-79	1980-89	불명
인원	5	12	28	79	98	54	1	951
주요인물	최시형 임재수	강영휴 음선장	문장노 서우순 성두한 이원팔 황하일	김연국 박인호 서장옥 임기준	강영문 문장준 손병희 손여옥	강시원	이상우	

단양에 동학이 알려진 것은 수운 최제우가 활동하던 1860년대 초부터이다. 단양에 사는 민사업은 1862년 12월에 동학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이 때문에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해월 최시형은 1871년에 경상도 영해에서 일어난 이필제난 이후 삼엄해진 감시망과 동학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영춘·영월·정선 등지로 옮겨다니면서 비밀포교지를 만들고 동학을 은밀히 전파할 수 있었다. 한때 최시형은 단양 정석현 집에서 이름을 숨기고 머슴살이를 하다 정선으로 거처를 옮긴 일도 있었다.

해월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던 중, 영춘 장현곡에서 1872년 3월부터 1874년 1월까지 약 2년간 머문 뒤 단양 대강면 도솔봉 밑에 있는 절골(寺洞, 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로 1874년 4월초에 이사하였다. 이 때부터 동학은 점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해월이 머무르는 절골은 점점 동학도들로 넘쳐났다. 동학 조직도 해월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자리잡고 날로 확대되었다. 동학도인 역시 점점 늘어났다. 해월은 더 넓은 숙소가 있는 이웃 마을인 송고(일명 새두둑, 현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로 1875년 2월에 옮겨살았다.

이 때부터 동학에 대한 입소문이 크게 나면서 동학도인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해월을 찾아와 동학 수도절차를 묻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러자 해월은 1880년 6월에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다음 해 1881년에는 단양 남면 천동(샘골)에 사는 여규덕의 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학은 점차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1883년경에 이르면 청주, 충주, 청

풍, 괴산, 연풍, 진천, 공주 등지에서 동학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1880년 전후 단양은 동학이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급자리 역할을 하였는데, 이때 단양과 청풍 등지에서 해월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 강차주(강수), 전중삼, 김봉암 등이다. 성종연·강차주는 1894년에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성종연의 경우 그의 아들 성두한을 비롯해 성두한의 6촌형제들까지 동학에 가입시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충북 북부지역 4군의 동학농민혁명은 1880년대부터 조직화된 동학을 배경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¹⁾

이처럼 단양 출신 임재수를 비롯해 1820년대생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출생자들이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는데, 1830년대생은 12명, 1840년대생은 28명, 1850년생은 79명, 1860년대생은 98명으로 점점 많아졌다. 그러다 1870년대생은 54명, 1880년대생은 1명으로 급감하였다. 1880년대생 1명은 1880년에 전북 여산에서 출생한 이상우로, 전라도 여산 마산도소에서 봉도에 임명되어 각종 문서 대필업무를 담당하였고 논산 황학대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이것으로 보아 충청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은 186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850년대생이었다. 1850-60년대생이 출생연도를 알 수 있는 동학농민군 277명 가운데 63.9%에 이른다. 이들은 1894년에 25-45세로, 30대 전후의 청중년층이 동학농민군의 주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850년대생인 서장옥, 박인호, 김연국, 임기준, 1860년대생인 손병희, 문장준 등이다.

이들의 충청도 출생지역은 다양하였다. 본적이 확인 가능한 참여자는 모두 171명이다. 그 가운데 충남 103명(태안 26명, 서산 25명, 예산 14명, 공주 10명, 아산 7명, 논산 6명, 금산·홍성 각 4명, 서천 3명, 부여 2명, 천안 1명), 충북 28명(청주 10, 옥천 6명, 보은 4명, 괴산·음성·진천·영동 각 2명), 충청도 1명이다. 나머지는 강원도 4명, 경기도 5명, 경북 3명, 서울 3명, 전북 13명 등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이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일수록 충청도를 본적으로 한 참여자가 많았다. 동학농민혁명기 충청지역은 2월부터 모든 지역으로 동학이 확산되고 6월 하순 일본의 경북공 점령과 청일전쟁을 계기로 동학도들이 봉기하였을 뿐 아니라, 9월 동학교단의 기포령에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학도들이 총봉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본적이 충청도 전역에 걸쳐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태안·서산·예산지역에서 출생한 참여자의 등록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활발히 전개된 데다 참여자의 회고록이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충북 북부지역은 성두한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활동한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단양 성두한·김선달, 충주 김성칠, 제천 김영진, 영춘 박명수, 청풍 황

1) 신영우, 「성두한과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충북학』 18, 2016, 29-30쪽.

거북 등 모두 43명이나, 본적이 충청도로 명시된 참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 이유는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충주에서 활동한 홍순옥(1868년생, 1차 등록) 외에는 42명 모두 기록에서 확인되는 참여자를 직권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참여자의 유족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가 없다. 앞으로 충북 북부지역 참여자 유족을 적극 찾아낼 필요가 있다.

2) 사망

충청도 참여자 1,228명 가운데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인원은 728명으로 절반이 약간 넘는 59.2%이다. 그 가운데 1894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사망연도가 확인되는 728명 가운데 82.1%인 597명에 이른다. 동학농민혁명 외중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전투 이후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기록물이나 족보·제적부 등에서 사망연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2〉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연도 현황

연도	1894	1895	1896-99	1900-09	1910-09	1920-19	1930-39	1940-49	1950-59	1960-69	1970 이후	불명
인원	597	31	7	16	13	16	16	19	9	3	1	500

1894년에 사망한 시기는 동학농민군 2차 봉기가 시작된 9월 10명, 10월 168명, 11월 224명, 12월 156명이다. 이는 충청지역 전투가 주로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되었던 일련의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0월 21일 천안 세성산전투에서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이 전사하였고, 10월 28일 홍주성전투 역시 수백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 9일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동학농민군이 퇴각하면서 벌어진 논산 황학대전투에서도 많은 동학농민군이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망시기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표 3〉 1894년에 사망한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사망시기

월	3	4	5	6	7	8	9	10	11	12	불명
인원	0	1	0	1	1	0	10	168	224	156	36

1894년 9월 이전에 사망한 참여자는 소수인데, 4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나방환이다. 그는 4월에 서천지역에서 김제로 이동하여 활동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는 금강이 바라보이는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출신으로, 4월 2일 집을 나가 김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이미 무장기

포가 일어나는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다. 특히 남접과 기맥이 통하고 있던 서장옥이 이끈 것으로 추정되는 진잠, 보은, 옥천, 영동, 금산 등지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북접 동학교단에서는 남접에 호응하여 기포하는 행위를 엄단하였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의 농민군들 가운데는 전라도로 내려와 농민군 주력부대와 합세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방환도 이 무렵 인근의 농민군들과 함께 전라도로 내려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을 전후한 시기는 농민군 주력부대가 고부, 태인, 금구 등을 휩쓸고 있을 때였으며, 인근한 지역에서도 농민군들과 관군의 충돌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²⁾ 나방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서천지역에서도 금강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문사형인데, 그는 6월 15일 홍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주를 비롯한 내포지역은 2월 6일 일어난 덕산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서산 같은 경우 2월 이후 한 두 달 사이에 서산 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었을 정도이다.³⁾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하던 4월 초순에 충남 진산·이인·회덕·목천과 충북 옥천·청산·보은 등지에도 동학도들이 집결해 있었다. 충청도 곳곳에서 동학도들이 활동하였으나, 지방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다. 내포지역에서도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4월 9일에는 동학을 음해하고 재물을 수탈하던 서산의 이진사를 혼내준 사건이 있었다. 내포지역 동학은 날로 세력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묶고 쌓인 폐단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가고 있었다. 실제 그 무렵 내포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 상인은 내포 주민 절반 이상이 동학도였고, 동학에 대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충청도지역은 전라도와는 달리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충청감영과 병영에서 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동학도를 단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사형도 홍주지역에서 활동하다 6월 15일경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7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기병석이다. 실제 그는 11월 홍성지역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7,8월 홍주지역은 동학의 세상이 되다시피 하여 전사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병석의 사망월은 11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94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연도는 1895년이다. 모두 31명이 1895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가운데 19명이 1월에 사망하였다. 나머지 12명 역시 2-4월에 사망한 참여자가 성두한을 비롯한 10명, 12월이 1명, 불명이 1명이다. 12월에 사망한 참여자는 태안 출신의 장학성인데, 그는 체포되어 옥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명 1명은 최만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성두한은 사망월이 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전봉준 등과 재판을 받고 3월 30일 처형되어 2-4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1894년 12월에서 1895년 초에 사망한 경우는 실제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보다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관군이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2)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1997.

3) 洪鍾植, 「동학과 동학란」 『신인간』 34호, 1929.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단적인 예로 전라도 남원의 경우에도 사망자 대부분은 정부군이나 일본군이 떠나간 12월 5일 이후 다음해 초까지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⁴⁾ 이 때문에 충청지역 동학농민군 역시 1894년 12월에서 다음 해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았다.

1896-1899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6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이 1898년에 사망한 참여자이다. 그 가운데에는 서산지역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뒤 자결한 권옥련,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피신중 마을사람의 밀고로 관군에 체포되어 처형된 문영목, 충북 문의에서 도소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서상열, 그리고 1898년에 원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해월 최시형이 있다. 이 시기에 최시형을 비롯한 2명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황국협회를 동원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킨 대한제국 정부는 더한층 황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닉한 동학농민군들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존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참여자 현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기간에 사망한 참여자가 많은 것은 1900년에 사망한 참여자가 서상호, 서장옥, 손천민, 손영오, 이원팔 등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서장옥, 손천민, 이원팔은 관군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된 참여자로서, 모두 북접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대접주들이다. 이 역시 1898년부터 강화된 생존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1900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참여자의 사망연도가 집중되는 것은 1910년대 13명, 1920년대 16명, 1930년대 16명, 1940년대 19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였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노환에 따른 자연사이다. 동학농민군들이 1880년 전후 출생자가 많은 만큼, 1940년에 이르면 60세 전후이기 때문에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5세였던 것을 놓고 볼 때 이 시기에 사망연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이후에 사망한 참여자는 모두 13명이다. 모두 장수한 참여자들이다. 심지어 참여자 엄이경은 1875년생으로 1985년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111세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이후 사망한 참여자 대부분은 유족의 참여자 신청으로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그 이유는 늦게까지 생존하시어 후손들에게 구전을 전할 시간이 많았고 후손들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4) 남원군 천도교구, 『殉教略歷』, 1923.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여 지역과 활동

1)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참여자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충청도에서만 활동한 참여자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라도와 강원도·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도 포함하였다. 그 가운데 충청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충청도 120명, 충남 808명, 충북 226명 총 1,154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충남지역이 충북보다 3.6배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충남은 1894년 10월 세성산전투, 이인전투, 예산전투, 홍주성전투, 11월 공주 우금치전투, 논산전투, 한산·서천전투 등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대규모의 전투가 많았을 뿐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어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충북은 9월 청주성전투, 10월 괴산전투, 충주 안보전투, 11월 김개남부대의 청주성전투, 12월 보은 북실전투가 있었을지라도 관련 기록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에 참여하였던 동학농민군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직권 등록된 참여자가 소수이다.

〈표 4〉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지역

지역	충청도	충남	충북	전라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도	강원도	계
충청도	120									120
충남		808	2		2			2		814
충북		2	226	1	1	1	13			244
전라도	1									1
전북	1	17	2							20
전남	1	1	2							4
경북			10							10
경기도	4		6							10
강원도			5							5
계	127	828	253	1	3	1	13	2		1,228

충북지역 참여자 분포 현황은 〈표 4〉와 같다. 충북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는 247명으로, 충북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보은 > 청주 > 옥천 > 충주 > 청산 순으로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괴산	단양	문의	보은	영동	영춘	옥천	음성	음죽	제천
인원	5	2	8	62	11	5	29	12	3	4
지역	진천	청산	청안	청주	청풍	충주	황간	회인	계	
인원	5	16	3	46	3	25	1	7	247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었던 충북 보은·청주 등지는 10월 20일 전후에 주로 체포되어 사망하였다. 그 이유는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과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이 제일 먼저 충북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1천여 명의 장위영부대는 10월 9일 죽산을 출발하여 10월 11일 청주성에 도착하였다. 경리청부대도 전날 청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청주병영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북접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보은 장내리를 조속히 초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0월 13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과 경리청·진남영 병대는 보은 장내리로 총출동하여 14일 장내리를 초토화하였다. 손병희가 기거하면서 북접농민군 대도소로 사용하던 큰 기와집과 400여 채의 초막, 수백호의 민가는 모두 불탔다. 다행인 것은 장내리에 집결해 있던 북접농민군이 정부군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장내리를 떠나 옥천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공주 충청감영이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두황부대는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목천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정부군이 휩쓸고 간 충북지역은 또다시 일본군이 진입하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3개 중대는 10월 15일(양 11.12) 용산을 출발해 계획대로 작전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충북지역으로 출병한 일본군은 용인→죽산→청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남하하는 일본군 종로군과 이천→장호원→충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오는 일본군 동로군이었다. 서로군은 수원을 거쳐 천안→공주로 향하였다. 일본군 동로군은 예정대로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여 10월 24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강원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이동하였다. 그 이유는 충주지역의 경우 9,10월 충주지역 가흥과 안보 병참부 소속 일본군들이 어느 정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두한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들이 강원도로 이동한 데다 강원도 홍천 등지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규모가 확대되어, 일본군 동로 중대는 강원도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충북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을 한 일본군 후비보병은 종로군이었다. 종로군은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후보보병 제19대대 본부와 제3중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군대였다. 병력 규모도 조선의 교도중대 316명을 포함해서 총 520명에 이르렀다. 종로군은 10월 22일 진천에 도착해서 청주→문의→옥천을 거쳐 11월 10일 금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17일간 충북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일본군 종로군은 충북지역에서 체류한 17일 가운데 6일이나 문의에 머물 정도로 청주 주변지역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과 4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10월 26일 있었던 문의 지명전투는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이끄는 종로군이 직접 전투를 벌였을 정도이다. 문의 지명전투는 미나미가 직접 지휘한 종로군 본대의 첫 전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군 후비보병 중군은 공주 우금치전투가 끝난 11월 10일이나 가서야 금산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충북 중부지역은 충청병영인 진남영 소속 관군이 지속적으로 활동한 데다 10월에 정부군과

일본군이 연이어 진군하여 많은 동학농민군의 희생이 있었던 반면, 북부지역은 약간 다른 양상이었다.

9월 27일 새벽 6시 2천명의 동학농민군이 충주 안보병참부를 기습 공격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의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일본군 송파병참부 주둔병 20명이 지원병으로 9월 29일 가흥병참부에 도착한 뒤, 10월 1일 청풍지역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화력이 부족한 동학농민군은 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졌다. 성두한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단양→제천→영춘을 거쳐 강원도로 후퇴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떠나간 청풍지역에는 또다시 일본군이 진군하였다. 서울에서 10월 15일 출발한 일본군(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동로 분견대) 200명 병력이었다. 이들은 10월 19일 충주 가흥에 도착하자마자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수색하여 초토화시켰다. 먼저 충주 소태면 동막마을 동학 근거지를 소탕한 뒤 청풍으로 이동, 동학 지도자와 참여자를 찾아내 학살하고 집을 불태우는 등 철저히 보복하였다.

충북 북부지역은 일본군에 뒤이어 지역유생들이 조직한 민보군에 의해 또다시 철저히 파괴되었다. 제천 유생 서상무 등이 조직한 민보군은 11월 24일 성두한의 사촌인 성운환의 거점인 청풍 학현을 기습하여 13명을 총살하고 충주 적곡으로 가 성두한의 아버지 성종연을 체포하였다. 뒤이어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인 생춘전 마을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 20여 명을 총살하고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그리고 성두한의 아들과 처를 붙잡아 제천 감옥에 가두었다. 성두한은 어디선가 체포되어 1895년 2월 21일경 서울로 압송되어 전봉준 등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⁵⁾

이처럼 충북 북부지역은 중부지역과 달리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많이 희생된 점이다. 이는 충북 남부지역, 즉, 영동, 황간, 청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후술할 것이다.

충남지역 역시 지역별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충북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은 크게 천안권, 내포권, 공주권 셋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참여자 현황

지역	공주	결성	금산	남포	노성	논산	당진	대흥	덕산	면천
인원	82	5	5	9	1	13	3	19	8	8
지역	목천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신창	아산	안면도	연기	예산
인원	53	3	16	64	5	15	16	1	3	24
지역	온양	유구	은진	이인	임천	전의	정산	직산	진산	진잠
인원	28	28	16	13	2	1	7	15	2	6
지역	천안	청양	태안	한산	해미	홍산	홍성	회덕	효포	
인원	55	1	130	10	45	4	126	3	3	

5)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먼저 천안권은 확인된 참여자가 천안 55명, 목천 53명, 직산, 전의 1명, 온양 28명, 아산 16명, 신창 15명 등이다. 동학농민군 희생이 시작된 것은 9월 이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세성산전투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충북 보은 장내리를 초토화한 이두황부대는 곧바로 공주로 가지 않고 10월 16일 보은을 출발해 10월 20일 천안 목천으로 이동, 다음날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세성산에서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특히 세성산전투 이후 이두황부대 뿐 아니라 민보군에 의해 많은 동학농민군이 체포·살해되었다. 그 가운데 소모관 정기봉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기봉은 경기도 안성의 전주사로서, 안성·죽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로로 순무영에서 기전소모관으로 임명된 민보군이다.⁶⁾ 그는 세성산전투 다음 날인 10월 22일 목천 동리로 행군하였다가 세성산에 남아 있던 동학농민군 이희인, 한철영 등 60여 명을 포획하였다. 이희인은 좌우도 도금찰이었고, 한철영 역시 동학농민군의 우두머리였다. 그 외에 명색 있는 동학농민군 12명을 모두 총살하고, 나머지 50명은 귀화하기를 원하여 풀어주었다.⁷⁾ 정기봉은 23일에도 장돌용·안천복을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보냈다. 24일에는 목천 갈전면에 이르러, 그곳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해 총과 칼 100여자루를 노획하였다.⁸⁾ 이들 동학농민군은 모두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천안 의병장 윤영렬도 세성산전투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는데 가담하였다. 그는 천안에 사는 전감찰로서, 의병, 즉 동학농민군에 대한 민간 토벌대인 민보군을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10월 24일 천안 남쪽 소거리에 사는 김화성, 나채익, 홍치엽, 이선일 등 4명을 붙잡아 직접 심문하였다. 윤영렬은 이들 4명을 모두 직접 총살하는 한편, 김나귀, 김순경, 임만진 등 3명을 차례로 붙잡아 이두황부대에 인계하였다.⁹⁾ 그는 이 공로로 10월 27일 선봉진의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다.¹⁰⁾

그밖에 10월 22일 선봉진 별군관 최문환은 세성산전투에서 패한 뒤 돌아온 직산 대접주 이천여·김춘일·김용희 등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모두 효수되었다. 또 목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최창규와 김병현도 27일 최문환에 의해 체포되어 선봉진에 인계, 목이 잘리었다.¹¹⁾

이와 같이 순무영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공을 세운 인물들을 소모관·별군관 등으로 임명하고 이들에 의해 조직된 민보군은 현지 사정에 밝아 동학농민군을 손쉽게 염탐하고 체포할 수 있었다. 천안 지역에서 활약한 윤영렬 등은 그 이후에도 온양 등지로 이동하여 동학농민군을 수색·체포하는데 앞

6)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9월 26일조.

7)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2일조.

8)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4일조.

9) 「巡撫先鋒陣膽錄」, 『東學亂記錄』 하, 437-439쪽.

10)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27일조.

11) 「순무선봉진등록」, 475-476쪽.

장을 썼고, 직권 등록된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름 석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 체포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에서 참여자로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내포권이다. 내포권은 태안 130명, 홍성 126명, 예산 24명 등 많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었다. 내포지역이 참여자 등록이 많았던 것은 태안 출신 동학농민군 회고록인 『문장준역사』와 『조석헌역사』(1923)가 남아 있고, 1965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교자 명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이 박인호를 중심으로 격렬히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10월 1일 태안과 서산에서 각각 기포한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10월 24일 승전곡전투, 10월 27일 신례원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한 뒤 10월 28일 홍주성전투에서 수백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동학농민군 희생이 컸던 것은 이두황이 지휘하는 장위영군, 7월부터 조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홍주성 관군, 일본군, 민보군 모두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위영군은 11월 6일 덕산 가야동에서 도착한 이후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11월 10일 홍주성을 출발하여 공주로 이동하였다.

아카마츠 쿠니후(赤松國封) 소위가 이끄는 일본군 1소대는 10월 19일 아산을 도착하여 10월 24일 승전곡전투에서 패한 뒤 홍주성에 머물다 11월 9일 대홍을 거쳐 떠나갔다. 동학농민군 피해는 아카마츠소대보다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인솔하는 1개 중대병력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서산·해미·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라는 특별 임무를 받은 부대였다. 이들은 11월 4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아산에 상륙, 신창과 신례원을 경유하여 홍주성전투가 끝난 11월 7일 홍주에 도착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9일 1개 소대를 해미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던 동학농민군 수백명을 체포한 뒤, 그중 2명 참형하고 48명을 총대로 때려죽인 뒤, 11월 13일 홍주로 귀환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4일 1개 소대를 홍주에 남겨놓고 홍주를 떠나 해미로 향하였다. 도중에 숨어 있는 동학농민군 수십명을 잡자, 이들을 모두 홍주로 보내면서 홍주목사로 하여금 도착 즉시 신속하게 처형하도록 하였다. 해미에 도착한 야마무라대위는 14일 밤 일본군 11명과 조선인 순검 김용희, 그리고 해미의 민보군 21명(민병장 金龍山)을 서산으로 파견하여 잠복해 있는 동학농민군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나머지 일본군을 인솔하여 11월 15일 지름길로 태안으로 향하였다.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5일 오후 3시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본군 5-10명씩을 각지에 파견하여 동학농민군 1백명을 체포하였다. 이때 같이 온 해미의 민보군이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서산에 파견된 일본군도 동학농민군 84명을 잡아 태안으로 왔다. 야마무라대위는 동학농민군을 철야로 조사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 30명을 총대로 타살하는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런 다음 11월 16일 오후 2시반에 태안을 떠나 서산을 거쳐 인천으로 귀대하였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동학농민군들이 학살당한 뒤에도 홍주성 관군과 민보군에 의해 귀가한 동학농민군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특히 유림들이 주도하는 유희와 민보군 조직은 해산한 동학농민군에게 가장 위협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홍주성전투 이후 내포지역 민보군 실상은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홍주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파한 이후 또 태안·서산·해미에 유막(儒幕)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으며 ---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동학을 믿지 않으니 --- 태안·서산·해미에서 죄인들을 묶어서 유막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날마다 파다하게 퍼졌으며 홍주성 근처에 동학농민군들의 유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하였다. 저 홍주성은 동학농민군들의 저승이었다. 유막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길을 다니기가 지난날보다 더욱 어려웠으니 난세의 변화를 미리 헤아리기는 어려웠다.¹²⁾

홍주성전투 이후 태안·서산 등지의 유림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유막, 즉, 검문소를 설치한 다음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고 지도자급은 직접 처형하거나 홍주성으로 보냈다. 그래서 홍주성 앞은 동학농민군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정도이다. 게다가 그들은 민보군(유희군)이라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처형하였다. 특히 이들은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동학 활동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실제 해미에서 후퇴한 동학농민군들은 태안관아 뒤 백화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별군관 이창식이 이끄는 민보군 30명은 11월 13일 백화산을 공격하여, 유규희·최성서·최성일·안순철·피만석 등 5명을 체포하여 상부로 압송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법대로 처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많은 동학농민군들을 현장에서 처형하는 등 행패를 일삼고 되돌아갔다.¹³⁾

다음으로 공주권은 참여자로 등록된 동학농민군이 공주 82명, 부여 16명, 이인 13명, 은진 16명, 논산 13명, 유구 28명, 효포 1명 등 171명이다. 이들 가운데 142명이 직권 등록된 참여자로, 이들은 10월 23일 이후 전개된 이인·효포·우금치전투와 논산 황학대전투 등에 참여한 뒤 체포되어 이름 석자만 기록으로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참여자들이다. 유구에서는 28가운데 27명이 체포되어 11월 12일 동시에 처형되었고, 공주 82명 가운데 68명은 모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사망하였다. 부여 16명 가운데 5명은 마을 주민들에게 체포되어 관군에게 11월 19일 처형된 참여자이고, 5명은 7월 집강소기에 활동한 인물들이다.

12) 김현제, 『피난록』.

13) 『순무선봉진등록』, 12월 초8일, 10일.

공주권 참여자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로 사망한 시기가 우금치전투 이후이며, 또 하나는 충청감영이 있었던 공주 주변지역이었기 때문에 관군에 의해 직접 처형된 사례가 많았다.

2) 충청지역과 타지역 모두 활동한 참여자

앞의 <표 4>에서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활동한 참여자도 있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된 참여자는 모두 29명인데, 그 가운데는 전봉준, 여산 출신으로 공주·논산전투에 참여한 김경삼,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전봉준부대 일원이었던 송주성, 공주·원평전투에 참여한 최홍식 3형제, 청주성 공격 때 김개남부대 선봉진으로 활약한 강시원 등이 있다. 초기부터 전봉준과 뜻을 같이 해 공주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한 인물이 대부분이다. 실제 전봉준과 김개남부대에 편입되어 공주와 청주성 공격에 가담한 전라도 출신이 최소 수천명에 이를 텐데, 참여자로 등록된 인원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참여자는 23명인데, 이들은 모두 충북과 경북을 오간 인물들이다. 충북은 경북과 인접한 황간, 영동, 청산, 보은이고 경북은 상주이다. 이들은 상주에서 기포하여 활동하다 영동 등지에서 체포되거나, 반대로 영동 등지에서 기포하여 활동한 뒤 상주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사례이다. 실제 23명 가운데 4명은 12월 14일, 9명은 12월 22일 동시에 상주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상주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을 처형한 주체 역시 상주 민보군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9월 29일 상주에서 소모사로 임명된 정의묵이다. 그는 10월에 상주 유생 김석중을 소모영의 유격장으로 임명하여 유격병대를 조직한 뒤 11월부터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김석중이 이끄는 유격병대는 11월 말에서 12월에 고을 경계를 넘어 보은과 옥천 청산, 영동 등지를 수색하여 최시형을 찾아내 전과를 올리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동학도들의 집을 수색하거나 지도자급 인물의 경우 총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접농민군이 영동 용산전투와 보은 북실전투를 치루면서 최후를 맞이하는데 큰 타격을 가한 핵심 세력이였다. 이는 김석중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뒤 작성한 『토비대략(討匪大略)』에 생생히 나타나 있으며, 이 기록물에 보이는 많은 동학농민군이 직권등록되었다.

그밖에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활동한 인물은 12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다 12월에 수원에서 처형된 안교선,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동학농민군의 좌익장을 맡은 이종훈 등이 있다. 나머지는 주로 경기도 이천·안성 등지에서 활동하다 충청도에서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강원도와 충북을 오간 참여자가 5명인데, 그 가운데는 관동대접주 이원팔과 10월에 홍천과 충주에서 활동한 심상현·오창섭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강원도쪽은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지역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점인데, 이는 관동접의 지역영역이 강원도 남부와 충북 북부, 그리고 예천과 같은 경북 북부지역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충북 북부지역 최고 지도자는

성두한이었다. 그는 강원도 정선 등지의 동학농민군과 연대하여 강릉 선교장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두 세력이 연합한 것은 이원팔이 대접주로 있는 강원도 관동포와 연원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8월 하순 예천 보수집강소에서 동학도 11명을 생매장한 것을 징치하기 위해 예천 화지에서 동학농민군 대회를 열었는데, 이 모임에는 경상도 동학도 외에 관동대접주 이원팔을 비롯해 성두한도 청풍·단양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석한 일이 있었다.¹⁴⁾

4.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록 참여자는 <표 2>와 같이 131명이다. 이들에게서는 아래와 같은 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재판을 받은 경우이다.

<표 7>과 같이 체포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는 중요 인물인 경우 서울로 압송되어 정식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재판이 크게 두 시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895년에 집중되었는데, 교수형을 당한 성두한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체포된 참여자들이다.

그 다음 재판은 1898-19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최시형, 서장옥, 손천민이 재판을 받고 각각 교수형을 당하였다. 이들은 1880년대부터 동학교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도 긴밀하게 연관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체포되어 교수형을 받은 것은 1898년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한 대한제국 정부가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손병희가 감시를 피해 1901년에 일본으로 망명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7> 1895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재판을 받은 참여자

이름	출신	1894 나이	신분	직업	활동	재판(연도)
성두한	청풍	47	평민	농업	청풍·단양·영춘·제천에서 맹활약	교수(1895.3)
안창항	영춘	56	평민	농업	소백산에서 수도, 민간 선동	징역(1895.3)
조명운	천안	41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1895.3)
김치선	천안	45	평민	농업	천안서 일본인 살해	유배(1895.3)
임재수	단양	73	평민	농업	청풍지역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1895.3)
김영진	청풍	32	평민	농업	청풍에서 성두한과 함께 활동	유배(1895.3)
민진호	청주	34	평민	농업	청주에서 무기 탈취	징역(1895.3)
김순영	청산	71	평민	농업	청산에서 활동	징역(1895.3)

14) 신영우, 앞의 논문 참조.

손해창	영동	25	평민	농업	영동에서 활약	유배(1895.3)
성종우	영춘	48	평민	농업	강원도 정선·평창 등지에서 활약	유배(1895.4)
성운한	청풍	33	평민	농업	청풍·영춘·제천 등지에서 활약	징역(1895.4)
허 운	진천	52	평민	유학	진천 용소에서 활동	유배(1895.4)
황하일	보은	48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징역(1895.5)
임기준	공주	43	평민	농업	동학당 활동, 귀순	유배(1895.5)
김성원	당진	44	평민		동학농민 동원, 묘지 침해	징역(1896.11)
최시형	경주	68	평민		동학당 활동	교수(1898.7)
서장옥	청주	43	평민	농업	동학 남접의 우두머리	교수(1900.7)
손사민	청주	38	양반	학문	청주에서 활약, 우금치전투 참가	교수(1900.7)

*자료 : 총무처 정부기록부존소, 『동학관련판결문집』, 1994.

*혐의 없음으로 석방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둘째,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경우이다.

이들은 주로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 핵심인물들로서, 서장옥, 손천민, 손병희, 박인호,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최시형은 1898년 3월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2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손병희는 1897년 12월 제3세 동학 교주로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뒤 동학에 대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 교세를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에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는 1901년에 이용구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렇게 동학 교세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동학 재건 움직임이 가능하였던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동학도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동학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충청도에서 잘 알 수 있는 곳은 태안으로, 다음 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문장로(1846-1919)는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출신의 수접주로, 1894년 10월 1일 기포부터 10월 28일 홍주성전투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였다. 홍주성전투에서 패한 뒤 태안으로 돌아와 지목을 피해 토굴에서 숨어지냈다. 그러나 관군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아들이 대신 자진 체포되어 11월 15일 태안 관아에서 총살형을 당하였다. 그의 가족과 전답은 모두 몰수당하고 임야는 벌목되어 불탄 관아를 증견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뒤에서 문장로는 감시를 피해 토굴에서 8년을 지내다, 1900년에 동학지도부가 내린 조직 강화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장로와 그의 가족을 체포하면 포상한다는 방이 붙고 대대적인 색출 움직임이 있자, 1902년 2월에 안면도→원산도를 거쳐 홍성에 이르러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다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자 1904년 2월 공주 사곡면, 1908년 1월 공주 신상면을 거쳐 1910년대에 예산 신암면에 정착해 살면서도 동학 수련과 조직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에 9월 73세로 돌아가셨다.¹⁵⁾

15)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2016, 296-297쪽.

이런 사례는 문장로와 같이 활동하였던 조석헌(1862-193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태안 원북면 신두리 출신으로 갑오년에 9월 기포부터 참전해 승전곡전투→신례원전투→→ 홍주성전투 등에 참가한 뒤 혼자 떠돌다 우연히 대접주 박희인을 만나 같이 동행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극정성으로 박인호를 모시면서 동학의 맥을 이어갔다.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살면서 끝내 태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1915년에 예산 간양리에 정착하여 천도교에 헌신하다 1931년에 작고하였다.¹⁶⁾

최동석(1872-1948)은 청주 대주리에서 손병희·서택순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았던 접주였다. 그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족보에는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접주로 활약한 사실도 동네사람들이 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동석은 고향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동학·천도교를 이어가 오랫동안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냈다고 한다.

손필규(1870-1938)는 논산 은진면 남산리 출생으로, 1894년 7월에 동학에 들어가 초산접주로서 활동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동학 활동을 계속 이어가,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천도교 논산교구장이었던 손필규는 논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천도교 중앙조직과 연결된 특별 성미금 문제에 연류되어 투옥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1938년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준용(1860-1945)은 춘천 서면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 때 공주전투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농토를 팔아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학도인과 최시형 등을 도왔다고 한다. 1907년에는 의병전투에도 참가하였고, 1910년대에는 천도교 춘천교구 창립에 기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춘천교구장으로서 춘천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검거되어 1년 6개월 수감되기도 하였다. 출옥한 이후에도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45년에 작고하였다.¹⁷⁾

조영구(1867-1950)는 서천 출신으로, 1887년에 동학에 들어와 대접주가 되고 1894년 7월에 도집강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서천을 비롯한 ‘저산 칠읍’의 대접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바 있는데, 3.1운동 때는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다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어 20일간 수감되었고 귀향 뒤에도 서천경찰서에서 또다시 구타·구금되었다.¹⁸⁾

이병춘(1864-1933)은 임신 출신으로, 동학농민혁명기 전시기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최시형·손병희와 연계되어 동학·천도교 중요 인물로서 활동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3.1운동 때는 천도교 전주교구장으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3년간 투옥되었고 출감 이후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전달하다 체포되어 또다시 2년의 옥고를 치렀다. 현재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¹⁹⁾

16) 위 책, 474-475쪽.

17) 김응조 외, 『춘천의 3.1운동과 호암 이준용 선생』(큰나무, 2004).

18) 『조영구일기』.

이러한 사례는 천도교 청주교구장을 지낸 서우순(서택순), 음성교구장과 천도교종법사를 지낸 괴산의 이원익,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예산전투에 참가한 뒤 부상으로 귀가하여 1910년에 천도교 대성당 건축자금을 제공하고 3.1운동 때는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도 천도교 수원교구 일에 힘쓴 이병인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생존한 동학도들이 동학·천도교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 1910년대 천도교 부흥과 전국적인 3.1운동이 가능하였다.²⁰⁾ 특히 충청지역은 1880년대 이후 최시형이 동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진원지인 데다가 북접 동학교단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더욱이 최시형에서 충청도 출신 손병희·박인호로 동학·천도교 도통이 이어진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이 천도교로 이어진 지역적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충청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아 천도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 맥이 3.1운동에 닿는 인적 계보가 강하였다.

셋째,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 경우이다.

정부는 해산한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향약과 오가작통법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은 편히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대안은 집을 버리고 피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야만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장준(?-1923)은 태안 원북면 방갈리 출신으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그는 홍주성전투를 끝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나, 11월 15일경 체포된 뒤 보령 수영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 감옥에는 다른 동지들도 있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10여 일 보낸 뒤 엄형 취조를 받고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 문장준은 친척인 문장권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3일 동안 유리걸식하여 천행만고 끝에 방갈리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민보군의 지목은 갈수록 심해졌다. 언제든 민보군의 손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다. 결국 문장준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여를 비롯한 동지 5명과 가족을 데리고 태안에서 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광덕산 만복골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다. 이때 문장준과 같이 광덕산 만복골로 피신한 동학농민군은 이영규(1863-1915), 김봉호(1872-1954), 이선중(1875-1958), 함한석(1870-1938) 등이 있었다. 광덕산 만복골은 산이 높지 않으면서도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태안에서 피신한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집단 생활을 하다 다시 태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아산·예산 등지로 옮겨 살았다.²¹⁾

19) 정을경,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3.1만세운동」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9.

20) 위 발표자료집 참조.

21)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에서 접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 2016, 300-301쪽.

박병옥(1869-1904)은 고창 신림면 무림리 출생으로, 1894년 3월 무장기포 이래 전봉준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는 9월 이후 공주전투에서 패퇴한 뒤 내변산 깊숙이 잠적하여 7,8년 은둔생활을 하다가 어느 스님이 집에 연락하여 비밀리에 집에 돌아왔으나, 35세 되던 1904년에 별세하였다.²²⁾

이런 사례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매우 많았다. 향약과 오가작통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터전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과 논밭을 버리고 낫선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이후 생존한 참여자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거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 3.1운동에 참여한 예가 많았으나, 숫적으로는 고향을 등지거나 숨어지내며 가난과 삶의 역경을 이겨낸 참여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참여자들의 후손 역시 '역적의 자식'으로 불운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가난한 삶을 이어간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현재의 보답이 아닐 수 없다.

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부자료.

토론문 4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충청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지역별 참여자나 주도 인물, 지역별 활동과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왔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더욱 진전하기 위해서는 농민혁명의 큰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등록 참여자에 대해 한정되었으나 참여자에 대한 분석은 좋은 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표자는 한정된 자료에서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정된 자료에서 개별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상황과 인물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몇 가지 의문과 함께 고민해 볼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는 충청지역 출신으로 충청도에서만 활동한 참여자가 94%라고 분석하였다. 토론자 역시 충남지역 동학과 천도교를 연구하면서 이 지역에 국한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출신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든 천도교의 독립운동을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토론자의 추정으로는 지도층 몇몇을 제외하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활동에 대한 제약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출신지와 활동지가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처럼 높은 비율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학이라는 종교만의 특별한 제도나 조직 구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다음으로 발표자의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삶에 대한 분석이 가장 흥미로웠다. 토론자도 역시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문점에서 혁명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충남지역 동학농민군 분석을 통해서 논지를 전개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자료에 입각하여 추정할 때 당시 동학 교인수는 70~80만명으로 추정되며, 충남 출신 교인 명부를 통해 파악되는 동학교인은 1/10에 해당하는 2,237명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토론자가 집중했던 점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이후의 행적이었다.

충남 출신 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총살, 화형, 행방불명 등으로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인물 405명을 제외하고 천도교단에서 활동한 인물은 총 67명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 67명은 교단에서 활동한 내역이 확인되는 인물로 일정한 직책을 맡은 경우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수치라고 판단하였다. 특히나 이 67명 중 동학농민혁명 당시 접주 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농민군은 24명이었고, 충남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여러 차례 참여한 농민군도 18명이라는 점이였다. 즉, 80%가 넘는 인물들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천도교단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동학 내에서의 위치와 참여도가 천도교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의 혁명 이후의 참여자의 삶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한 추후의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토론자는 충남지역 천도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천도교는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재단의 등록 참여자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 지역별 교구에 남아있는 교인명단을 분석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발표자도 이 논문을 확장하여 참여자에 대한 폭넓은 분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참여자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이번 연구가 비교 분석된다면, 향후 충남, 충청지역의 참여자 분석이 더욱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함께 고민해 볼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는 출신지가 아닌 활동지를 고려하여 분류되어 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출신지가 우선이냐, 활동지가 우선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후대가 분류하는 기준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의 경우에는 출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직은 판단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연구자들이 고민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도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발표 5

경상도 지역 등록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 발표 | 신진희 (경국대학교 강사)

주제발표 5

1. 머리말
2.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
3. 경상북도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
4.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특징
5. 맺음말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

신진희

(경국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025년 3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참여자는 총 3,908명이고, 그 가운데 경상도 활동 인물은 227명(5.8%)이다. 주 활동지는 아니지만 경상도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는 인물이 18명인데, 이들까지 합하면 245명이다(〈표 1〉에서 괄호로 표기). 경상남북도 각 시군별로 구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경상도에서 활동(활동 흔적)한 등록 참여자의 시군별 인원 수

시군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도	합계
	거창	고성	곤양	김해	고령	구미	김산	김천	문경		
명	2	8	2	1	1	3	19	1	2	시군 미상	-
시군	남해	사천	산청	삼가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순흥		
명	3	2	1	2	1	58 (13)	1	11	1		
시군	양산	진주	하동	-	안동	영주	예천	의성	함창		
명	1	12 (1)	36 (4)	-	3	4	20	1	2		
합계	70(5)				127(13)						

각 시군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하동(36명, 경상도 활동 등록자의 15.85%, 경남 활동 등록자의 51.4%)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진주(12명, 5.29%, 17.14%)와 고성(8명, 3.52%, 11.43%)이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상주(58명, 경상도 활동 등록자의 25.55%, 경북 활동 등록자의 45.67%)에서 활동한 인물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예천(20명,

8.81%, 15.75%)과 김산(19명, 8.37%, 14.96%)이 뒤를 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참여자 3,644명을 ‘1차 등록’하였다. 경남에서 18명이, 경상북도에서 11명으로, 총 29(32)명이 등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남해 1명, 진주 1명, 하동 16명이고, 경북은 구미 2명, 김천 1명, 문경 2명, 상주 4명, 예천 2명이었다.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227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12.8%, 경상도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는 참여자를 포함(245명)한 경우에는 13.1%를 차지한다.

〈표 2〉 1차 등록 참여자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韓文出	구미	.	.	
2	韓貞敦	구미	.	.	
3	片甫彦	김천	.	.	도집강
4	鄭元燮	남해	.	.	
5	蔡洪禹	문경	예천	.	
6	黃基用	문경	예천	.	
7	金顯揚	상주	.	.	
8	金奎培	상주	보은	.	
9	金顯東	상주	보은	.	
10	金顯榮	상주	보은	.	대접주
11	尹致文	예천	.	.	
12	全基恒	예천	문경	.	모량도감
13	河聖夏	진주	하동	.	
14	金性在	하동	.	.	
15	金學斗	하동	.	.	접주
16	金華順	하동	.	.	
17	成洛周	하동	.	.	
18	申寬梧	하동	.	.	
19	申寬俊	하동	.	.	
20	梁箕煥	하동	.	.	
21	陸炳明	하동	.	.	
22	陸相奎	하동	.	.	
23	尹相俊	하동	.	.	
24	鄭洛元	하동	.	.	
25	河聖基	하동	.	.	
26	河聖源	하동	.	.	
27	河壽泰	하동	.	.	
28	趙升鉉	하동	진주	광양	
29	崔璣鉉	하동	.	.	
30	高光臣	구례	하동	.	
31	金公洙	보성	진주	.	
32	金仁培	정읍	순천	하동	대접주

2017년 12월 다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을 재개하여 현재 ‘2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 2명으로 남해·산청에서 각각 1명씩, 경북은 4명으로 고령·구미·상주·의성에서 각각 1명씩 참여

자로 등록되어, 총 6명이 등록되었다.

〈표 3〉 2차 등록 참여자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斗熙	고령	성주		
2	金鳳東	구미			
3	朴容弼	남해			대정
4	金壽碩	산청	하동		
5	趙南奎	상주			접사
6	千仁福	의성	안동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직권등록’을 통해 등록된 참여자들이다. 경상도 활동 등록 참여자 192(208)명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직권등록’은 사료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수행하고 있다. 유족들이 없거나 집안에서 동학농민군 활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그나마 사료가 남아 있어 직권등록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 경상도는 낙동강의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고 군사행정 상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하였다. 좌도는 경주에, 우도는 상주에 감영을 두었다. 우도의 감영은 다시 성주 팔거현, 달성 등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607년 대구에 감사가 머무는 처소를 두게 하면서 정착하였다.¹⁾ 다시 상주진·성주진·진주진·창원진·안동진·경주진·대구진·울산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²⁾ 이해를 위해 오늘날 지도 위에 표기하면 아래 〈지도 1〉과 같다.

〈지도 1〉 경상좌·우도 및 각진의 대략적인 영역



1) 『선조실록』 선조 40(1607)년 2월 14일 정미 3번째 기사(「하삼도의 감사 처소에 군량 등 물자를 보관하고 대구의 유민을 위무하게 하다.」)

2) 『세조실록』 세조 3(1457)년 10월 20일 경술 2번째 기사(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악·좌악·우악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군사적 목적인 鎭은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1894년에 맞춰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어 세조실록 1457년 10월 기사에 근거하여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울진은 당시 강원도에 속하였고, 등록 참여자가 없었다.

등록 참여자들의 활동지역은 대부분 경상우도였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었기에 포착된 활동이 더 많았을 듯하다. 경상좌도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고 가장 먼저 동학이 전파되었던 곳이지만, 1871년 ‘이필제의 난’으로 그 조직이 와해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아 등록 참여자가 많지 않다.

이 글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그 특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증언을 토대로 등록 참여자의 활동을 살피는 연구는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202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증언록으로는 『다시피는 녹두꽃』(1994,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1997,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고 사료들을 기초로 하여 위 등록 참여자들의 활동과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경상우도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

1) 상주진_함창·선산·개령·김산·문경·예천·용궁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 조직으로 활발했던 포는 예천·문경 일대의 關東包(이원팔), 상주·선산·김산 일대의 忠慶包(임규호), 상주·예천 일대의 尙功包(이관영), 선산·김산 일대의 善山包, 김산·개령 일대의 永同包 등이다.³⁾ 이 다섯 개의 포 조직들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곳이 상주진이다.

상주는 조선전기 경상우도의 감영이 있었던 곳이다. 상주진 관할 구역은 상주에 속해 있는 함창, 현재 구미지역인 선산, 김천에 속하는 개령·김산, 예천에 속하는 용궁·예천, 문경 등이다.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5개의 포가 활동했던 지역이기에, 등록 참여자도 105명으로 다른 경상도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수이다.

〈표 4〉 상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상주		선산	김천		문경	예천		합계
	상주	함창		개령	김산		용궁	예천	
명	57(13)	2	4	-	20(6)	2(1)	-	20(2)	105(22)

위 표에 있는 괄호 속 숫자는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해당 지역에서도 활동했던 등록 참여자의 수이다. 상주에서 활동한 13명은 모두 보은·영동·청산·황간 등 충청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주에서도 활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붙잡히거나 총살된 인물들이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활동한 점으로 보아 충청포에 속한 이들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김산에서 활동한 6명은 성주에

3)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8~9쪽 참조.

서도 활동하였던 인물이고, 문경에서 활동한 인물은 주로 예천에서도 활동했다. 또 예천에서 활동한 인물은 문경에서도 활동했던 이력이 확인된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보은·영동·청산·황간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표 5〉 상주진에서 활동한 중복 활동자 목록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權秉憲	상주	보은	청주	
2	金奎培	상주	보은		
3	金順汝	상주	청산		
4	金顯東	상주	보은		
5	金顯榮	상주	보은		대접주
6	南眞甲	상주	보은		
7	尹景五	상주	청산		
8	全明叔	상주	청산		
9	崔仁叔	상주	청산		
10	金民伊	보은	상주		접주
11	元性八	보은	상주		
12	李公益	보은	상주		접주
13	鄭千汝	보은	상주		접주
14	金慶學	영동	상주		
15	金興業	영동	상주		
16	金有成	청산	상주		
17	朴基俊	청산	상주		
18	安小斗劫	청산	상주		
19	池尙泉	청산	상주		
20	金士文	황간	상주		
21	申允石	황간	상주		
22	李尙信	황간	상주		
23	金尙弼	성주	김산		
24	金致瑞	성주	김산		
25	李五哲	성주	김산		
26	李應元	성주	김산		
27	全命俊	성주	김산		
28	玄卜萬	성주	김산		
29	全基恒	예천	문경		
30	蔡洪禹	문경	예천		
31	黃基用	문경	예천		

〈표 3〉 “상주()”는 상주를 주 활동지로 삼지 않았지만 활동한 인물들의 숫자를 적어놓았다. 〈표 4〉에서는 상주진 지역에서 활동한 모든 등록 참여자들의 목록이다. 전기항·채홍우·황기용 등은 문경 혹은 예천에서 활동하였지만 활동지역 1 혹은 2였기에 다르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주·보은·청주 등 충청도와 경상도를 아울러 활동한 권병덕權秉惠(1868~1943)에 대해 살펴보자.⁴⁾ 그의 본관은 안동, 호는 청암淸菴·정암貞菴·우운又雲이다. 청암淸菴은 1918년에 받은 도호이다.⁵⁾ 그는 아버지 권문영權文永과 어머니 신문화申文嬋의 아들로, 외가가 있던 충북 청원에서 태어났다. 1883년 원세화元世華의 큰딸과 혼인하고 다음해 상주에 신흠살림을 차렸다. 18세에 임규호任奎鎬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했으며, 1886년 청주접주로 임명되었다. 1893년 2월 복합상소와 3월 보은취회에도 참여하였다.⁶⁾ 1894년 3월 10일 청산군靑山郡 포전리浦田里 김연국金演局의 집에서 손병희孫秉熙·이관영李觀永·권재조權在朝·권병덕·임정재任貞宰·이원팔李元八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였다. 1894년 4월 당시 청산접주로 활약하였다.⁷⁾ 1895년 기록에는 그가 상주를 담당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⁸⁾ 그가 충청도에서 태어나 상주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손병희가 1905년 12월 천도교를 일으키자, 권병덕은 천도교의 전제관장(典制觀長)·이문관장대리(李文觀長代理)·금융관장(金融觀長)·보문관장(普文館長) 등을 역임하였다. 권병덕은 잠시 천도교를 떠나 시천교에 몸을 담았다가 1916년 다시 천도교로 돌아왔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⁹⁾ 출옥 후에는 천도교 종리원(宗理院)의 서무과 주임을 거쳐, 중앙교회 심계원장·감사원장·선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922년 손병희가 사망하고 천도교가 구파(독립투쟁)와 신파(일제 통치 수용)로 나뉘어 갈등할 때, 권병덕은 천도교 구파와 함께 활동하였다.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고, 1928년 2월 신간회 대구지회에서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족운동과 신간회의 미래에 대해 연설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일제의 민족말살통치에 대응하여 역사책을 저술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이조전란사李朝戰亂史』, 『조선총사朝鮮總史』를 들 수 있다. 『조선총사朝鮮總史』는 신라 때 일본에 사신을 가서 볼모로 잡힌 왕자를 탈출시키고 죽음을 맞은 박제상, 고려 때 일본 정벌군에 참여하여 무용을 보인 김방경, 한국과 일본의 강제 병합을 전후로 하여 나라를 위해 활약한 애국지사 최익현·민영환·전명운·장인환 등의 활약을 담고 있었다. 일제는 이를 문제삼아 『조선총사朝鮮總史』에 대해 삭제처분을 내렸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¹⁰⁾

4) 이원섭,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에서 권병덕 자료가 2004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있다고 한다.

5) 「第三編 義菴聖師(1918.04.13.)」, 『天道敎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6) 「第十章 爲師訟冤」, 『侍天敎宗釋史』(『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7)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淸戰役」,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8)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9)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08.01.) ; 「판결문」(고등법원, 1920.03.22.)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0.08.09.)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0.30.) ; 「형사사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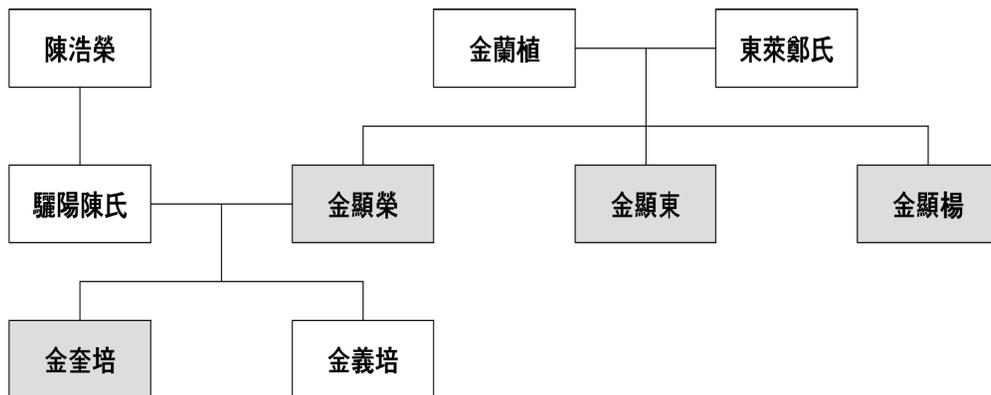
10)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참조.



권병덕_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상공포는 상주 功東面과 功西面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친 포이다.¹¹⁾ 다만 그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밝힌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상주 모서면 대접주 김현영金顯榮는 아들 김규배金奎培, 동생 김현동金顯東·김현양金顯楊과 함께 상주읍성을 점령하고 보은전투 등에 참여한 인물이다.

〈표 6〉 김현영 가계도(金海金氏京派統合譜所, 『金海金氏京派統合譜』, 1991)



이들 부자·형제 외에도 보은까지 가서 활동한 인물은 남진갑南眞甲, 권병덕權秉憲이 있다. 상주에서 활동한 인물 가운데 최시형이 머물렀던 청산에서 활약한 인물들도 확인된다. 김순여金順汝·윤경오尹景五·전명숙全明叔·최인숙崔仁叔이 그들이다. 이들은 상주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청산에서 기포를 준비하던 중 잡혀서 12월 14일 상주에서 총살되었다.¹²⁾

11)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2쪽.

12)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김천은 1894년 당시 김산·지례·개령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현재 김천시내에는 1894년 당시 김산에 속하는 곳이었다. 김산에서는 1894년 8월부터 동학농민군이 활동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죽전(竹田) 남정훈(南廷薰), 진목(眞木) 편보연(片輔彦)·편백현(片白現)을 들 수 있다.¹³⁾ 도집강 편보연은 충청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¹⁴⁾

김천장터에 도소를 세우고 활동했던 도집강 편보연片甫彦은 10월 대구에서 파견된 병정 200명과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졌다.¹⁵⁾ 12월 25일 김천시장에서 총살되었다. 이날 죽은 이는 편보연, 남정훈 등 외에도 20명에 이른다고 한다.¹⁶⁾ 김산 일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편보연만 후손이 확인되고 나머지 18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인물들 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기포령이 내려진 후 김산 동학농민군은 선산읍성과 해평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영동포와 선산포가 합세하여 9월 22일 선산읍성을 점거하였다. 향리가 해평 일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군 병참부 주둔병은 기습을 감행해 왔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패하여 선산읍성을 내어줬다.¹⁷⁾

선산에서 활동한 인물은 김봉동金鳳東(1862~1947)·한문출韓文出·한정교韓貞教·신두문申斗文이다. 김봉동은 『도암세고桃巖世稿』의 「略歷」과 1940년대에 작성한 제문에 그의 선산 동학농민군 활동과 패하여 흩어진 사건을 입증할 수 있었다.¹⁸⁾ 신두문은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10월 14일 선산에서 붙잡혀 24일 총살된 기록이 남아 있다.¹⁹⁾ 선산포의 대접주가 확인되지 않는데, 신두문이 대접주의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²⁰⁾

문경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을 한 인물은 채홍우蔡洪禹와 황기용黃基用이다. 채홍우는 인천채씨이고, 황기용(죽보명 基仁)은 장수황씨이며, 경북 문경 산북면 석봉리 출신이다. 석봉리는 관동수접주 최맹

13) 崔鳳吉, 「甲午八月」,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4)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1쪽 참조.

15) 崔鳳吉, 「甲午十月」,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6) 崔鳳吉, 「甲午十二月」,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17)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34쪽 참조.

18)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遯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2016, 17·23쪽 ; 金瑣祚, 「桃巖世傳(필사본)」, 檀紀4340(2007), 10~11쪽.

19) 「甲午十一月」,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8) ; 「甲午十一月」,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8) ; 「甲午十一月十二日 到付」,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甲午十二月二十六日 到付監營移文」,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도착한 순영의 이문」,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 兩湖都巡撫營, 「소모사 정의목이 베껴서 보고 함」_12월 6일,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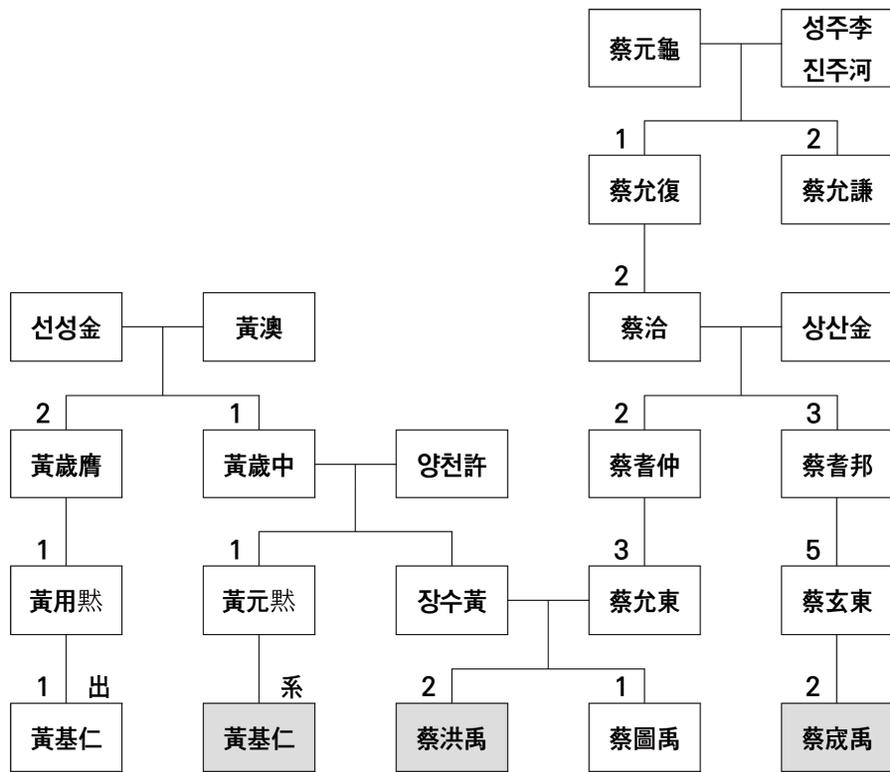
20)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2쪽 참조.

순이 용기상을 가장하여 동학을 포교하였던 소야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 1894년 당시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던 석문과도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천 동학농민군과 활동을 함께 하였다.

석봉리에서 예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물은 채홍우, 황기용, 채성우蔡成禹이다. 등록 참여자는 아니지만, 채성우는 채홍우와 재종형제지간으로²¹⁾, 채홍우의 전사소식을 집에 전달한 인물이다. 이들은 증조할아버지인 채흠蔡洽의 둘째 아들 채기중蔡耆仲과 셋째아들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이다.²²⁾

채홍우와 황기용(족보명 황기인黃基仁)은 사촌지간이다. 채홍우의 어머니가 장수황씨이고, 황기용의 양부養父인 황원묵黃元默의 누이이다.²³⁾ 즉, 채홍우의 외사촌이 황기용이고, 황기용의 고종사촌이 채홍우인 것이다.

〈표 7〉 채홍우-황기용 가계도(『仁川蔡氏大同譜』 참조)



21) 『仁川蔡氏大同譜』 卷之二, 1977, 177~181쪽 ; 『仁川蔡氏大同譜』 卷之七, 1977, 46~54쪽.
 22) 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252쪽에는 채원묵蔡元龜의 아들인 채윤복蔡允復과 채윤겸蔡允謙의 후손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채흠蔡洽의 아들인 채기중蔡耆仲과 채기방蔡耆邦의 손자들로 수정한다.
 23)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1981, 27쪽(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252쪽 재인용). 황세중黃歲中은 1남4녀를 두었는데, 아들인 황원묵黃元默은 자식이 없어 황기용(황기인)을 양자로 들였다. 첫째딸은 가평이씨, 둘째와 셋째딸은 인천채씨, 넷째는 진주강씨와 혼인하였다. 둘째딸이 채홍우의 어머니이다.

예천은 관동포 대접주 이원팔李元八의 영향을 받았고, 그 조직을 확대한 것은 수접주 최맹순이었다.²⁴⁾ 최맹순은 강원도 춘천사람인데 예천에서 옹기상으로 위장하여 동학농민군 활동을 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문경에서 붙잡혔고 다음날 아들 최한결과 함께 처형되었다. 예천이 관동포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3일 예천 금당실에 금곡포덕소가 설치되고, 20일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소에 사통을 보내 예천읍을 공격하자는 의견이 진행되었다. 關東大接과 尙北·용궁·忠慶·예천·안동·豊基·榮川·상주·함창·聞慶·丹陽·淸風의 13접주가 상주 山陽과 예천 금곡 및 花枝에서 대회를 열었다. 상주진은 상주 산양, 예천 금곡, 화지에서 경상도·충청도·강원도 각 접이 모여 예천읍을 공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경상도·충청도·강원도 3도의 동학농민군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그 특징을 유추할 수 있을 듯하다.

〈지도 2〉 상주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주를 중심으로 위로는 예천이 중심이 되었고, 아래로는 김천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군이 움직였다. 외부에서 유입된 동학농민군과 그 지역 출신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움직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예천의 동학농민군은 안동진으로, 선산과 김산의 동학농민군은 성주진으로 진출하였다.

상주진 동학농민군은 충경포·영동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상주 동학농민군과 관동포의 영향을 받은 예천의 동학농민군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상주진은 상주를 기준으로, 위로는 예천 동학농민군의 활동, 아래로는 상주-김천-선산-성주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연결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4)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10쪽 참조.

25) 「정월 19일 경영에 보낸 보이」,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26)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2) 성주진_초계·합천·거창·고령·지례

성주진은 성주·합천·초계·거창·고령·지례를 포함한 지역이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주진의 김산·선산 동학농민군과 성주 동학농민군, 충청도·전라도 동학농민군의 영향을 모두 받았을 것이다.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14명이다. 성주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성주에서 활동한 11명은 대부분 김산에서도 활동한 인물들이다.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 등 6명은 성주에서 활동하다가 1895년 1월 24일 김산에서 포살당한 인물이다.²⁵⁾

〈표 8〉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성주	합천		거창	고령	김천 지례	합계
		초계	합천				
명	11(1)	-	-	2	1	-	14(1)

성주진과 관련된 사항을 『세장년록歲藏年錄』에서 살필 수 있다. 성주는 아전들이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죽였고 이에 동학농민군이 총과 창을 들고 대마 시장에 모였고, 뒤이어 상주부 안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인가가 불에 탔다. 지례현감知禮縣監 이재하李宰夏가 동학농민군 활동을 엄금하여 몇 사람을 결박해서 형틀을 채우고 가두자, 동학농민군이 사방에서 지례 동헌으로 들어가 지례현감을 위협했다는 것이다.²⁶⁾ 장여진의 경우 동학농민군 좌익장으로서 성주 함락에 참여했다가 황간에서 체포되어 총살되었고, 김두희金斗熙의 경우 고령과 성주 등지를 다니면서 보급품을 전달했다.

〈표 9〉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姜基万	거창			
2	吳聖瑞	거창			
3	金斗熙	고령	성주		
4	金尙弼	성주	김산		
5	金致瑞	성주	김산		
6	文龍云	성주			접주
7	徐達龍	성주			접주
8	孫千八	성주			
9	李五哲	성주	김산		
10	李應元	성주	김산		
11	張汝振	성주	황간		좌익장
12	張義重	성주			
13	全命俊	성주	김산		
14	玄卜萬	성주	김산		

위의 표는 성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목록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주진 활동 동학농민군은 김산 등 상주진의 동학농민군과도 관련이 깊어보인다. 다만 등록 참여자는 많지 않아 분석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성주는 8월 23일 동학농민군이 읍내로 들어왔는데, 전라도 경계에 살던 사람들과 성주 동학농민군이 합세하고, 거기에 황간에서 온 동학농민군도 함께하였다. 이들이 모였던 곳이 성주 대마장터[代馬市]였다.²⁷⁾ 성주목사 오석영吳錫永은 놀라 대구감영으로 가서 경상감사 조병호趙秉鎬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하였다.

성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김상필金尙弼·김치서金致瑞·이오철李五哲·이응원李應元·전명준全命俊·현복만玄卜萬·장여진張汝振·문용운文龍云·서달용徐達龍·손천팔孫千八·장의중張義重 등이다. 문용운·서달용은 8월 28일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성주관아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거창에서 활동한 강기만姜基萬과 오성서吳聖瑞는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하다가 12월 거창민보군에게 피살되었다.²⁸⁾ 거창의 민보군을 결성한 인물들은 전감찰前監察 신세해愼世海, 전사과前司果 유영환兪永煥, 전도사前都事 이현규李鉉奎, 전주사前主事 이준학李埈學, 전중군前中軍 정찬건鄭燦健,²⁹⁾ 거창유학居昌幼學 강달주姜達周, 전거창부사前居昌府使 소모사召募使 정관섭丁觀燮 등이다.³⁰⁾ 강기만과 오성서를 “두령頭領”³¹⁾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을 통솔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지례는 현재 김천시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김산과 함께 동학농민군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지례현감 이재하가 1895년 1월 5일 총살한 동학농민군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본현 남면南面의 백성 등이 붙잡아낸 비류가 네 놈인데 그 가운데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 등은 작년 8월에 패거리를 거느리고 고을에 들어와서 관문官門에서 말뚝을 부리고 촌리村里에서 재물을 토색하였고 또 성주星州·금산錦山·황간黃欄·영동永同에서 작변作變할 때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자복을 받아낸 뒤 정월 초5일에 모두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신채봉申彩鳳은 위협을 당하여 도당에 들어간 것을 뚜렷하게 해명하였기 때문에 신칙하여 풀어 보냈습니다.”³²⁾

이 기록을 통해 지례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성주·금산·황간·영동 등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에서도

27) 「甲午八月」(1894년 8월 초6일자,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34~35쪽 참조.

28) 朴衡采, 「第十一章 甲午教厄」, 『侍天教宗繹史』, 1915,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29,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29) 「義旅」, 『東學黨征討人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30) 『甲午軍功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31) 康弼道,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東學道宗繹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32)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덕金在德·김성봉金成奉·이홍이李洪伊·신채봉申彩鳳 등 네 명의 동학농민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참여자가 아니지만,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등록 참여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진주진_사천·곤양·하동·남해·단성·산음·의령·함양·삼가·안음

진주는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 대접주 김인배金仁培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893년 보은집회에서 하동집 50여 명과 진주집 60여 명이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다.³³⁾ 서부 경남의 동학농민군은 백낙도白樂道(白道弘)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최시형의 명을 받아 진주에서 손웅구·고만준·임정룡·임말룡 등 수천 명에게 동학을 전파하였고 보은집회 이후 진주 덕산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³⁴⁾ 1894년 1월 12일 함안을 시작으로 16·17일 사천, 3월 말 김해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³⁵⁾ 등록 참여자의 비중을 보면 진주와 하동이 중심이었다.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0〉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합계
		사천	곤양			단성	산음		함양	안음		
명	12(2)	2	2	36(6)	3	-	1	-	-	-	2	58(8)

진주와 하동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가장 많다. 하동이 36명으로 진주진에서 활동한 58명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마 고승산전투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동, 진주 외에도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의 참여자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와 활동한 이들도 진주와 하동에만 있고 사천·곤양·남해·산음·삼가 등에서 활동한 인물은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한 이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33) 어윤중, 「宣撫使再次狀啓」, 『聚語』(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2쪽 재인용).

34)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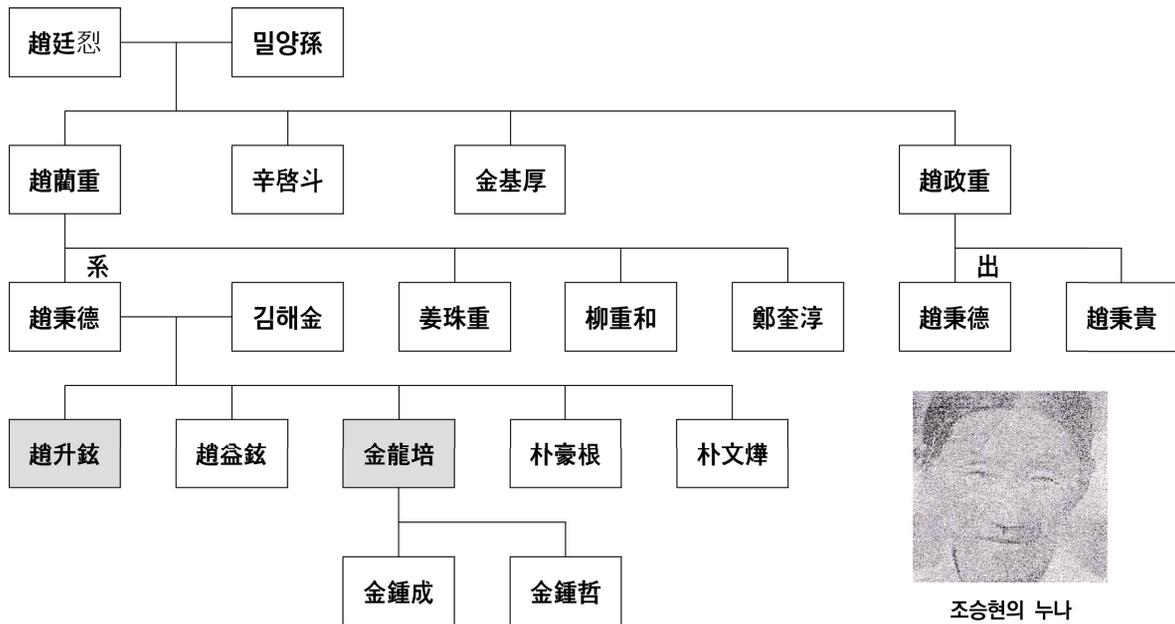
35)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1쪽.

〈표 11〉 진주진에서 활동한 중북 활동자 목록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仁培	정읍	순천	하동	대접주
2	河聖夏	진주	하동		
3	趙升鉉	하동	진주	광양	
4	高光臣	구례	하동		
5	金壽碩	산청	하동		
6	金以甲	순천	하동		도접주
7	沈松鶴	여수	하동		도집강

중북 활동자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다. 다만 활동지역만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을 듯하다. 이들 중 여러 곳에서 활동한 조승현趙升鉉(1870~1948)을 살펴보자. 조승현은 김인배의 처남이다. 김인배와 혼인한 김제조씨는 무진생으로 1868년생이다.³⁶⁾ 김인배金仁培(족보명 金龍培)는 조승현의 매형이 된다. 김인배의 아내인 김제조씨의 사진이 남아 있어 가계도 안에 넣었다.³⁷⁾ 가계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2〉 조승현 가계도(www.gimjecho.com 참조)



하동·진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들은 대부분 영호대도소 김인배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동접주는 여장협余章協이다. 8월부터 하동의 민보군이 반격에 나섰고 접주 여장협은 영호대도

36) 『金堤趙氏大同譜』上卷, 檀紀4307(1974), 498~199쪽;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1991, 881~882쪽; 김제조씨대중회 홈페이지(www.gimjecho.com) 참조.

37)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9~260쪽.

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³⁸⁾ 이에 영호대도소 김개남金開南이 하동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대일항전이 시작되었다. 총대장 김인배金仁培와 부대장 유하덕劉夏德이 직접 영호대도소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1894년 9월 1일 새벽 하동부를 점령한 동학농민군 중 김인배가 이끄는 주력부대는 5~6일 간 하동에 머물다가 진주방면으로 진격하였다. 9월 15일 곤양을 점령한 김인배는 곤양 동학농민군과 함께 진주로 향했다.³⁹⁾

곤양접주는 김학두金學斗이고, 등록 참여자로서 곤양에서 활동한 2명은 김성룡金成龍, 장학용張鶴用이다. 김성룡은 10월 곤양에서 포를 일으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⁴⁰⁾ 장학용은 곤양 외에도 광양에서도 활약하다가 붙잡혀 12월 총살되었다. 광양현에서 붙잡힌 동학농민군의 명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곤양 출신자 임재석林在石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⁴¹⁾

10월 들어 동학농민군은 관군에 쫓겨 순천으로 후퇴, 22일 다시 진격해 섬거역에서 일본군 관군과 함께 싸움을 벌였다. 패한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후퇴했고 11월 10일 좌수영으로 진격했다. 16일과 20일에도 좌수영을 공격했으나 입성에 실패했다.

12월 일본군·관군이 동학농민군을 광양으로 밀어붙였다. 6일 밤 김인배는 처남 조승현을 불러 “장부가 死地에서 죽음을 얻는 것은 오직 떳떳한 일이요 다만 뜻을 이루지 못함이 한 이로다. 나는 공생동사를 맹세한 동지들과 최후를 같이 할 것이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시오”했다. 이에 조승현은 광양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김인배는 부대장 유하덕劉夏德 등 90여 명이 붙잡혀 포살당했다. 광양읍의 빙고등氷庫嶺이 당시 동학농민군 포살장이었다고 한다. 김인배의 아내이자 조승현의 누나 김제조씨는 어린 첫 아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둘째 아들을 임신한 몸으로 행상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⁴²⁾

진주는 9월 1일 동학농민군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활동하였고 8일 73개 면민 대집회를 읍내 장터에서 열고 충청대도소를 설치하였다. 17일 영호대도소 선봉부대가 진주로 들어왔고 18일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들어왔다. 진주병사 민준호閔俊鎬는 진주성문을 열고 동학농민군을 맞이하였다.⁴³⁾

38)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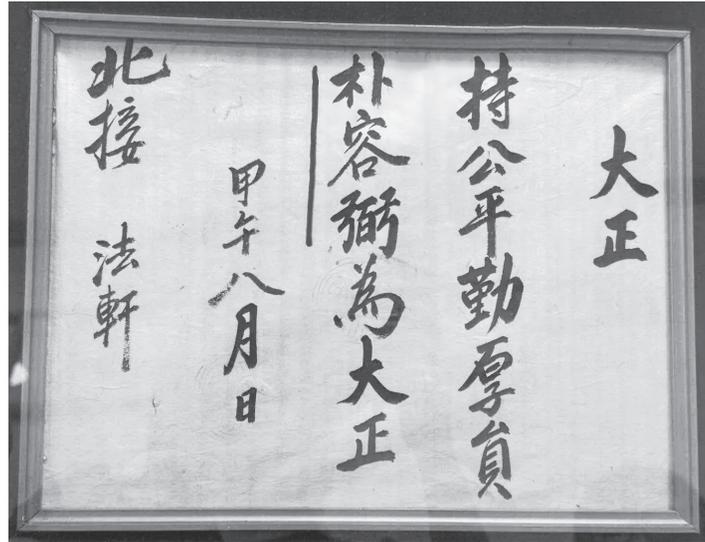
39)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44쪽.

40) 「第二編 海月神師」, 『天道教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41) 統理衙門 編, 「甲午十二月 日」,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42)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259~260쪽 참조.

43) 「兵荒三之四」, 『柏谷誌』(『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박용필 대정 임명장

남해에서 활동한 등록 동학농민군은 3명이 확인된다. 대정大正 박용필朴容弼(1854~1939), 정용태鄭龍泰, 정원섭鄭元燮(1873~1945)이 그들이다. 박용필은 1894년 8월에 최시형으로부터 대정大正으로 임명받았다. 박용필을 대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보면 흐릿하지만 도장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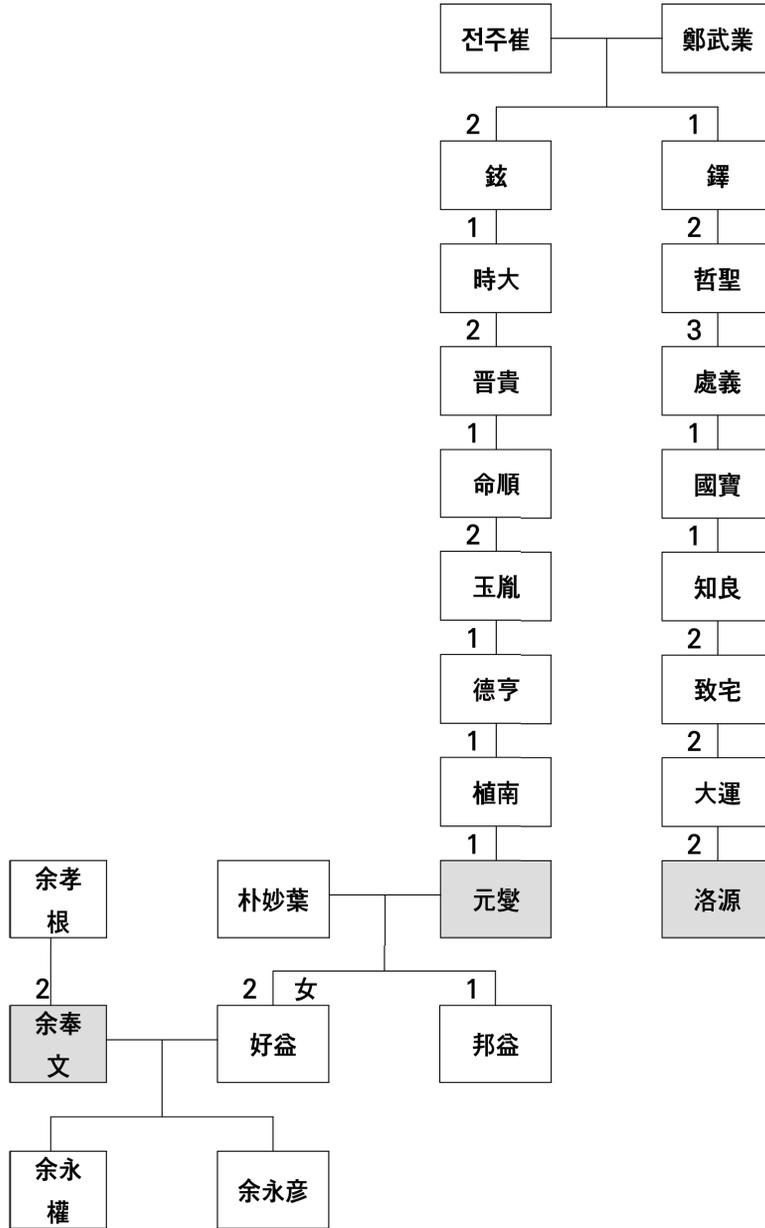
특이한 인물은 정원섭이다. 그는 하동접주 여장협余章協의 장인이라고 한다. 진양정씨 족보를 보면 정원섭은 부인 밀양박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장녀인 鄭好益(1903년생)이 여효근余孝根의 아들인 여봉문余奉文과 혼인하여 여영권余永權, 여영언余永彦을 두었다고 한다.⁴⁴⁾ 제적등본에는 정호익의 아버지는 정원섭, 어머니는 박묘엽朴妙葉이고, 여효근의 둘째 아들인 여봉문과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남해 출신으로 하동에서 전사한 정낙원鄭洛元도 진양정씨 일가다.

44) 『晉陽鄭氏世譜』卷四,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199쪽.

45) 「정원섭 제적등본」

46) 慶尙監司, 慶尙監營, 「甲午十二月二十八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표 13〉 정원섭, 정낙원 가계도



여장협余章協은 하동접주로 하동에서 활약한 인물이고, 하동 민보군의 반격을 받아 영호대도소에 지원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의령여씨 족보에는 정원섭의 딸 여호익이 혼인한 여봉문이 여장엽余將燁으로 표기되어 있다. 직권등록되어 있는 인물이 여장협余章協이기 때문에 余章協이 余將燁과 동일인물인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동접주 여장협余將燁의 다른 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장엽이 하동접주 여장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듯하다. 다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하동에서 활동한 6명도 있다. 고광신高光臣은 광양 영호도회소 접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으나 광양 옥곡에서 하동 민보군에게 붙잡혀 처형되었다. 고광신과 함께 처형된 인물이 박정주朴正周·류윤거柳允學·박사영朴士永·김백현金伯賢·김선준金先俊 등이다.⁴⁶⁾

진주·하동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경우, 대부분 1894년 (음)10월 14일 일본군과 벌였던 고성 산전투와 관련이 된다. 이 전투는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여 동학농민군 즉사 186명, 생포 2명 등으로 동학농민군의 피해가 컸던 전투이다.⁴⁷⁾ 이 전투에서 부자간, 형제간 참전한 사례도 꽤 많다. 진양하씨 집안의 인물들인 하수태(河壽泰, 1861~1894)와 같은 마을 출신인 하성원(河聖源, 1842~1903)·하성하(河聖夏, 1849~1886)·하성기(河聖基, 1855~1932) 삼형제, 사천 동학농민군으로 고성산전투에서 전사한 육상규(陸相奎, 1854~1894)·육병명(陸炳明, 1874~1894) 부자(父子), 윤상준(尹相俊)·윤상선(尹相善) 형제, 양태환(梁台煥)·양기환(梁箕煥) 형제, 신관오(申寬梧)·신관준(申寬俊) 형제 등이 그러하다.

4) 창원진_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

창원진은 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를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전라도와 접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형묵이 남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 근거하여 고성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이 포착될 뿐이다.

〈표 14〉 창원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창원	김해	고성	진해		함안		거제	합계
				진해	웅천	칠원	함안		
명	-	1	8	-	-	-	-	-	9

김해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김동명金東明이 유일하다. 김해접주로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나섰던 인물이다.⁴⁸⁾ 같은 자료에 “동소 송문수宋文洙”라고 적힌 것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소”은 앞의 “김해접주”로 판단되지만, 접주가 2명인 것인지 아니면 “접주”라는 표현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5〉 창원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東明	김해			접주
2	姜渭弼	고성			접주
3	金相憲	고성			
4	金日洙	고성			
5	朴奎信	고성			
6	朴文璣	고성			
7	李應道	고성			접주
8	鄭大權	고성			
9	崔應七	고성			

고성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는 8명이다. 강위필姜渭弼과 김일수金日洙는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29)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 김상헌金相憲, 박규신朴奎信, 박문기朴文璣, 이응도李應道, 정대권鄭大權, 최응칠崔應七 등 6명은 오횡목이 남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최응칠을 장두狀頭로 삼아 1894년 9월 13일 고성에 들어가 포랑미를 수송하였다. 관군의 추격을 받고 잡히지 않은 인물은 김상헌·박규신이고 4명은 모두 잡혔다. 박문기는 수감되었고, 이응도·정대권은 진주에서 총살되었다. 장두였던 최응칠은 진주가 아니라 통영에 수감되었다. 창원진은 경상우도의 상주진·성주진·진주진에 비해 동학농민군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 하지만 창원부사 이중서李鍾緒가 소모사로 임명된 점, 오횡목이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을 남긴 점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경상좌도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

경상좌도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곳이고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다. 이곳을 안동진·경주진·대구진·울산진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주진·대구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없고, 울산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도 양산에서 활동한 1명 뿐이다. 경상좌도 전체에서 등록 참여자는 11명 뿐이다. 따라서 작은 제목 없이 서술하도록 하겠다.

〈표 16〉 경상좌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번호	이름	활동지역 1	활동지역 2	활동지역 3	비고
1	金昌奎	순흥			
2	金庶公	안동			
3	金漢丕	안동			
4	黃默伊	안동			
5	權快男	봉화			
6	金基周	영주			접주
7	金善在	영주			접주
8	金載德	영주			접주
9	金化七	영주			접주
10	千仁福	의성	안동		
11	黃斗化	양산			

이 가운데 등록 참여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안동진이다. 안동진은 풍기·榮川·봉화·의성·예안·진보·청송·군위·비안을 관할하였다.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후 각 지방에 접주를 두었는데, 안동에

47)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_(4)晋州附近 東學黨擊破 詳報 送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48) 康弼道,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는 이무중李武中이 있었다.⁴⁹⁾ 예천 동학농민군 활동에 자극받아 동학농민군이 움직인 곳이다. 안동과 영주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이 확인되지만 후손이 신청한 경우는 의성의 천인복千仁福 외에는 없다.

〈표 17〉 안동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

시군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군위	합계
	안동	예안	진보	풍기	榮川		의성	비안			
명	3(1)	-	-	-	5	1	1	-	-	-	10(1)

1894년 예안현에 살고 있던 이만도李晩燾(1842~1910)는 자신의 일기인 『향산일기響山日記』 7월 28일자에 동학농민군 40명이 예천 이유태李裕泰와 장석유張錫裕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고 풍기에 들어가 榮川[영주]의 정동기鄭東箕에게 재물을 빼앗았으며, 동학농민군 70명이 영주에서 순흥으로 들어가 부호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⁵⁰⁾ 이 일기를 통해 영주[순흥, 풍기, 榮川] 지역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천에 살고 있던 이유태 구타사건은 『갑오척사록』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또 이유태와 함께 장석유 집에서 재물을 탈취한 일, 영주 정동기의 재물을 빼앗은 일 등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또 동학농민군 4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서 영주에서 순흥으로 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진에서의 동학농민군 이동상황을 지도 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 3〉 안동진 일대 동학농민군의 움직임



49) 선달 초 어느 날, 대선생께서 친히 각 곳의 접주(接主)를 정하고 경주의 백사길(白士吉)과 강원보(姜元甫), 영덕(盈德)의 오명철(吳命哲), 영해(寧海)의 박하선(朴夏善), 대구(大邱)와 청도(淸道)의 김주서(金周瑞), 청하(淸河)의 이민순(李民淳), 연일(延日)의 김이서(金伊瑞), 안동(安東)의 이무중(李武中), 단양(丹陽)의 민사엽(閔士燁), 영양(英陽)의 황재민(黃在民), 영천(永川)의 김선달(金先達), 신녕(新寧)의 하치욱(河致旭), 고성(固城)의 성한서(成漢瑞), 울산(蔚山)의 서군효(徐君孝), 경주(慶州)의 이내겸(李乃兼) 장성(長城)의 최중희(崔仲羲) 등 사람들이다(『水雲先生事蹟』(1861.12.), 『大先生事蹟』,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이곳 순흥에서 활동한 인물이 김창규金昌奎이다. 그는 71세의 나이로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고, 1895(開國 504)년 2월에 충청도 단양에서 김선달·임의연 등과 함께 잡혔다가 3월 23일 장杖 100대, 유배 3,000리 처벌을 받은 인물이다.⁵¹⁾ 순흥은 현재 영주에 속하는 곳이다.

영주榮州 김기주金基周·김화칠金化七·김재덕金載德·김선재金善在 관련 내용은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에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領首와 각 包의 대접주를 적고 있는데, 그 속에서 위 4인의 이름이 확인된다.⁵²⁾ 포의 대접주라는 기록이 없고 지명과 이름만 적힌 것으로 보아 접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만도李晩燾(1842~1910)의 『향산일기響山日記』 7월 28일자에 적혀 있는 동학농민군 40명, 동학농민군 70명을 이끌었던 인물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안동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김서공金庶公·김한돌金漢玢·황묵이黃默伊이다. 이 가운데 김한돌에 대한 기록은 『학초전鶴樵傳』에서도 확인된다. 김한돌은 안동사람으로 안동진의 장교였다가 안동영장이 虐民할 때 같이 하다가 판세가 바뀌자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 동학에 입도했으며, 안동 발산점의 접장으로 민·형사를 처리하여 동학농민군 중군대장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⁵³⁾

등록 참여자는 아니지만, 권사근權沙斤·김검동金黔同,⁵⁴⁾ 김선달金先達·이참봉李參奉⁵⁵⁾ 등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봉화에서 활동한 권쾌남權快男은 잡혀 안동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경상좌도에서 등록 참여자가 없는 곳이 경주진과 대구진이다. 경상좌도의 감영이 있었던 곳이 경주였고, 조선후기 경상도 감영이 있었던 곳이 대구다. 경주진이 관할하는 곳은 영해·영덕·청하·홍해·영일·장기·永川·밀양이었고, 대구진의 관할지역은 영산·창녕·현풍·인동·의흥·신녕·하양·경산·청도였다.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후 각 지방에 접주를 두었는데, 1861년 12월 경주에 백사길白士吉, 강원보姜元甫, 청하에 이민순李民淳, 연일의 김이서金伊瑞, 대구와 청도에 김주서金周瑞,

50) 『響山日記』 1894년 7월 28일자. 暘。火賊四十餘，稱以東學，作拿醴泉地，李裕泰·張錫裕，以錢免死，入豐基，奪黃注書馬，脅辱榮川鄭東箕氏，多費錢財，奪林平昌時益卜馬，營關現捉打殺云耳。；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1~52쪽 참조.

51) 法部 編, 「제23호 판결선고서원본 김창규(金昌奎)」, 『東學關聯判決宣告書』,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187~188쪽).

52) 康弼道,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遭難」,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53) 朴鶴來, 『鶴樵傳』(『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3, 2015, 108~109쪽, 신진희,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 『영남학』 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71쪽 재인용)

54) 鄭宜默, 「甲午十二月初二日 秘甘安東」(1894. 12.02.),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55) 鄭宜默, 「甲午十二月二十二日 甘結安東鎮」(1894.12.22.),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영천에 김선달金先達, 신녕의 하치욱河致旭 등이 있었다.⁵⁶⁾ 등록 참여자 가운데 1894년 이 두 진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은 없었다. 그나마 대구진의 한 구역이었던 군위 의흥, 효령, 신녕 등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던 점이 밝혀지고 있다.

군위, 의흥, 효령, 신녕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칠곡부사 남궁억南宮億의 첩정에서 칠곡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경팔李景八, 송해출宋海出, 배조이裴召史, 이원발李元發, 장사진張士震 등이 그들이다. 이경팔과 송해출은 동학농민군이 되어 무리를 모아 여기저기 출몰하여 겁을 주고 약탈하였다고 하며, 裴召史는 양반가의 여종인데, 동학농민군이 되어 상전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가산을 빼앗았으며, 이원발은 동학농민군으로서 활동이 많아서 “죄범罪犯이 심중深重”하다고 하였으며, 장사진은 남의 재산을 겁을 주어 약탈했다고 한다. 이에 11월 21일 총살했다고 한다.⁵⁷⁾ 경상좌도에서 등록 참여자가 없는 곳이 경주진과 대구진이지만, 이러한 자료의 발견은 경상좌도 경주진·대구진 일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상좌도에서 마지막으로 살필 곳은 울산진이다. 울산진은 기장·동래·양산·언양을 관할하였다. 울산진에서는 양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으로 황두화黃斗化 1명만이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다. 양산의 접주였던 황두화는 1894년 12월 순천부에서 활동하다가 붙잡혀 12일 수영水營에서 포살되었다.⁵⁸⁾ 황두화가 양산 접주였던 점과 1861년 12월 임명된 접주 중 울산에 근거를 둔 서군효徐君孝가 있었던 점,⁵⁹⁾ 그리고 창원부사 이종서李鍾緒가 소모사로 임명되면서 창원진과 울산진이 관할지역에 포함된 점⁶⁰⁾ 등은 울산에도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6) 『水雲先生事蹟』(1861.12.), 『大先生事蹟』(『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57) 『乙未正月初十日別報』,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동학농민혁명 연구』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 84쪽.

58) 『甲午十二月日 順天府捕提東徒姓名成冊』, 『順天府捕提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59) 『水雲先生事蹟』(1861.12.), 『大先生事蹟』(『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60) 『甲午十一月』 1894년 11월 22일자, 『召募日記』. “본목(本牧)에 도착한 수영의 관문을 보니 집강소를 소모영에 소속시켜 지휘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공문을 보니 과연 여러 고을을 나누어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상주·함창·문경(慶)·의성(義城)·용궁·예천(醴泉)·예안·안동(安東)·풍기(豊基)·봉화(奉化)·순흥(順興)·영천(榮川)·청송(靑松)·진보(眞寶)·영양(英陽)의 15개 고을은 상주소모사 정의목이 관할하고, 대구·경산(慶山)·자인(慈仁)·현풍(玄風)·하양(河陽)·신녕(新寧)·창녕(昌寧)·영천(永川)·청도(淸道)·영산(靈山)·초계(草溪)·경주의 12개 고을은 대구토포사(大邱討捕使) 지석영이 관할하고, 인동·칠곡·선산·개령·김산·군위(軍威), 비안(比安)·성주(星州)·고령(高靈)의 9개 고을은 인동토포사 조응현(趙應顯)이 관할하고, 거창·안의·함양(咸陽)·산청(山淸)·단성·삼가(三嘉)·합천(陝川)·지례·진주·하동·의령(宜寧)·남해의 12개 고을은 거창소모사 정관섭(丁觀燮)이 관할하고, 창원·칠원(柒原)·함안(咸安)·웅천(熊川)·김해(金海)·밀양·양산(梁山)·진해(鎭海)·고성·사천·거제(巨濟)·울산(蔚山)의 12개 고을은 창원소모사 이종서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4.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특징

2~3장에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 중 등록 참여자를 살펴보았다. 경상도 등록 참여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등록 참여자는 후손들의 신청보다는 ‘직권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족들이 신청한 1차 등록 29(32)명, 2차 등록 6명이다. 192(208)명이 ‘직권등록’된 인물들로 약 84.6(84.9)%를 차지한다.

둘째 경상좌·우도로 구분하면, 경상좌도보다는 경상우도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충청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가 많았다. 227명 가운데, 경상우도 등록 참여자 186명(81.9%), 시군 미상인 30명(13.1%), 경상좌도 등록 참여자 11명(4.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경상우도·좌도의 등록 참여자 수

경상우도		경상좌도		경상도
상주진	105	안동진	10	30
성주진	14	경주진	0	
진주진	58	대구진	0	
창원진	9	울산진	1	
소계	186	소계	11	30

셋째 경상우도의 경우에는 성주진과 진주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활동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경상좌도의 경우, 향후 동학농민군 참여자 발견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집요한 연구자들의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혈연·지연은 물론 연비·연원이라는 동학조직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만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유족들의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비·연원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 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등록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자. 참여 당시 연령이 확인되는 인물은 40명인데, 10대 2명, 20대 12명, 30대 12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김현영은 40대, 편보언은 30대, 전기항은 60대, 김인배가 20대였다. 245명 가운데 40명만 확인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0대, 30대, 40대가 중심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들의 특징을 도출하면서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필자가 등록 참여자들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 등록된 참여자보다 직권등록된 인물이 더 많아 관계 파악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상주진 지역이 가장 많은 등록 참여자가 많은 곳이라서 관계 파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

하나 더 말하자면,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기록이 남아 있어 직권등록된 인물 가운데 천도교에

들어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우는 국가보훈부 혹은 독립기념관 등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맺음말

본문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록통고典錄通考』⁶¹⁾의 구분으로 하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경상도를 조선 전기 군사적 편의를 위해 구분한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였다. 경상좌도와 우도를 비교하였을 때 경상우도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상우도는 상주진·성주진·진주진·창원진으로 구분하여 등록 참여자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살폈다. 상주진과 진주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활동했고 상주진은 충청도와 강원도의 영향도 일부 받았으며 상주진을 중심으로 예천과 김산에 영향을 확산시켜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진은 영호 대도소 김개남, 김인배의 영향이 컸으며 고성산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큰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주진의 권병덕, 김현동 일가, 채홍우·황기용 일가, 진주진에서 조승현·김인배 일가, 정원섭 집안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다루었다.

경상좌도의 경우에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참여자가 많지 않았다. 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지만 동학농민군의 이름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아주 적었다. 또 최근 일부 자료들이 발견되었지만 ‘직권등록’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지역민들의 경우 동학농민군과 관련한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등록 참여자의 특징으로는 유족들의 신청보다 ‘직권등록’이 많다는 점, 좌도보다 우도의 활동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진 점, 경상우도에서도 상주와 진주진이 중심이었다는 점, 혈연·지연은 물론 연비·연원관계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활동을 살피고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 더 많이 보완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역의 동학농민군도 발견되길 기대해 본다.

61) 조선시대 경상도는 종2품 관찰사 1명(대구), 부윤 1명(경주), 정3품 대도호부사 1명(안동), 목사 3명(상주, 진주, 성주), 종3품 도호부사 7명(창원, 김해, 영해, 밀양, 선산, 청송, 대구), 종4품 군수 14명(합천, 함양, 초계, 청도, 永川, 예천, 榮川, 흥해, 울산, 양산, 함안, 김산, 풍기, 곤양), 종5품 도사 1명, 판관 5명(경주, 안동, 상주, 진주, 성주), 현령 7명(영덕, 경산, 동래, 고성, 거제, 의성, 남해), 현감 34명(개령, 거창, 삼가, 의령, 하양, 용궁, 봉화, 청하, 언양, 칠원, 진해, 하동, 인동, 진보, 문경, 함창, 지례, 안음, 고령, 현풍, 산음, 단성, 군위, 비안, 의흥, 신녕, 예안, 영일, 장기, 영산, 창녕, 사천, 기장, 웅천) 등의 관직자가 근무하던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典錄通考』, 「吏典」 下, 外官職, 경상도 편, 96면).

참고문헌

『선조실록』, 『세조실록』, 『典錄通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響山日記』

「판결문」, 「형사사건부」

金重默(김봉동의 아들), 「遯山處士茶村公事蹟」, 『桃巖世稿』, 엔코리안(주), 2016

金項祚, 「桃巖世傳(필사본)」, 檀紀4340(2007)

『仁川蔡氏大同譜』, 『金堤趙氏大同譜』

長水黃氏少尹公派譜所, 『長水黃氏世譜』, 譜典出版社, 1981

김해김씨 경파통합보소, 『金海金氏 京派統合譜』, 배영출판사, 1991

『晉陽鄭氏世譜』 卷四, 晉陽鄭氏 僉正公波大宗會, 1997

『甲午軍功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甲午軍政實記』(『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大先生事蹟』(『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東學關聯判決宣告書』(『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東學黨征討人錄』(『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東學道宗釋史』(『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9,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柏谷誌』(『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別啓』(『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歲藏年錄』(『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召募事實(金山)』(『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召募事實(尙州)』(『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召募日記』(『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1,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8)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侍天教宗釋史』(『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天道教書』(『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28, 『동학농민전쟁 국역총서』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신영우,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신진희,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4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동학농민혁명 연구』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

신진희, 「경상도 북부지역 반동학농민군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원섭, 「동학 편력자 권병덕의 종교 생활과 행적 : 『청암의 일생(淸菴의一生)』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0, 한국종교학연구회, 2022.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김제조씨대종회 홈페이지(www.gimjecho.com)

토론문 5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성주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경상도 지역 등록 참여자의 활동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성 주 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 발표문에 대해

신진희 선생님의 발표문은 1894년 전국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중에서 1925년 3월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참여자 가운데 경북지역 등록자에 대해 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등록된 참여자 3,908명 중 경북지역 참여자는 5.8%, 227명으로 호남지역, 호서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상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통해 영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의 활동을 잘 정리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상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의 동과 관련하여 첫째, 참여자 대부분이 직권등록되었다는 점, 경상좌도보다는 우도가 많다는 점, 경상우도의 경우 성주진과 진주진이 중심이었다는 점, 혈연 지연의 동학 조직 관련성, 경상도에서 활동한 등록 참여자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관계성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등에 대해 토론자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논평자의 입장에서 궁금하거나 보완되었으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한다.

■ 토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

첫째, 발표문에 의하면, 경상도의 경우 상주진과 진주진에서 동학농민혁명 등록 참여자 여타 지역보다 많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학 조직과의 관련성, 전투 상황과의 관계성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등록 참여자의 활동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 참여자로서 등록이 되었지만, 이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참여자 중 권병덕은 충북지역이 활동무대였으며 보은에서 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손병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상주에서 권병덕의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보완되었으면 한다.

셋째, 끝으로 사소한 것이지만은 발표문에서 “천도교가 구파(독립투쟁)와 신파(일제 통치 수용)으로 나뉘어 갈등할 때”라고 하였는데, 천도교 신파와 구파의 갈등은 독립투쟁과 일제 통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나누어지고 갈등을 하지는 않았다. 천도교 구파와 신파의 갈등은 춘암 박인호를 교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비롯되었으며, 민족운동노선에서는 구파는 연합전선론을, 신파는 중심세력론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주제발표 6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발표 |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주제발표 6

1. 머리말
2. 경기도
3. 강원도
4. 황해도
5. 맺음말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조 재 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연구에서 한 차원 수준을 높이게 된 것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면서부터였다. 특히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 도서 반환서 중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갑오군정실기』는 관군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면서 농민군들의 활동을 모두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양측의 움직임과 새롭게 밝혀진 내용 등을 자세히 살필 수 있어 동학농민군 활동과 조선 정부의 대응과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¹⁾ 이를 통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외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지역 상호 간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상은 가장 연구가 빈약한 부분이다.²⁾ 일부 지역 사례와 민보군 관련 연구를 제하면 경기도 농민군 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최근 이병규의 개괄적인 분석 작업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³⁾ 강원도는 1878년 한우근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주로 박준성에 의해 지역별 상황과 농민군 토벌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영우는 흥천 풍암리 전투를, 유바

1)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학술 세미나).

2) 표영삼, 2006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10; 신영우, 2017 「1894년 경기도 지역의 상황과 동학농민군 진압」 『동학학보』 45; 왕현중, 2017 「광무양안으로 보는 수원지역 농민경제의 분화와 농민항쟁」 『동학학보』 45; 임형진, 2017 「경기도 여주의 동학에 관한 연구」 『동학학보』 45; 박상진, 2020 「동학농민혁명 시기 지평 민보군 연구」 『강원사학』 35.

3) 이병규, 2022 「경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학보』 60호.

다는 인제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단과 이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상을 살폈다.⁴⁾ 황해도 농민군에 관해서는 앞선 한우근의 연구 이후 정은경·송찬섭·강효숙·이영호 등의 연구가 있다.⁵⁾ 정은경은 황해도 농민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일본군과 지방관의 농민군 진압책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찬섭은 갑오년 전후 황해도 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농민군 조직, 의식과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강효숙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황해도 동학농민군 진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영호는 『갑오군정실기』를 토대로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제대로 밝힐 수 없었던 동학농민군의 해주성 점령 일시와 기간을 확정하고 동학농민군 활동의 종점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북한에서는 오길보가 반일 의병 운동으로서의 황해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⁶⁾

이 글은 1894 ~ 96년 경기도와 강원도·황해도에서 동학농민군 활동에 참여한 인사들로서 이름이 확인되는 참여자를 각도별·지역별로 분석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2009년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결정을 통해 공식 등록된 농민군들이다. 심의를 통해 현재까지 확정된 동학농민군은 경기도 137명, 강원도 102명, 황해도 126명으로 총 365명이다. 이 외에 평안도는 2, 함경도는 1명이 확인된다. 해당 문헌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경기도

경기도 활동자 포함 17개 지역으로 광주목·수원부·안성군·양근군·양성현·양주목·양지현·여주목·연천현·용인현·음죽현·이천부·죽산부·지평현·진위현·화성군 등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평택의 경우 1894년 당시 충청도 지역이므로 조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박준성, 1995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신영우, 2015 「강원도 흥천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 전투」 『동학학보』 37; 박준성,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2016년 10월 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학술 세미나 발표문); 유바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2024년 8월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인제군청 주관 학술 세미나 발표문).

5)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정은경, 1995 「1894년 황해도·강원도 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송찬섭, 1995 「황해도 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강효숙, 2008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47; 이영호, 2017 「황해도 동학군의 해주성 점령」 『동학학보』 44.

6) 오길보, 1988 『조선 근대 반일 의병운동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 수원

수원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수원 동학농민군의 중심인물은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來鉉)으로 이들은 일찍이 1884년 2월부터 이 지역에서 동학 교리를 전파하였다.⁷⁾ 안승관은 동학에 입교한 뒤 1890년 기호대접주(畿湖大接主)가 된 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9월 수원 남별원에서 처형된 인물이다. 자료상으로 각기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기호대접사 김내현은 수원지역 내에서의 활동상으로 보아 김승현(金昇鉉)·김정현(金鼎鉉)·김필현(金弼鉉)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⁸⁾ 그는 진위의 민공익·한홍유·김명수·한성재 등을 동학농민군에 입속시켜 수원 이외의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⁹⁾ 김내현은 안승관과 함께 활동하던 중 수원 중군 허형진에게 체포되어 도당을 불러 모으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정부의 교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무영으로 이첩된 후 경무청에 갇혀 있다가 남별원에서 효수되었다.¹⁰⁾ 민재명(閔在明)은 동생 민공익과 함께 김내현의 집에 참여하였다가 교졸들의 수색을 피해 도주하였는데 민공익은 진위에서 체포되었다.

2) 화성

화성의 동학농민군은 한세교(韓世敎) 1명이다. 우정면 이화리 출신 한세교는 일찍이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4년 8월 당시 35세로 동학 육임제의 하나인 대정(大正)으로 임명되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 사실은 1894년 9월 북접 법헌 최시형 명의로 발급한 임명 첩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세교는 이후 1938년 사망할 때까지 천도교 교단 활동에 관여하였다.

3) 용인

용인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1894년 9월 당시 경기도 용인 직동과 김량동의 2개 동에 동학 접주가 있었고 활발히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동 접주 이관업(李觀業)은 관군의 포위와 수색이 진행되자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고, 이종관(李鍾觀)은 삼촌인 양지 접주 이용익과 함께 “동학에 속아 미혹되었으며 사람을 해치는 것을 돕고 행패를 부렸다”¹¹⁾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소모관 전동석은 11월 19일 용인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대연(車大淵) 등 5명을 체포하여 문초하였다. 차대연은 안성

7) 「水原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191호, 1926년 11월, 29쪽.

8) 이에 대한 추론은 이병규, 앞의 논문 468쪽 참조.

9) 『先鋒陣傳令牒』 「振威縣令牒報」, 開國 503년 10월 20일.

10) 『甲午軍政實記』 「啓」, 갑오년 10월 3일.

11)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10월 6일.

접주 정성택과 두어 달 동안 머물다가 막 용인으로 와서 체포되었다. 그런데 차대현의 부하들은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김왕인(金王仁)은 차대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압송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영준(李英俊)·최경식(崔敬植)·강치구(姜致九)는 영원히 동도를 탈퇴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석방되었다.¹²⁾ 서별리 거주 농민 문재삼(文在三)은 체포되어 “동학당에 들어가 지방의 안녕을 해하였다”¹³⁾ 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지만 1895년 4월 1일 무죄 방면되었다.

4) 양지

양지현은 현재의 용인 지역으로 6명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1894년 9월 용인현 장교 최재철은 접주 이용익(李用翊) 등 15명을 체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문 내용에서 용인 갈천 출신인 이용익은 조카 이종관과 함께 “동학에 속아 미혹되었으며 사람을 해치는 것을 돕고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정용전(鄭用全)은 서울에서 옮겨와서 직동에 살고 있으며, 호남접(湖南接)에 들어간 것이 여러 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출신으로 양지에서 활동하면서 호남의 농민군과 기맥을 통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이주영(李周英)은 직동, 이삼준(李三俊)은 금량동 출신이었다.¹⁴⁾ 죽산부사 겸 장위영 영관 이두황은 체포한 농민군 가운데 이용익·정용전·이주영·이삼준 등을 9월 22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처형 효수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¹⁵⁾ 그런데 『천도교백년약사』천도교중앙총부, 1981, 256쪽에 의하면 접주 정홍전(鄭訖全)은 1894년 10월 1일 “접주 이용익·이주영·이준삼과 함께 양지에서 효수되었다”고 되어 있다. 활동상으로 보아 정용진과 정홍전, 이삼준과 이준삼(李俊三)은 같은 인물이 이름을 달리하여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앞선 자료를 근거로 정용진과 이삼준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천

이천의 동학농민군은 18명이다.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는 고재당(高在堂)이 주목된다. 지평현감 맹영재는 고재당을 ‘비괴(匪魁)’로 언급하였는데 그가 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동학을 배반하였다면서 특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으로 호소하였지만 옥에 가두고 도순무영의 처분을 받아 총살 처형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⁶⁾ 또 다른 자료에는 1894년 10월 충청도 괴산 전투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12) 『甲午軍政實記』 「召募官田東錫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13) 『東學關聯判決宣告書』 「文在三判決宣告書」, 개국 504년 4월 1일.

14)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10월 6일.

15)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갑오년 9월 26일; 『甲午軍政實記』 「啓」, 갑오년 10월 6일; 『兩湖右先鋒日記』, 9월 ~ 10월; 『甲午實記』, 10월 7일.

16)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2월 4일 총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전규석(全奎錫)·전일진(全日鎭)·이근풍(李根豐)은 2차 봉기 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 농민군 중 서수영(徐壽榮)·조인이(趙仁伊)·원석만(元石萬)·김석재(金石才) 등은 충청도 보은까지 진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894년 10월 진남영 병졸에게 체포 후 총살되었다.¹⁸⁾ 같은 해 10월 17일 일본군 200명과 영관 2명이 이천부에 들어와서 신면 절음리에 거주하는 김기룡(金基龍)을 일본군 보초에게 저항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곤지암 병참부에서 심문 후 감옥에서 끌어내어 총살하였다.¹⁹⁾ 이때 동학 접주이자 김기룡의 아버지인 김한억(金漢億)은 다른 곳으로 가 체포를 면했다.²⁰⁾ 반면 12월 8일 접사 조용이(趙龍伊)는 근거지를 추적 체포 압송 후 효수하였다.²¹⁾ 한편 권성좌(權聖佐)는 1892년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여 피신하다가 1898년 정월 음죽에서 체포되었다. 정천석(鄭千石)은 1894년 가을 농민군 수십 명을 이끌고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²²⁾

6) 음죽

음죽은 현 이천시 장호원의 옛 지명으로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14명이다. 음죽현감 김종원의 보고에 따르면 동면(東面) 접주 임성질(林聖質)은 음죽현 조목동 대접주 박용구(朴容九)의 사위로 그의 아버지 임대심(林大心)과 집 머슴들이 ‘동도’에 들어가 지역민을 선동하여 동도로 만들었고, 그의 형제 및 도당들이 모두 보은의 도회(都會)에 가서 아직도 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률면의 안경무(安敬武)는 충주의 농민군 지도자 도집강 홍재길과 결의형제하고 성찰(省察)과 운량(運糧)을 빙자하여 백성들에게 행패하고, 그의 지친 접주 안재영(安在泳)도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고 토색한다고 보고하였다.²³⁾

11월 13일 음죽현감은 이 지역 출신으로 충주·제천과 강원도 영서 일대까지 진출하여 활동하다 체포된 이기영(李基榮)을 심문하였다. 공초에서 그는 “저는 본래 팔성리의 백성으로서 4~5년 전에 동도에 들어갔는데, 수접주 명색으로서 제천·단양·영춘 등지에 왕래하여 그 모인 무리들이 3~4천 명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경에 무리 3천여 명을 거느리고 제천접주 정식과 원주 동도리 접주 이희종과 함께 충추 목계에 가서 일본 병사 2명을 살해하였고, 제천 화암리에 주둔하면서 또 일본 병사 1명

17) 『侍天教宗釋史』.

18)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牒報」, 갑오년 12월.

19) 『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從軍日誌』 참조. 이 기록에는 경기도 이천, 충청도 가흥·청풍에서 동학농민군 섬멸 작전을 실행하여 포박 또는 총살하고 거점 촌락을 불태워 버린 사실 등을 적고 있다.

20) 『甲午軍政實記』 「利川府使南廷綺爲牒報事」, 갑오년 10월 23일.

21) 『甲午軍政實記』 「利川府使南廷綺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22) 『司法稟報』 「京畿裁判所 判事 金永憲 質稟書」, 1898년 5월 1일; 『司法稟報』 「關安城」, 1895년 1월 26일.

23)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을 살해하였습니다. 저희도 살해된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어 영월·평창·정선 등의 읍에 가서 군기를 탈취하고 군량을 토색질하였는데, 11월 초 1일 강릉의 민보 이해수·맹지평(맹영재)이 일본 병사 천여 명과 함께 불시에 뛰쳐나와 좌우로 협공하니, 저 또한 도망가다가 드디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²⁴⁾라고 진술하였다.

음죽 지역은 지리상 충청도와 강원도에 인접해 있어 그곳의 농민군과도 서로 기맥을 통하고 있었다. 진사연(陳士連)은 ‘동도’를 배반하여 전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 포군을 파견하여 체포 후 즉시 총살하고 가산을 몰수한 바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판서의 마름인 김태현(金泰鉉)도 상률면에서 농민군으로 활동하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접주 이의재(李義載)와 접사 이한갑(李汗甲)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잡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자산 1,150량은 관고(官庫)에 유치해 두었다. 조목동 ‘비류 거괴’ 이경일(李敬一)의 참여 사실도 확인된다.²⁵⁾ 신흥동 거주 박만업(朴萬業)은 동학에 들어가 관에서 지급된 총을 가지고 충주 황산까지 도망하였다가 10월 1일 돌아와서 집 근처에 사는 추용달에게 군량 3백 석을 징수하다가 체포 처형되었다.²⁶⁾

7) 진위

진위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현재의 평택지역에 속한 진위에서는 농민군 지도자(‘匪魁’) 민영원(閔永元) 등 3명이 11월에 체포되어 현의 옥에 갇힌 후 수원 중영으로 압송되어 직초(直招)를 받게 되었다. 한성재(韓聖在)는 체포 후 심문에서 수원 접주 “김내현의 강압으로 동도에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²⁷⁾ 이 지역은 수원접과 큰 관계가 있었다. 민공익(閔孔益)·한홍유(韓弘儒)·김명수(金命壽)는 모두 진위현 전달리 출신으로 체포된 후 취조를 받았다. 민영원·민공익·민재명 3형제가 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민공익은 형 민재명과 함께 1894년 8월부터 김내현의 수원 집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형은 수원에서 출동한 교졸들의 수색을 피해 도주하고 자신은 체포되었다. 같은 기간 김내현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 중 한홍유(韓弘儒)는 수원 교졸에게 체포되고 그 아들 칠성은 피신 후 포교가 그 아버지를 대신 잡아가서 오래도록 감옥에 감금하자 스스로 자수하였다. 그런데 민재명과 한칠성은 수원지역 농민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김명수는 그 아들 김화덕(金化德)이 김내현 접의 백난수를 통해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하던 중 수원 포교가 대신 잡아가서 포청에 갇힌 후 오래 가두면서 심문을 받게 되자 이에 김화덕이 스스로 자수하고 체포되었다.²⁸⁾ 형과 아버지를 잡아 문초하자 농민군 참여자가 자수 체포 후 심문을 받은 사례들이었다.

24)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월일 미상.

25)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6)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牒報」, 갑오년 12월 12일.

27) 『甲午軍政實記』 「水原中軍徐珩淳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7일.

28) 『先鋒陣傳令牒』 「振威縣令牒報」, 갑오년 10월 20일; 『巡撫先鋒陣膽錄』, 갑오년 11월 15일.

8) 안성

안성의 동학농민군은 11명이다. 임명준(任命準)과 정경수(鄭璟洙)는 10월 기포 시 이 지역 동학농민군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²⁹⁾ 소모관 전동석의 첩보에 따르면 안성접주 정성택(鄭成宅)은 용인접주 차대연과 두어 달 동안 같이 행동하였다.³⁰⁾ 또 다른 기록에는 “본 군 교동에 사는 조만봉(趙萬奉)·조사봉(趙四奉)·조오봉(趙五奉)은 모두 동학도로서 비적 정성택과 한통속이 되어 양반댁 과부를 강제로 겁탈하고 시장 재화를 훔치는 등 그들 행패가 못하는 짓이 없었다”³¹⁾ 라고 되어 있다. 정성택은 인근의 용인접 수뇌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조씨 3형제를 비롯한 안성의 농민군을 이끌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구서(兪九西)와 김학여(金學汝)는 충청도 진천 출신 농민군 김금용과 함께 경리청 병정의 수효를 탐문하다가 안성 주민들에게 잡혀 안성군수 성하영이 9월 27일 대중 앞에서 처형하였다.³²⁾ 『나암수록(羅巖隨錄)』에는 이들을 각기 두목과 접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후임 군수 홍운섭의 첩보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동도 중에서 소요를 일으켜 백성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잡아내어 군대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들을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법적으로 사면하기 어려운’ 홍공칠(洪公七) 등 5명을 즉시 총살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³⁾ 그러나 나머지 4명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9) 양성

양성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당시 양성은 현 안성시 지역으로 10월 19일 소모관 정기봉이 양성군 공제면의 ‘비류’ 류성옥(柳成玉)은 ‘해당 집에서 가장 불량한 자’인데 잡지 못하여 그의 집만 적몰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⁴⁾ 양성접주 이치오(李致五)는 체포 후 평택으로 이송되어 11월 23일 별군관 최일환이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좌수도 동참하여 효수하여 못사람을 경계시킨다”라는 명분으로 오리정에서 처형하였다.³⁵⁾

29)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30) 『甲午軍政實記』 「招募官田東錫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31)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갑오년 11월 22일.

32) 『甲午軍政實記』 「經理廳軍司馬爲牒報事」, 갑오년 9월 30일.

33) 『甲午軍政實記』 「安城郡守洪運燮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2일.

34) 『甲午軍政實記』 「招募官鄭基鳳爲牒報事」, 갑오년 10월 19일.

35) 『甲午軍政實記』 「別軍官崔日煥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7일.

10) 죽산

죽산의 동학농민군은 13명이다. 현 안성시에 속한 죽산부에서는 10월 5일 박봉학 등 동학농민군 5명을 체포하였는데 죽산부사 이두황은 박봉학(朴奉學)과 이돈화(李敦化)를 “행패를 부린 행적을 모두 자백”하여 즉결 처단하고³⁶⁾, 강원중(姜元中)·안창순(安昌順)·박명복(朴命卜) 등 3명은 강제로 따르자로 판단하고 즉시 풀어주었다고 보고하였다.³⁷⁾ 이두황에 의하면 박봉학은 검찰(檢察)을 칭하면서 남의 무덤을 파고 채전(債錢)을 강제로 받았고, 이돈화는 접사라고 하면서 동학도들을 거느리고 채전을 받고 남의 나귀를 빼앗았다는 것이다.³⁸⁾ 그런데 『양호우선봉일기』, 10월 8일 자에 의하면 박봉학과 이돈화는 충청도 괴산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이 두 사람은 괴산 지역 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죽산 동학농민군으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맹영재는 10월 14일 죽산 구산리의 장태성(張太成)이 동학에 들어가 그의 상전을 결박하여 ‘혹독하게 무수히 장을 쳐서 정강이 뼈가 드러났으므로 대로변에서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맹영재는 활산 접사 최제팔(崔齊八)을 덕실촌에서, 안광리 접주 박성익(朴性益), 구계동 접사 이춘오(李春五)는 죽산부의 대로변에서 살해하였다.³⁹⁾ 장태성은 『나암수록』에는 장대성(張大成)과 장태성으로 각기 기재되어 있지만 활동 내역으로 볼 때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 출신 접주인 민영훈(閔泳勳)⁴⁰⁾·박병덕(朴秉德)·임성옥(林省玉) 등은 효수되었다.

11) 여주

여주의 동학농민군은 12명이다. 이 지역 중심인물은 홍병기(洪秉箕)와 임동호(林東豪)로 홍병기는 후일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1892년 동학 입교 후 강원도 원주 접주 임순호, 여주 농민군 신수집 등과 함께 2차 봉기를 주도하였다.⁴¹⁾ 수계면(현 능서면) 신지리 출신 임동호는 1893년 4월 임학선(林學先)을 통해 동학에 입도하였고, 1894년에는 교장 직임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기포령 이후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최시형을 측근에서 수행하였다. 그가 저술한 『균암장 임동호씨약력』은 경기도와 충청도 동학농민군 활동 관련 중요한 자료이다. 임동호는 공주 우금치전투

36) 『兩湖右先鋒日記』, 갑오년 10월 8일.

37)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膽報事」, 갑오년 10월 12일.

38) 『甲午軍政實記』 「竹山府使李斗璜爲牒報事」, 갑오년 월일 미상.

39)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0월 17일. 『承政院日記』, 1894년 10월 20일 조에도 장태성 등 4명을 효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0) 민영훈은 충청도 지역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41) 조규태, 2009 「동학인 홍병기의 종교적 활동과 민족운동」 『한성사학』 24 참조.

42) 신영우, 『均菴丈林東豪氏略歷』 해제 참조.

까지 참여한 경험을 날짜 순서대로 술회하였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과 일화들을 기록으로 남겼다.⁴²⁾

한편 1894년 9월 24일 맹영재가 의병 포군 600여 명을 이끌고 여주에 도착하여 상동에 사는 안순옥(安順玉)과 지사준(池士俊)의 처를 체포하였다. 이때 맹영재는 안순옥에게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사위가 동학인 것을 빙자하여 양반과 상놈, 그리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렸다”라면서 장(杖) 80대를 친 후 풀어주었다. 도피한 지사준의 경우 그의 부인을 대신 옥에 가두었다. 같은 날 맹영재는 도피한 홍순룡(洪順龍)의 어머니를 체포해, “네가 천한 자로 감히 동학을 빙자하여 사부(士夫)를 욕하고 핍박하였으니, 마땅히 죽을죄를 지었다”라면서, 포군을 시켜 총살하였다.⁴³⁾ 맹영재는 9월 흥병기와 임학선의 아버지 임황록(林黃祿)과 하백양에 사는 접주 김화춘(金化春) 등을 총살하였다.⁴⁴⁾

12) 광주

광주의 동학농민군은 16명이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염세환(廉世煥)으로 2차 봉기 시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⁴⁵⁾ 광주의 연천과 노곡에서는 김감룡(金甘龍)·연노성(延魯成)·연영달(延永達)·이대학(李大學)·장학진(張學辰)이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로 활동하였고,⁴⁶⁾ 김계보(金桂甫)는 80대의 장으로 처벌된 후 방면되었다. 김기연(金基淵)·김문달(金文達)·김부만(金富萬)·박인학(朴仁學)·연순달(延淳達)·연갑진(延甲辰)·이영오(李永五)는 체포되어 한참 후인 이듬해 4월 판결 후 석방되었다.⁴⁷⁾ 서종철(徐宗轍)은 충청도 충주에서 활동하던 ‘동학당 수령’으로 활동무대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겼다가 양 10월 18일(음 9월 20일)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⁴⁸⁾

13) 지평

지평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지평과 양근은 지금의 양평군이다. 이 지역 농민군은 김태열(金泰悅)과 이재연(李在淵)이 주도하였다.⁴⁹⁾ 1894년 10월 12일 이전 어느 날 신임 지평현감 맹영재는 지평현

43)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騰報事」, 갑오년 10월 2일

44)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騰報事」, 갑오년 10월 5일

45) 천도교중앙총부, 1920 『天道教會史草稿』, 462 ~ 463쪽.

46) 『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7일.

47) 『東學關聯判決宣告書』 「金桂甫判決宣告書」, 「朴仁學·李永五·金基淵·金富萬 判決宣告書」, 「延淳達·延甲辰·金文達 判決宣告書」.

48) 『駐韓日本公事官記錄』 「忠州支部守備兵의 東學黨征討報告」, 1894년 10월 19일; 『駐韓日本公事官記錄』 「忠州附近地方의 匪徒擊退」, 1894년 10월 20일.

49) 『天道教書』, 237 ~ 241쪽; 『天道教會史草稿』, 463쪽.

의 농민군 우두머리 이인오(李寅五)와 진천접주 이재국(李載國)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진(陳) 아무개와 조(趙) 아무개를 지평과 여주가 만나는 지점 노상에서 처형하였다. 맹영재는 10월 26일 지평 상동에 사는 농민군 이지신(李之信)과 법주 사는 강경춘(姜京春) 등을 엄중 심문 후 진영 앞에서 목 베었다. 11월 7일에는 하서면 마천리의 접사 이원구(李源求)와 그의 형 이풍구(李豐求)를 홍문(紅門) 밖에서 살해하였다. 같은 해 12월 지평의 접사로서 농민군에 참여한 후 전향한 신성일(申成一)을 옥에 가두기도 하였다.⁵⁰⁾ 그런데 이들 중 이지신과 강경춘은 강원도 홍천 동학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14) 양근

양근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이 지역 농민군 토벌에도 지평현감 맹영재가 적극 관여하였다. 11월 3일 양근의병소에서는 윤복성(尹福星)·윤창근(尹昌根) 등 4명을 진중에서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⁵¹⁾ 11월 7일 맹영재는 ‘동도중 유명한 거괴’ 정사원(鄭士元)과 신재규(辛載奎)를 즉시 총살하였고,⁵²⁾ ‘유도를 배반하고 재범한’ 혐의로 이석병(李錫炳)을 총살하였다. 맹영재는 자수하는 경우도 처형하였다. 예컨대 양근의 농민군 우두머리(‘비괴’) 민노보(閔魯甫)와 권삼여(權三汝)의 경우 10월에 소모군에 부속시켜 달라고 와서 자수했음에도 ‘경재(京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민간에서 재물을 약탈’하였다는 이유로 11월 21일 양근 두물머리에서 처단하였다.⁵³⁾

15) 연천과 양주

연천의 동학농민군은 3명이고, 양주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경기도 북부 연천의 수접주 조한봉(趙漢鳳)이 10월 22일 충청도 홍주에서 살해되었다. 그런데 조한봉의 피살 소식을 들은 양주의 남명원(南明元)은 밤새워 돌아와 이후 10월 26일 귀화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에 사는 이휘영(李輝榮)은 ‘동도를 배반하고 귀화하겠다는 뜻’을 철원부에 소로 올리고 도장을 받은 후 연천현에 제출하였다. 그간 농민군에 참여하였던 연천 북면 사동리 원광의(元光義) 등 69명도 집단으로 전향 소장을 제출하였다.⁵⁴⁾

50)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및 「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1월 9일 및 「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10월 12일 및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12월 27일.

51)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52)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9일; 『承政院日記』, 1894년 11월 15일.

53)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9일.

54) 『甲午軍政實記』 「漣川縣監趙明植爲牒報事」, 갑오년 12월 4일.

16) 기타

구체적인 활동 지역을 알 수 없는 경기도 동학농민군은 노백용(盧白用) 1명이다. 노백용은 등재 내용이 “1894년 가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집이 훼손됨”으로 되어 있다. 그를 경기도 동학농민군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는 『사법품보』 1895년 5월 6일 자였다. 이에 따르면, “본주(州)에 살고 있는 이 진사와 정영진의 소장 안에, ‘마을에 사는 이규백이 노백용의 돈 수천 냡을 빌려 쓰고는 갚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 동학도가 창궐할 때 노씨 놈이 동학에 입도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부수고 쫓아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⁵⁵⁾ 그런데 당시 소장을 제기한 정영진은 충주목 금목면이 거주지이고 노백용은 그 이웃에 사는 동학당 참여자로 기재하고 있다.⁵⁶⁾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2일 자에 따르면 (충청도 음성군) 무극시 보상도반수(裨商都班首) 전만근에게 전령을 보내어, “동도 접주 무극시 임인수, 오룡동 접사 정택진, 접주 노백룡(盧白龍) 등 세 놈을 즉시 잡아서 성화같이 죽산진에 압송한 뒤에 그 형편을 급히 보고하되, 비록 한 놈이라도 기회를 놓쳐 그물을 빠져나가게 한다면 너를 효수에 처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라고 되어 있다. 노백룡은 “접주로서 1894 ~ 1895년 충청도 충주에서 홍재길·신재련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강릉부·봉평현·양구군·원주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홍천군·횡성군 등 총 9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 지역은 일찍이 정선의 동학도 접주 유시현, 평창의 관동 대접주 이원팔, 홍천 대접주 차기석, 인제 대접주 김치운 등을 중심으로 도소(都所)를 설치하면서 활발한 동학의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1894년 여름부터는 원주·영월·평창·정선 등지의 동학도들이 접을 설치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평창 대화면에서는 8월 20일경부터 동학농민군이 활동을 개시하여 김장수의 집을 훼손하고 잡기를 탈취한 뒤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들어간다고 성언한 바 있었다.⁵⁷⁾ 평창군의 오덕보가 9월부터 포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각처에서 접소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동학교도의 수가 늘어났고, 강릉부 관할 연곡면과 신리면(현 주문진)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었다.⁵⁸⁾

55) 『司法稟報』 『畿營報內部而來牒』, 1895년 5월 6일.

56) 『起案』(法部檢査局), 開國 504년 윤5월 17일.

57) 『臨瀛討匪小錄』, 1894년 8월 20일.

58) 한우근, 1978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의 경우」 『한국사론』 4, 368쪽.

1) 강릉

강릉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9명이다. 1894년 9월 4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영월·평창·정선에서 이곳으로 들어와 4~5일 머물면서 집을 설치하고 군세(軍稅)·적세(糶稅) 및 환곡 등을 삭감하고 요호(饒戶)들로부터 재물을 징수하고 관원을 옥에 가두고 민간의 송사를 처벌⁵⁹⁾ 하는 등 짧은 기간이지만 호남의 집강소 형태와 유사한 자치 질서를 유지하였다. 동학농민군의 강릉 점령 상황에 대해 이 지역 최대 지주인 전 승지 이회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탄 자가 수십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서 뒤를 따랐다. 길게 늘어져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통솔이 되지 않았고 존비(尊卑)도 없었다. 반은 대낮에 우비를 입었고, 검은 때가 묻은 파의(破衣)를 걸쳤으며, 수백 대(隊)의 귀신 얼굴을 한 병사들은 도읍을 통과해 시장에 가는 백성들처럼 보였다. 13자(字) 천주주문(天主呪文)은 상갓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며 웃으면서 귓속말하는 비루한 모습들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대단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그것에 놀리어 따랐다. 이에 마을에서 항산(恒産)이 없는 무뢰배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징험할 수 있는 신비한 술법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양반에게 놀린 분노가 있어도 지체가 낮아 펴지 못한 자나 남의 재물을 빼앗을 마음이 있으나 재주가 모자라서 빼앗기 어려운 자도 스스로 운수가 형통하리라 말하며 다투어 지름길을 찾아 몰려들었다.⁶⁰⁾

9월 5일 농민군들은 읍의 동문에 “삼정(三政)을 바로잡고 보국안민(輔國安民)한다”라는 방문을 내걸었다. 이때 진사 박재호(朴在鎬)는 강릉 출신으로 평창으로 이거한 뒤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대화 출신 접주 김상오(金相五)는 패(牌)를 만들어 교부하고 도를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사족들을 잡아들이고 전표(錢標)를 발행하여 금전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에 다음 날인 9월 6일 강릉에서는 이회원과 좌수 유학 최동집을 중심으로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적하였다. 이회원은 아전 정시중·최희민 등과 함께 부근 5~6개 마을의 군정을 모집하는 한편 9월 7일 강릉지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서지방 등 인근 타지에서 선교장으로 들어온 동학농민군을 유인하여 저녁밥을 대접하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일거에 습격하였다. 이때 살해된 농민군은 최대 100여 명이였다. 최동집은 9월 8일 성산면을 비롯한 강릉 각 면의 향회(鄉會)에 통지하여 이들을 소집하였고 5가 작통제를 실시하여 대장을 뽑고 총칼을 준비토록 하였다.⁶¹⁾

59) 『東匪討論』, 갑오년 9월 8일, 9월 16일.

60) 『臨瀛討匪小錄』, 1894년 9월 4일

61) 『東匪討論』, 갑오년 9월 8일.

한편 순무영에서는 포수를 소집하여 영서에서 강릉으로 들어온 평창의 이치택(李致澤), 삼척의 황찰방(黃察訪), 정선의 지왈길(池曰吉), 대화의 김상오를 비롯한 농민군 주도자들을 잡아 가두도록 지시하였다. 최동집의 보고에 의하면 접의 이름이 각각 달라 어수선하였다고 했는데,⁶²⁾ 그만큼 많은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강릉도호부에 집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농민군이 충포를 가지고 대관령을 넘어 다시 온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강릉 주민들이 이고 지고 서로 부축하고 외진 마을로 흩어졌는데, 이러한 사태는 며칠 지나서야 진정되었다고 한다. 9월 26일 조선 정부는 공관 상태의 강릉부사로 이회원을 임명하면서 농민군 토벌에 박차를 가했다. 정선 여량의 주민들에게 체포된 지왈길이 11월 23일 강릉부에서 참수 처형되면서 영동 일대의 동학농민군 활동은 종료되었다.⁶³⁾ 강릉의 박재회(朴載會)와 평창의 박재호는 신분이 진사로 동일하고 활동 내역으로 보아 같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정창호(丁昌浩)는 『갑오군정실기』에는 봉평 농민군으로 되어 있다.

2) 봉평

봉평의 동학농민군은 12명이다. 지금은 평창군에 속해 있는 봉평은 당시 강릉부 관할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곳에서는 영군대장(領軍隊長) 강위서가 이끄는 민보군과 강릉부사 이회원이 중군 이진석 등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민군 9명을 체포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봉평면 포수가 모두 잡아 죽였다. 10월 26일에는 중군 이진석과 영수 이영찬이 봉평 내면 창촌에서 ‘봉평 비적 괴수’ 윤태열(尹泰烈)·정창호와 동료 이창문(李昌文)·김대영(金大永)·김희열(金喜烈)·용하경(龍河京)·오순영(吳順永)·이화규(李和奎) 등 13명을 사로잡아 참수하였다.⁶⁴⁾ 이회원에 따르면 “내면 근처에 거주하는 윤태열·정창해(鄭昌海)·조원중·정운심 등은 본래 무뢰배들인데, 교활하게 차적(車賊, 차기석)을 빙자하여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군사들을 모았으며 창고 옆에 목재를 세우고 강제로 각 마을에 명령을 내려, 호(戶)마다 속미(粟米) 6말, 미투리 한 켤레씩을 빠짐없이 거두었다. 또한 소를 빼앗아 날마다 여러 마리를 잡으니 고기와 포(脯)가 산과 숲을 이룰 정도였다. 기꺼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죽였다. 이에 완악한 무리들이 모두 일어나 한패가 되었는데 진부면의 안영달(安永達)·김성칠 등도 거기에 가담하였다”⁶⁵⁾고 한다. 체포된 이들은 총살과 효수 등으로 처형되었다. 조원중과 정운심은 흥천 농민군, 김성칠은 평창 출신 동학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들 중 정창호는 강릉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후에도 봉평 농민군들은 계속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6일 이후 삼리와 흥정리·신흥동 등지

62)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갑오년 9월.

63) 『臨瀛討匪小錄』, 1894년 11월.

64) 『臨瀛討匪小錄』, 1894년 10월 26일; 『東匪討論』, 1894년 11월 13일.

65) 『臨瀛討匪小錄』, 1894년 월일 미상.

에서 영군대장 강위서가 임정호(林正浩) 등 30여 명을 총살하고 체포된 손응선 등 70여 명은 개고기를 먹고 타일러 풀어주었다.⁶⁶⁾ 반면 같은 기간 창춘의 제2차 전투에서는 차기석을 비롯한 농민군들이 승리하고 민보군이 패하자 강릉부사는 진부와 도암면의 포군과 민보군을 급히 봉평에 파견했다.⁶⁷⁾ 또한 연곡과 신리·망상·옥계 등 각 면에 전령하여 양반 평민을 가리지 않고 포수와 궁수 10명, 창수 40명을 차출하여 요충지를 각별히 지키도록 하였다. 동원된 군사의 식량은 면내 각 통의 환자미(還上米)를 널 호구에 분배토록 하였다.⁶⁸⁾ 그 결과 11월 8일 이 지역에서 활동한 7명의 농민군 지도자를 잡아 효수하였다.⁶⁹⁾

3) 평창

평창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평창 동학농민군의 상징적인 인물은 대접주 이원팔(李元八)이다. 그는 1893년 3월 광화문 복합상소 이후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을 찾아갔고 보은 장내리에서 열린 교조신원운동을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자신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⁷⁰⁾ 이 집회에는 원주접주 200여 명도 동참하였다. 3월 11일 최시형이 전국 조직으로 각 도 단위의 접주를 임명할 때 관동대접주(關東大接主)에 임명되었다.⁷¹⁾ 1894년 농민군 2차 봉기에는 관동포를 인솔하고 충청도 홍주에 집결한 후 보은에서 최시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이후 공주 우금치전투에도 참여하였다가 관군의 추격을 피해 속리산 등지로 도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1900년 3월 전라도 고산 용암리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대명률(大明律)』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 “일체의 좌도(左道)로 정도를 어지럽히는 술법을 부리거나, 향을 피워 무리를 모으거나, 인민을 부추겨 현혹시키는 수범(首犯)의 율”로 교수형 선고를 받고 경무서에 구금 중 옥사하였다.⁷²⁾ 이원팔은 출신 지역인 강원도를 떠나 교단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오덕보(吳德甫)는 강릉 출신의 진사로 평창으로 이거한 뒤 1894년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되어 그해 8월 강릉 연곡면과 신리면(현 주문진)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이곳에 접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도조 10여 석을 거두어들이는 등 군자금과 군수품을 모으는 활동을 하다가 피신하였다.⁷³⁾ 11월 3일 평창의 진부는 중군 이진석이 인솔하는 포군과 민보군, 대화는 면의 포수와 민보군을 징발

66) 『臨瀛討匪小錄』, 1894년 11월 일자 미상.

67) 『東匪討論』 「傳令召募官朴東儀」, 1894년 11월 7일.

68) 『東匪討論』 「傳令連谷新里玉溪望祥」, 1894년 11월 7일.

69) 『東匪討論』 「傳令」, 1894년 11월 일자 미상.

70) 「天道教會史草稿」, 454쪽.

71) 『天道教書』, 1893년 3월 11일. 이원팔은 『甲午東學亂』에는 이철우로 기록되어 있다.

72) 『司法稟報』, 1900년 4월 2일 및 4월 12일.

73) 『東匪討論』, 1894년 11월 19일 및 12월 2일.

하여 농민군에 대적하는 한편 삼척과 양양에서 징발한 병사도 토벌을 위해 증파하였다.⁷⁴⁾ 흥미로운 사실은 대화 지역의 경우 선달 조자유를 비롯한 ‘힘 꽤나 쓰는’ 장사들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앞장세우거나 반대로 주민들이 화약을 만들어 농민군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⁷⁵⁾

이 지역의 핵심 인사는 북면의 포덕접주(布德接主) 이문보(李文甫)로 11월 5일 평창과 후평 등지에서 관군·일본군과 전투 후 체포 처형되었다. 평창읍 보고에 의하면 평창·후평 등지에서 동학 1만여 명과 전투하여 그중 100여 명을 쏘아 죽였고, 연이어 접주 이문보 등 5명을 잡아서 목을 베어 사람들을 경계하고 정선 등지로 추격하여 들어갔다고 한다. 소모관 정준시도 “호서(湖西)의 4개 군에서 비류 5천여 명을 피어서 들여와 이처럼 큰 변란을 일으켰으니, 그가 한 짓을 따져보면 죄가 거괴(巨魁)보다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⁷⁶⁾ 인원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충청도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농민군이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정선

정선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정선의 대표적 동학 지도자는 남면 유평리 출신인 유도원(劉道元)이다. 그의 본명은 시헌(時憲)으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동학에 입도하였고 최시형·강시원 등과 함께 갈래산 적조암에서 49일 기도를 드리는 등 동학 포교에 앞장섰다. 동학도접주(東學都接主)로 활동하면서 동학 교단 재건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⁷⁷⁾ 이후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기에는 정선군에서 접주로 참여하여 ‘비괴’로 지목되어 두 아들 유탉하·유학종과 부인 최시화와 함께 흩어져 피신하였다.⁷⁸⁾ 강원도 지방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중요 기록인 강릉부사 이회원의 『동비토론』에는 정선 비괴로 유도원을 지목하였는데,⁷⁹⁾ 도원(道元)은 유시헌의 자(字)인 도원(道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탉하·유학종 형제는 1895년 3월 또다시 평창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⁸⁰⁾

정선의 동학농민군들은 인접 지역과 연합하여 9월 4일 강릉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후에는 여량마을을 중심으로 접소를 설치하였고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항쟁하였다.⁸¹⁾ 정선읍에서는 11월 3일 3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 기세가 대단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11월 4일 강릉부사 이회

74) 『東匪討論』, 1894년 11월 3일.

75) 『東匪討論』, 1894년 11월 3~4일.

76) 『東匪討論』, 1894년 11월 10일; 『甲午軍政實記』 「招募官鄭駿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77) 劉時憲, 『崔先生文集道源記書』(1879년 간행).

78) 劉澤夏, 『東學亂中記』(1945년 이전 기술).

79) 『東匪討論』 「傳令臨溪面留陣中軍副吏房及李世完姜東五等」.

80) 『東學亂中記』, 1895년 3월 1일.

81) 『東匪討論』, 1894년 11월 3일.

원은 부상(負商)의 우두머리인 반수(班首)와 접장(接長) 등에게 전령을 보내 건장한 자 30명을 동원 토벌토록 하였다. 또한 인접한 임계면과 강릉 옥계면의 면임과 집강에게도 각 동의 백성을 징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군율로 처벌하겠다고 강박하였다. 정선과 평창의 농민군 토벌을 위해 순무영에서는 800명의 포군을 보냈고 일본군 2개 중대도 이곳까지 와서 정선읍 군병 300명과 함께 11월 5일 농민군 거점을 기습 공격하였다.⁸²⁾ 그 결과 접사 이증집(李仲集)을 비롯한 김윤언(金允彦)·임순철(林順哲) 등은 11월 6일 여량에서 중군 이진석과 출신 조철승이 이끄는 민보군에게 체포 처형되었다.⁸³⁾ 이후 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정선에서는 일본 병사가 강원도 곳곳에서 생포한 120명을 문초하였다. 그 과정에서 11월 8일 소모관 맹영재가 정선군의 포군 남복흥(南福興)·신정숙(辛正叔)·이상선(李祥善) 등 3명의 자복을 받은 후 군민들을 모아놓고 효수하였다.⁸⁴⁾

5) 인제

인제의 동학농민군은 3명이다. 인제는 1880년 『동경대전』 초간본인 경진본 목활자본을 발간한 곳이지만 1894년 동학농민군이 집단으로 봉기한 곳은 아니다. 1881년 6월 최시형이 『용담유사』 수백 부를 간행하여 각포(各包)에 널리 보내 알렸다. 이때 인쇄 비용은 인제군 접소가 전담하였는데 일명 김현수(金顯洙)인 김치운(金致雲)은 김연호·장춘보·김현경·장세원 등과 함께 주관하였다.⁸⁵⁾ 김치운은 1894년 정월 동학교도가 각처에 포소(包所)를 설치할 때 인제에 포를 설치하였고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인제 지역에서 기포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⁸⁶⁾ 김계원(金桂元)은 일찍이 1879년 해월 최시형이 김현수의 집에서 치성을 드릴 때 참여하여 초헌을 담당하였다.⁸⁷⁾ 그는 1894년 당시 63세로 인제군 남면 고달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류(匪類)와 내통하여 인심(人心)을 어지럽혔다”라는 이유로 법무아문 고등재판소에 잡아와 특별히 심문하였다. 판결 결과 『대명률(大明律)』 「제사편(祭祀編)」, “인민을 선동하고 미혹시킨 종범(從犯)”의 규정에 따라 1895년 4월 10일 장 100대에 3,000리 유배의 형벌에 처해졌다.⁸⁸⁾ 최우범(崔禹範)은 최시형이 동학농민군 활동 실패 후 강원도 인제로 피신해 와서 있을 때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였다.⁸⁹⁾

82) 『東匪討論』, 1894년 11월 3~5일.

83) 『東匪討論』, 1894년 11월; 『甲午軍政實記』 「江陵府使李會源爲牒報事」, 12월 12일.

84) 『甲午軍政實記』 「召募官鄭駿時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85) 康弼道, 『東學道宗釋史』 「第八章 遺蹟刊布及降書」.

86) 『甲午東學亂』 「第六十九章 甲午東學亂」.

87) 『崔先生文集道源記書』; 『天道教書』 「第2編 海月神師」; 『東學道宗釋史』 「第七章 設儀祭文」.

88)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개국 504년 4월 10일.

89) 『均菴丈林東豪氏略歷』.

6) 양구

양구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양구읍 한전리 거주 이중항(李重尙)은 1894년경 동학에 입도하였다.⁹⁰⁾ 그는 해월 최시형이 강원도 양구로 피신해 와서 있을 때 자신의 집을 3개월 정도 거처로 제공하였다고 한다.

7) 홍천

홍천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는 48명이다. 경기도 지평에서 온 고석주(高錫柱)·이희일(李熙一)·신창희(申昌熙)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수백 명은 1894년 9월 무렵부터 홍천에 접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⁹¹⁾ 그런데 이들은 9월 12일 팔봉에서 맹영재가 이끄는 변복한 관포(官砲)와 사포(私砲)의 유인책으로 사로잡혔다. 강원도는 영서 전역에서 지평현감이자 소모관 맹영재의 동학농민군 토벌에 중형무진 활약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맹영재는 민보군을 이끌고 농민군과 접전하거나 수색을 통해 체포한 농민군을 참수 효수하거나 총살하였다. 맹영재는 이희일과 신창희를 총살하였고, 고석주는 그 자리에서 참수하고 김철원(金鐵原) 등 3명을 향도로 삼아 팔봉의 농민군 수색에 앞장세웠다.⁹²⁾

이후 홍천의 농민군은 대접주 차기석(車箕錫)이 지휘하였다.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5개 군현의 접주로 불린 차기석은 1천여 명을 이끌고 홍천군 내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⁹³⁾ 차기석 부대는 9월 말부터 농민군을 소집하여 11월까지 홍천·강릉·봉평 등지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러던 중 10월 21일 맹영재 부대와 화촌면 장야평에서 접전하였고, 22일 밤에는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⁹⁴⁾ 당시의 전투 상황을 맹영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0월 21일 행군하여 홍천 장야촌(長野村)에 이르러 비적 3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다음 날 방향을 바꾸어 서석면에 이르니, 비적 수천여 명이 흰 깃발을 세우고 진(陣)을 치고 모여 있기에 총을 쏘며 접전하였는데, 이때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은 그 수를 알 수 없고 사로잡은 놈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강제로 끌려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일일이 타일러 귀화시켜 생업에 안착하도록 한 뒤 바로 돌아왔습니다.⁹⁵⁾

9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증인 이중항 조서」.

91) 『啓草存案』, 갑오년 9월 26일.

92) 『甲午軍政實記』 「京畿監司申獻求爲膽報事」, 갑오년 9월 26일.

93) 『東匪討論』, 갑오년 11월.

94)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일.

95) 『東匪討論』, 갑오년 10월 21일.

동학농민군 측도 당일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홍천의 차기석이 동학군을 모았다가 전 감역 맹영재가 나아가 공격하여 동학군의 죽고 상해를 입은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불을 지르고 갑작스럽게 격파함으로 홍천 서석 일대는 사람의 자취가 영원히 끊겼다.⁹⁶⁾

10월 23일 황성현감 유동근은 인접 경기도 여주·양군·지평 및 춘천의 포군과 현의 포수 1천여 명과 함께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서석면으로 들어와 농민군 집결지에 총을 쏘아 수백 명을 살해하였다. 25일에는 전투 중 부상 상태에서 도망가다 체포된 오복선(吳福先)을 진영 앞에서 목을 베었다. 체포한 심낙서(沈洛西)와 김지현(金之玄) 등 18명은 강요를 면할 수 없어 동도에 들어간 자들로 판단하여 엄중히 타일러 풀어주었다.⁹⁷⁾ 이후 차기석도 11월 12일 봉평 내면 원당리에서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강릉으로 이송 후 22일 소모사가 교장에서 처형 효수하였고 그의 머리는 원주 순무영으로 보냈다. 민보군에게 체포된 지덕화(池德化)와 박석원(朴碩元)·오덕현(吳德玄)은 문초 후 총살하고, 나머지 9명은 개고기를 나누어 먹인 후 풀어주었다.⁹⁸⁾

그런데 홍천에서는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아전들이 이들의 가옥을 몰수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12월 홍천의 수리향(首吏鄉)이 이태범(李台範)과 김우현(金友鉉)은 개접(開接)하여 무뢰배들을 모아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돈과 곡식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하였다가 물의를 빚자 되돌려 주고 옥에 갇힌 일도 있었다.⁹⁹⁾ 10월 홍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 처형된 것으로 분류된 강경춘(姜京春)·고진성(高辰成)·조희준(趙希俊)은 『갑오군정실기』에는 황성지역 참여자로 기록되어 있다.

8) 원주

원주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1894년 9월경 원주 동도리의 접주 이희중(李喜鍾)이 충주 목계로 가서 일본 병사 2명을 살해하고 제천 화암리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¹⁰⁰⁾ 당시 그는 경기도 음죽접주 이기영과 충청도 제천접주 정식과 제휴하고 있었다. 이희중은 원래 음성 출신이었기 때

96)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97) 『甲午軍政實記』 「春川留守任商準爲牒報事」, 갑오년 11월 3일; 『甲午軍政實記』 「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1월 9일.

98) 『東匪討論』 「傳令內面行陣所諸從事官」, 갑오년 11월 17일.

99) 『甲午軍政實記』 「傳令洪川縣監徐學淳」, 갑오년 12월 5일; 『甲午軍政實記』 「洪川縣監徐學淳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6일.

100)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문에 충청도까지 활동무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장(敎長) 김화보(金化甫)의 지도로 입도한 장우근(張友根)·박삼석(朴三石)·김기순(金己順)·김진해(金辰亥)·이점복(李占卜)·손재규(孫在圭)·안재풍(安在豐) 등도 농민군에 참여하였다. 박학종의 집을 빼앗아 접소로 삼아 활동하던 김화보는 소모관 맹영재에게 체포되어 10월 18일 지평현 홍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목은 강원감영으로 보내졌다.¹⁰¹⁾ 장우근 등의 체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순무영의 회답에 “도망간 놈들은 반드시 잡아 죽이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아 김화보만 체포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주 의병소에서는 11월 6일 원주 서면 덕평리에서 사로잡은 한석룡(韓錫龍)을 “충청도 내 포에서 살다가 기내(畿內)에 들어와 의병소의 기밀을 정탐했다”는 자백을 받고 처형하였다.¹⁰²⁾

한편 원주 귀래면의 집강 이규하(李圭夏)는 1894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해당 면에 접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1895년 4월 충청도 충주 소태양면 구룡동 김 아무개 집에 숨어있다가 진사 이철화가 인솔한 포군에게 체포된 후 군교와 나졸을 통해 법무아문으로 압송되었다.¹⁰³⁾ 접주 신택우(申澤雨)는 기포령에 따라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한참 후인 1898년 정월 1일 경기도 음죽 양산동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어 이천군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이용구·김낙철 등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경성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수원 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¹⁰⁴⁾ 원주 진거리 출신인 임순호(林淳灝)는 농민군 2차 봉기 시 원주에서 참여한 뒤 1898년 3월 경기도 여주에서 체포되어 풀려났다가 서울에서 다시 체포되었다.¹⁰⁵⁾ 이 지역 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어 있는 임순호와 임순화(林淳化)는 그 활동 기록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9) 횡성

횡성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접주는 윤면호(尹免鎬)다. 그가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횡성의 동학 두령으로 이에 동참하여 기포하였던 사실이 『갑오동학란』과 『천도교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그에 관한 더 이상의 내용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다.

횡성에서는 소모관과 함께 원주군 포군 28명, 횡성현 포군 100명, 창군 50명이 10월 17일 횡성현을 출발하여 같은 군 청일면 춘당리에 주둔하였다. 춘당리는 홍천 서석면 경계에 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20일 500여 명의 농민군이 진중을 기습하였다. 소모관이 이에 접전하여 많은 수의 농민군을 살해 토벌하고 그중 10여 명을 생포하여 일부는 타일러 풀어주고 이들 중 부두목 조희준과 고진성의 목을

101)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0월 21일.

102) 『甲午軍政實記』 「砥平縣監孟英在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103) 『司法稟報』 「江原監營來牒」(175호) 및 「廣州府來牒」(176호), 을미년 4월 19일.

104) 『東學道宗釋史』; 『侍天教宗釋史』.

105) 『甲午東學亂』 「第六十九章 甲午東學亂」; 康弼道, 『東學道宗釋史』.

배어 경계하였다.¹⁰⁶⁾ 이들은 홍천 농민군으로 등재되어 있다. 횡성 남면에 거주하던 신성무(申聖武)는 이곳으로 피신한 최시형과 임학선·임학기 형제가 오랜 기간 은신할 수 있도록 거처를 주선하고 750냥의 금전과 연초 4근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¹⁰⁷⁾

10) 기타

1894년 9월 4일 영월과 평창·정선 등 5개 읍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부사가 바뀌는 때를 엿보아 일제히 강릉부로 들어와서 삼정(三政)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사실¹⁰⁸⁾로 보아 영월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월의 나교장(羅敎長)과 삼척의 황찰방(黃察訪)이 수천 명의 농민군을 이끌었다고 한다.¹⁰⁹⁾ 경기도 음죽 출신 농민군 수접주 이기영도 민보군에게 체포된 후 영월·평창·정선 등의 읍에 가서 군기를 탈취하고 군량을 징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¹¹⁰⁾ 영춘현감도 11월 초 각 처의 동도(東徒) 몇천 명이 영월에 모여 있다가 평창으로 옮겨갔다고 들었고 이때 영월에서 체포한 동도 2명을 사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¹¹¹⁾

황찰방 외에 1894년 11월 당시 삼척부 도상면 유천동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파악되나 농민군 참여자의 이름은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정선의 대전 및 궁전곡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정선과 삼척의 경계를 왕래하고 있었고 강릉부사 이회원은 이들이 강릉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삼척부사에게 많은 군정을 징발할 것을 지시하였다.¹¹²⁾ 한편 영월·정선·평창 등지에서 피신한 농민군들은 이후 삼척 상하장면으로 도피한 바 있다.¹¹³⁾ 이후 12월 2일 강릉부사는 기찰군관을 파견하여 삼척 등지에 숨어있는 농민군 잔여 세력의 체포에 주력하도록 하였다.¹¹⁴⁾

106) 『甲午軍政實記』 「橫城縣監柳東根爲牒報事」, 10월 28일.

107) 『均菴丈林東豪氏略歷』.

108) 『東匪討論』 「在營」, 갑오년 9월 8일.

109)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갑오년 9월.

110) 『甲午軍政實記』 「陰竹縣監金鍾遠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0일.

111) 『甲午軍政實記』 「永春縣監申肯休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4일.

112) 『東匪討論』 「關三陟府使」, 갑오년 11월 8일.

113) 『東匪討論』 「關三陟府」, 갑오년 11월 20일.

114) 『東匪討論』 「關三陟鎮營」, 갑오년 12월 2일.

4. 황해도

황해도는 강령·곡산·문화·배천·봉산·송화·신천·안악·연안·은율·장당현·장연·재령·평산·풍천·해주 등 17개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 내역과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동학농민군은 뒤늦게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황해도는 전도의 2/3 이상이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고, 다른 지역이 1895년 초반에 대부분 종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1896년까지도 지속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거점은 문화 구월산과 재령 장수산, 해주 수양산 등이었다. 황해도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단 지도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 장연

장연의 동학농민군은 10명이다. 황해도 농민군 활동은 장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연 신화방에 거주한 백낙희(白樂喜)는 1894년 7월 동학에 입교하여 교장(敎長)이 된 후 구월산 산포(山砲)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¹¹⁵⁾ 이 지역 농민군은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관아를 점령하고 무기를 빼앗고 양민의 재산을 약탈하여 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황해도 병마절도사 이용관의 전보에 의하면 수만 명의 동학군이 장연에서 일어나 해주성에 들어가 군기를 빼앗고 감사 김춘희를 협박하고 판관을 묶자 감영에서는 각 촌의 사냥꾼 800명을 동원하여 성문을 지켰다고 한다.¹¹⁶⁾ 정양(鄭樑)은 접주로서 1894년 가을경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에서 관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¹¹⁷⁾ 이 지역의 농민군들은 큰 가마 3~4개를 갖춘 화약 제작소를 두고 있었고 구식 조선 대포 몇 문과 포탄까지 구비하고 있었다.¹¹⁸⁾ 목감리 부호로 자진하여 동학에 입도한 이윤세(李允世)는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간 후 가짜 상어를 이용하여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¹¹⁹⁾

백낙희는 이후 1895년 12월 다시 봉기하여 동생 낙규(樂圭)와 각 동의 백성들을 지휘하다가 1896년 2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를 전양근(全良根)·백기정·김계조(金啓祚)와 모의하고 김의순·백낙규는 그 수종이 되어 반란을 꾀했다고 진술하였다.¹²⁰⁾ 그런데 이를 기획한 ‘전라도 김진사’ 또는 ‘진동창의사’로 불리던 김형진(金亨鎭)은 백낙희에게 봉기하여 해주와 서울까지 점령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115) 『司法稟報』 「重犯供招」, 白樂喜 招辭, 建陽 원년 2월.

116)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3, 1894년 9월 27일, 164쪽.

117) 『天道教會史草稿』(1920), 466쪽.

118)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大日本 陸軍歩兵少尉 鈴木彰 講話」, 明治 28年 3月 7日.

119) 천도교 중앙총부 교사편찬위원회, 1981 『天道教百年略史』, 240쪽.

120) 『司法稟報』 「長淵郡守廉仲謨報告」, 建陽 원년 2월 30일.

그리고 김창수의 종조부 김재희와 더불어 장연군에서 산포(山砲) 중심의 ‘동비여당(東匪餘黨)’을 동원한 한·중 연합 의진 결성과 새로운 국가 구상을 도모하였다.¹²¹⁾ 그는 백낙희와 김재희로 하여금 산포와 백성들을 모아 장연군을 습격하여 군수와 관속·아전들을 모두 살해한 후 해주·안악·문화 등 각 군 산포를 모아 해주부를 점령하고 이곳에 진동창의소(鎭東倡義所)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후 청국에서 마대인(馬大人)이 의주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면 합세하여 서울로 진공하여 양왜(洋倭)를 토벌하고 각 대신들을 죽이고 이씨 왕조를 전복하여 해도(海島)의 정씨(鄭氏)를 임금으로 추대하자는 변란적 성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적극 동조한 백낙희도 정감록(鄭鑑錄) 사상의 기반 위에서 양왜 토벌을 주장하였다. 김형진은 청국 군대의 출병과 함께 자신은 평안·전라·황해 3도의 도통관으로, 백낙희를 장연 선봉장으로 하여 재봉기를 기도하였다. 평안도 및 전라도 세력과의 연대를 기획한 점도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체포된 백낙희 등 6명은 그해 4월 6일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무릇 모반을 공모한 자는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는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해졌다.¹²²⁾ 체포를 면한 포수 중 강성일(康成日) 등 4명은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였다.¹²³⁾

2) 해주

해주의 동학농민군은 19명이다. 해주를 대표하는 동학농민군은 수접주 임종현(林宗鉉)으로 1894년 10월과 11월에 해주 감영을 점령하였고 황해도 문화·달천 등지에서도 활동하였다. 일본 소위 스즈키 아키라(鈴木彰)의 담화를 비롯한 각 자료에는 그를 ‘황해도 동학당 거괴’로 기록하고 있다.¹²⁴⁾ 10월 6일 해주성 밖 서남 방향의 취야장에 모인 임종현이 이끄는 수만 명의 농민군은 동학 금지의 명령을 완화하고 민폐(民弊)와 읍막(邑瘼)을 통렬히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산·배천·연안·재령·신천·문화·장연·옹진·강령 등지에서 집합한 농민군은 10월 25일 동서에서 협공하여 해주성을 점령하였다. 당시 스즈키의 보고에 의하면 성문 밖까지 접근한 자가 6천~7천명, 또 1리 밖에 있는 자가 1만명, 3리 밖에 떨어져 있는 취야장에 1만 3천~1만 4천명이 있었다. 그 총수를 합하면 무려 3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는 4명의 황해도 농민군 지도자로 임종현과 원용일·김명선·김영하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은 ‘가짜 동학당(僞東學黨)’이자 가장 흉악한 무리로 규정하였다.

121) 『司法稟報』 「重犯供招」, 白樂喜 招辭, 建陽 원년 2월.

122) 法部 刑事局, 『起案』, 建陽 2년 5월 30일.

123)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李垠鎔報告」, 光武 3년 3월 6일.

124) 鄭顯奭, 『甲午海營匪擾顛末』;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大日本 陸軍歩兵少尉 鈴木彰 講話」, 明治 28년 3월 7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日本士官函牘』.

이들 중 임종현은 스스로 감사의 위치에 오르고 성재식(成在植)을 강령현령, 이용선(李容善)을 안악 군수, 최득수(崔得秀)를 해주판관, 기타 부사와 군수로 할 인물을 선정하였다. 접주 김명선(金明善)은 해주 수대산에 108명의 무리를 모아 양산박(梁山泊)을 자임하고 원근에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한다.¹²⁵⁾ 성재식은 이용선·임종현과 함께 황주와 재령·해주·봉산 등 각 읍에 통문을 내어 각자 총과 칼을 지니고 기린역과 탁영대에 취회하였고,¹²⁶⁾ 체포 후 서울로 압송되어 서소문에서 처형 효수되었다. 접주 이용선은 기린역 등을 지나면서 전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을 헐고 불을 지르다가 3천여 명을 이끌고 평산의 용두촌에 주둔하던 중 민영룡 등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¹²⁷⁾

최유현(崔瑠鉉)과 오응선(吳膺善)은 제2차 봉기 시 해주의 동학 두령으로 동참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에서 관군과 6~7차례 전투를 벌였다.¹²⁸⁾ 이에 해주 감영과 용산의 일본 병사가 연합 토벌대를 구성하고 취야장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강령으로 전진하였다. 이때 농민군은 대패하였고 접주 민경순(閔景淳)·민원장(閔元長)·이제석(李濟石) 등 3명이 체포되어 11월 13일 해주 남문 밖 훈련원에서 군민이 모인 가운데 효수되었다.¹²⁹⁾ 한편 같은 11월 농민군 토벌 차 기수 박삼손 등이 해주부의 노비 10여 명을 이끌고 강령으로 진출하였는데 기미를 알아차린 접주 김영후(金永厚)와 강경우(姜京禹)는 도망하였고,¹³⁰⁾ 이들의 집은 수색 후 물자와 곡물·소 등이 몰수되었다.

해주에서는 의려(義旅) 안태훈(安泰勳)이 11월 임종현의 화포영장 김동범(金東範)·김인범(金仁範)·김산석(金山石) 등을 체포 총살하고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 투구 1건 등을 수습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올려보냈다. 관찰사 정현석은 감영에서 체포한 접주 김기원을 군사와 백성을 모아놓고 효수하였다.¹³¹⁾ 화포영장 김선장(金善長)은 몸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었으나 이후 1896년 7월 순검에게 체포되어 취조받고 법률 제2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된 장소나 혹은 큰길에서 주먹과 발, 몽둥이 혹은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 혹은 살상하여 재물을 갈취한 자는 우두머리와 따르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율에 따라 9월 19일 교형으로 처형되었다.¹³²⁾

125) 『甲午海營匪擾顛末』, 1894년 10월 28일 및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26)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6일.

127)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4일.

128)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29)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奭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7일. 이들 3인 중 민원장의 체포 및 처형에 대해서는朴周大의 『羅巖隨錄』 1894년 11월 조에 실려 있다.

130) 『甲午軍政實記』 「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1일. 『天道教書』(1920년 간행)에 의하면 김영후는 제2차 기포 당시 해주의 ‘대두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131)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奭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3일.

132)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閔泳喆報告」, 건양 원년 9월 24일.

3) 백운

백운은 해주 북서부 송화 경계에 위치한 백운방(白雲坊)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창과 장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 동학농민군은 백운 접주 정해익(鄭海翼) 1명으로 그는 팔봉 접주 김창수(김구)와 함께 1894년 9월 기포한 인물¹³³⁾로 따로 분류되었으나 해주 출신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4) 장당현

장당현의 동학농민군은 6명이다. 해주성의 북문 밖 지역인 장당현(將堂峴, 일명 將臺峴)에서는 10월 27일 일본군 포군과 동학농민군 간에 격렬한 접전이 있었다. 이때 체포된 허원일(許元一) 등 10명은 동학을 배반하고 귀화 의사를 밝혀 석방되었다. 이에 반해 도령포수(都領砲手) 이인석(李仁石)을 비롯한 여원필(呂元必) 등 5명은 ‘접주와 화응하여 성을 침범하고 변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즉결 처단되었다.¹³⁴⁾

5) 강령

강령의 농민군은 3명이다. 임종현 주도 황해도 농민군은 강령현으로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해주와 장연 등지에서 들어왔는데 이때 강령에 있던 농민군들도 크게 합세하여 영읍의 무기를 탈취하고 문부를 소각하고 관아를 파괴하였다. 다시 해주부로 들어가 10월 25일 감영을 점령하고 황해도 관찰사를 축출하였다. 이에 포군 100명과 일본 병사 50명이 취야장으로 진공하여 대적하였고 농민군은 패퇴하였다. 11월 기수 박삼손 등이 해주부의 노비 10여 명을 이끌고 강령으로 진출하자 기미를 알아차린 접주 김영후와 강경우(姜京禹)는 피신하였고 이들의 집은 수색 후 물자와 곡물·소 등이 몰수되었다.¹³⁵⁾ 그 과정에서 체포된 성재호(成在鎬)는 12월 서울에서 처형당했고, 성재석(成在錫)은 강령에서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에서 관군과 6~7차례 싸웠고 체포되어 거열형(車裂刑)에 처한 후 시체는 조리돌림 되었다.¹³⁶⁾

133) 천도교중앙총부, 1981 『天道敎百年略史』, 273 ~ 274쪽.

134)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甲午海營匪擾顛末』, 갑오년 10월 27일 자에 따르면 이날 “산포수 20여 명을 포살하고 15명을 사로잡았으며 나머지 무리는 패하여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0월 28일 자에는 “적 가운데 10놈은 억지로 협박하여 따른 것에 불과하니 특별히 풀어주었고, 포수 5놈은 일일이 사실을 자백하여 아울러 처단한 후에 사유를 갖춰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135) 『甲午軍政實記』 「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21일.

136) 『侍天敎宗釋史』 「第十一章 甲午敎厄」;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임종현과 김영하 등은 1895년 1월 문화의 구월산에 모여 신천·재령·옹진·강령 등 여러 군을 다시 공략하다가 2월에 일본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이들 중 김영하·오가인 등 17명은 접주·산포 등의 역할로 참여하다가 피신하였다. 그중 조사여와 성재식은 체포 처형되었지만 대다수는 종적을 감추었다. 성재식은 임종현이 강령 현감으로 선정한 바 있었다.¹³⁷⁾ 오가인의 조카 오현근은 각 동리에 방문을 붙여 ”동도의 세상에서는 나라에 조세를 바칠 필요가 없으니 각종 공납(公納)은 절대로 거두어 바치지 말 것이다“이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강령군의 세금 징수도 지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기포 당시 농민군 우두머리들을 집으로 불러 감사·목사·수령을 골라 뽑았다고 한다.¹³⁸⁾

6) 재령

재령의 농민군은 6명이다. 원용일(元容翹)과 오영창(吳永昌)·안이정(安履貞)은 재령을 대표하는 접주로 1894년 가을과 겨울에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 등지에서 관군과 접전하였다.¹³⁹⁾ 원용일은 한화석(신천 농민군 접주)·최창우(崔昌祐) 등과 함께 재령에서 봉기하여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¹⁴⁰⁾ 일본군 육군 소위 스즈키 아키라가 지목한 4명의 황해도 농민군 지도자의 한 사람인 그는 이후 부대를 이끌고 장수산으로 들어가서 완강하게 항전하였다. 임종현과 원용일은 황해도 동학농민군 활동 실패 이후 1900년에 3~4백 명을 모아 재령과 신천 등지에서 다시 기포하였지만 해주 지방대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습격하고 주위를 탐문 수색하자 강원도 등지로 피신하였고,¹⁴¹⁾ 이후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는다.

한편 양력 11월 28일(음 11월 2일) 일본군의 군량을 사 모으기 위해 재령에 온 일본 상인 5~6명을 농민군 1천여 명이 급습하였다. 그중 모쓰 구라요이시(牟津倉嘉市)·사사노 로쿠마쓰(笹野六松) 등 2명은 살해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당시 재령에는 성만기(成萬基) 휘하에 2~3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탐학한 관리를 제거하고 인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악으로 갈 계획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인에게는 적의가 없으며 그들을 살해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산곡조(山谷組)이고, 재령 관아를 공격하는 도중 이들 중 13명도 전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⁴²⁾ ‘산곡조’는 ‘산곡집’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137)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38) 『各府報告書』 『本縣匪魁姓名成冊』, 개국 504년 4월 7일. 奎.26142.

139)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40) 『天道教書』, 第2編 海月神師.

141) 『日新』, 光武 4년 3월 15일.

1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載寧地方東學黨情況報告』, 1894년 11월 28일.

재령의 하리(下吏) 출신인 강달조(姜達祚)는 1894년 겨울 접주가 되어 여러 곳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 수백 석을 징수하였다. 그는 1895년 봄 원용일이 수백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신천군을 불 지르고 재령으로 향할 때 동학도를 이끌고 영접하였다. 이후 원용일 포와 함께 장수산에 들어가 활약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청룡촌 강희열로부터 벼 27석을 징수하여 화포에게 나누어 주고, 장촌의 김침사로부터는 잡곡 36석을 징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¹⁴³⁾ 강달조는 이 일로 체포되어 법무아문으로부터 『대명률(大明律)』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요서와 요언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전하고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참한다”라는 법률과, 「백주창탈조(白晝搶奪條)」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는 장 1백, 도형 3년에 처한다”라는 법률과, 『형률명례(刑律名例)』의 “두 죄를 같이 지은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하라는 훈령¹⁴⁴⁾을 받고 해주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던 중 농민군의 해주부 습격 시 혼란을 틈타 1896년 4월에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하였고,¹⁴⁵⁾ 이후의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7) 평산

평산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평산부에서는 10월 13일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되었다.¹⁴⁶⁾ 해주로부터 나온 농민군 300여 명은 평산 누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해주 접주 임종현·최우현(최유현) 외에 김영하(金榮河)·홍성준(洪聖俊)·김양숙(金良淑)·이중칠(李仲七)·조국경(趙國景)·이치원(李致元)·박여달(朴汝達)·이용손(李龍孫)·김상진(金尙辰)·이원약(李元若)·이한봉(李漢鳳)·김창서(金昌瑞)·이도여(李道汝) 등이었다.¹⁴⁷⁾ 11월 4일에는 총과 창을 든 수천 명의 농민군이 관아에 들이닥쳐 관속과 주민들이 피난하였고 부사는 총수(葱秀)의 일본군 병참부에 급히 통지하고 금천병참부로 피신하였다. 그날 밤 10여 명의 일본군과 함께 좌우에서 공격하다 후퇴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공격해서 농민군 수십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 결과 농민군들은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관아 건물이 불타고 창고와 민가도 파괴되었다.¹⁴⁸⁾ 같은 기간 평산 북방 10리에서 일본인 기수(技手)가 공사 중 동학도 300여 명의 습격을 받아 금전과 물품을 약탈당했다. 이에 다음 날 아침 황주에서 온 8명의 일본 병참부 수비병은 평산에 진을 친 동학군을 공격하여 그중 12명의 목을 베고 화기와 도검 등 다수 노획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부 1명이 부상하였다.¹⁴⁹⁾ 이때 부사는 흩어진 노비들을 불러

143) 『司法稟報』「海州府觀察使李鳴善報告」, 1896년 1월 27일 제6호.

144) 『起案』(法部 刑事局), 1896년 3월 28일.

145) 『司法稟報』「海州府參書官金孝益報告」, 1896년 4월 9일.

146) 『甲午海營匪擾顛末』, 갑오년 10월 13일.

147) 『駐韓日本公使館記錄』「東學黨征討關係에 관한 諸報告 : 當葱莠驛附近 東學黨事件에 관한 情況 概報」.

148) 『甲午軍政實記』「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1월 9일.

149) 『二六新報』「東學黨征伐公報」, 1894년 12월 5일.

모으고 일본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수색하여 10여 명을 체포 수감하고, 이들 중 거괴와 접주는 효수하였다.¹⁵⁰⁾

연안부사의 효유문에 따르면 11월 26일 평산의 접주 홍좌경(洪佐卿)과 조원회(趙元會)가 단자를 제출하고 귀화 의사를 밝혀 이들을 타이른 후 풀어주었다고 한다.¹⁵¹⁾ 그러나 12월 13일 평산의 동학도가 재령과 신천의 농민군을 누천 장터에 소집하였다고 하는 후속 보고로 보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¹⁵²⁾ 이는 이전 11월 23일 해주 안악의 수접주 임종현이 평산 수접주에게 ‘창의소’ 명문의 통문에 호응하여 창의 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⁵³⁾ 그러나 12월 15일 이용손 등은 관내 기린역과 용두촌 등지에 모여 관군·부상·민보군 등 연합토벌군과 총 5차례의 접전 끝에 패배하여 이들 중 10여 명은 참수되고 25명은 사로잡혔다, 평산부사는 “이들 비류 가운데 사로잡은 자들은 지난번에 잘 타일러 귀화했던 자들이었으나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한 번 싸우고는 목을 내놓고 두 번 싸우고는 달아났다”¹⁵⁴⁾고 평가하였다.

8) 문화

문화의 동학농민군은 7명으로 구월산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도 10월 13일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되었다.¹⁵⁵⁾ 그러나 이 지역 출신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동학농민군 봉기와 참여한 인물들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익주(康益周)와 김익하(金益河)는 동학농민군 제2차 봉기 시 문화의 동학 두령으로 이에 동참하여 기포하였다.¹⁵⁶⁾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박승화(朴承和)는 자기 집에서 전판(錢板)을 만들어 이시화(李時化)·이용여(李用汝)·류길용(柳吉用) 등과 함께 사주전(私鑄錢)을 제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¹⁵⁷⁾ 접주 윤기호(尹基鎬)와 임주엽(林周葉)·이흥림(李興林)·정종혁(鄭宗赫)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신천·재령·송화·장연 등지에서 관군과 6~7차례 전투하였다.¹⁵⁸⁾

150)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1일.

151) 『甲午軍政實記』 「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152) 『甲午軍政實記』 「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1일.

153)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敬通, 平山 首接主」, 甲午 11月 23日 卯時 倡義所.

154) 『甲午軍政實記』 「平山府使李彰烈爲牒報事」, 갑오년 12월 24일.

155) 『甲午海營匪擾顛末』, 갑오년 10월 13일.

156)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57) 『司法稟報』 「海州府觀察使李明善報告」, 1896년 1월 30일.

158)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9) 송화

송화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갑오해영비요전말』 1894년 10월 14일 자에 따르면 “송화현·문화현·평산부·조니진·오우진·용매진이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차 일본군의 후일 기록에도 “1894년 11월 하순 황해도 지방의 폭도는 평산·강령·연안·황주 부근 송화·장연의 각지를 소란스럽게 하여 병참사령부 역시 그 습격을 받았다”¹⁵⁹⁾고 되어 있다. 『동학도종역사』를 저술한 양암(良菴) 강필도(康弼道)는 접주 방찬두(方燦斗)와 같이 접주로서 기포 후 송화군의 동학군으로 참가했다.¹⁶⁰⁾ 한편 어은동의 구마가야(熊谷) 병참사령관의 전보에 따르면 양 1895년 1월 20일(음 1894년 12월 25일) 봉산에서 파견된 야마나카(山中) 소위의 부대가 송화에서 동학당 5백여 명과 조우해 1시간여 동안 고전한 끝에 그들 중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물리쳤다고 한다. 이때 일본군은 농민군들로부터 총 50정, 창 5자루, 깃발 3개, 기타 서류 등을 노획하였다.¹⁶¹⁾

10) 은율

은율의 동학농민군은 18명이다. 은율현을 대표하는 접주인 윤도경(尹道京)은 문화의 윤기호와 함께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 대봉기에 참여하였다.¹⁶²⁾ 이후 은율에서는 11월 4일 밤 400 ~ 500명의 농민군이 총을 쏘고 관아에 돌입하여 군기고를 부수고 무기 및 집기를 약탈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방 및 문호(門戶)와 집무실 등을 파괴하고 서류를 불태웠다. 이들은 현감에게 “너는 관장이 되어 무엇에 근거하여 일본 진을 왕래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각지 인민에게 명령하여 동학당에 입당하는 것을 막는 것인가?”라고 질책하였다고 한다.¹⁶³⁾ 당시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은 접주 정낙운(鄭洛云)·김계문(金季文)·정남종(鄭南宗), 접사 여규철(呂奎喆)·박성원(朴聖元)·방계국(方季國)·경내현(景乃玄)·한영국(韓永國), 도집 박제희(朴齊希), 영장 김준모(金俊模)·권광일(權光一)·경창일(景昌一)·서강순(徐江淳)·여인대(呂仁大)·황시우(黃時右)·정육종(鄭六宗)·홍태모(洪太模) 등이었다. 이들이 약탈한 물건은 총 340정, 탄환 2만발, 쇠장 300자루, 화약 1,500근 등이었다. 이들을 지휘한 사람은 당시 문화현 달천에 머물고 있던 수접주 임종현이었다. 은율에서는 이후에도 농민군이 활동하였는데, 1895년 5월

159) 『駐劄日本軍歴史』「第三章 日清戰役間ニ於ケル帝國駐劄部隊ノ行動」.

160) 『東學道宗釋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61) 『東學黨ノ狀況』「漁隱洞熊谷兵站司令官ノ電報」(58), 1895년 1월 30일.

162) 『東學道宗釋史』「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曹難」.

163) 『駐韓日本公使館記錄』「黃海道 東學黨情況에 관한 報告」, 「別紙 戊號: 東學徒殷栗縣襲擊奪取物品 書面陳述」, 1895년 1월 15일.

은율현감의 밀고에 따라 일본군 예비대 중에서 약 2개 분대를 파견해서 문화에서 3명, 은율에서 13명의 농민군 잔여세력을 체포한 바 있다.¹⁶⁴⁾

11) 안악

안악의 동학농민군은 2명이다. 동학 대두령 김봉하(金鳳河)는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하였고,¹⁶⁵⁾ 김석구(金錫龜)는 접주로서 재령 접주 안이정과 함께 참여하였다.¹⁶⁶⁾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는 원용일이 동학군을 이끌고 해주·송화·안악·재령·봉산군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⁶⁷⁾ 당시 일본군 병참사령부도 “(양 11월 23일; 음 10월 26일) 봉산과 검수의 수비병 일부를 재령과 안악 방면으로 파견하여 적을 진압할 것을 명 받았다. 다만 참으로 동학당인가 폭민(暴民)인가는 지금 취조 중이고 자세한 것은 이후 알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다.¹⁶⁸⁾ 별관관 홍재준의 자필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0일) 동학도가 안악·신천 등지에 모여 일본군과 접전하려고 수천 명이 해주로 다시 들어와 영을 넘으려고 할 때, 일본군이 마침 당도하여 역습해서 포를 쏘아 죽인 자가 거의 백여 명이 되고 나머지는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일본군이 뒤쫓았지만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¹⁶⁹⁾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도 큰 전투와 많은 농민군이 전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2) 봉산

봉산의 동학농민군은 15명이다. 김응중(金應鍾)은 접주로서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¹⁷⁰⁾ 접주 임중호(林仲浩)도 김응중과 함께 대봉기에 참여하였다.¹⁷¹⁾ 12월 11일 일본군 검수수비대의 보고에 의하면 봉산 남쪽으로 대략 30리에 있는 냉정에 거주하는 박 접주·노(魯) 접주·신원천(申園天) 등 3명의 거괴가 봉산군수에게 호소차 가는 도중인데 이들은 사리원과 서동에 모여 있는 동학도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고에도 수많은 동학당이 장연에 집합해서 일부는 재

164) 『駐韓日本公使館記録』 「殷栗과 文化에서 東學徒 逮捕」, 1895년 5월 12일.

165)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166) 『東學道宗釋史』, 335~336쪽.

167)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168) 『二六新報』 「朝鮮暴徒의 襲擊 廣島特派員電報」, 1894년 11월 27일.

169) 『甲午軍政實記』 「別軍官洪在駿爲手本事」, 갑오년 11월 14일.

170)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71) 『東學道宗釋史』 「第十三章 松菴傳授戊戌曹難」.

령과 봉산 사이의 은파에 집합해 있다고 되어 있다.¹⁷²⁾ ‘거괴’로 표현한 이순서(李順西)는 12월 13일 흥곡촌에서 일본군 토벌대에게 체포되어 연행하려 했으나 반항하고 명에 따르지 않아 총살되었다.¹⁷³⁾ 이후에도 일본군은 봉산 부근에 아직 동학도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듣고 1895년 1월 12일 두 개의 길로 척후병을 파견하여 7 ~ 8명의 농민군을 살해하고 접주 1명과 우두머리 6명을 포획해서 봉산병참부에서 조사하였다.¹⁷⁴⁾ 2월 8일 황주에서 파견된 조선군 130명이 봉산에 있던 조선군 150명과 협력해 은파 부근의 농민군을 격퇴하고 무기와 미곡을 노획하였다.¹⁷⁵⁾

봉산군 사원참에 거주하는 송윤화는 1895년 1월 농민군 화포수 이원조(李元早, 미등록자)에게 포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1896년 8월에 그를 잡아 관에 바친 일도 있었다.¹⁷⁶⁾ 재령의 동학도 수백 명이 이곳까지 진출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총으로 쏘아 죽이고 불을 지르며 쓸고 지나갈 때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고, 불에 타 버린 민가가 300여 호였다고 한다. 이원조는 9월 법부에서 교형(絞刑)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지만 형 집행 이전 ‘설사병’으로 옥중 사망하였다.¹⁷⁷⁾

봉산군 봉의포(鳳儀包) 접주 신석권(辛錫權, 일명 辛錫滿)은 임종현의 지휘를 받아 임익운·김낙천·이규서 등과 함께 기포하였다.¹⁷⁸⁾ 그는 각도에 통문을 돌려 스스로 ‘청병의 전구(前驅, 선도자)’라 자임하면서 협력하여 반일 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¹⁷⁹⁾ 신석권은 이후 1895년 9월 23일 수동포(壽東包)와 서북로 화포 도영장 양영석 등에게, “황해·평안 양 도의 도인이 청병 영접 차 이달 초 5일에 일제히 장수산성에 모여 기회를 보아 기포할 것이다”¹⁸⁰⁾라는 내용의 경통(敬通)을 보낸 바 있다. 전직 병정 및 산포수 무리들로 ‘도인’을 표방한 신석권은 장수산성 김원교 부대의 일원으로 판단된다. 임종현도 패전 후 장수산에서 합류하였다. 신석권은 자신의 지역인 황해도뿐 아니라 평안도 동학교도와 함께 청병을 영접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한편 한영화(韓永化)·한달중(韓達仲) 형제와 김영엽(金永燁)·이동식(李東植)·내석겸(乃錫謙)·박동번(朴東蕃)·김성오(金成五)·이선도(李善道) 등은 동학농민군이 아님에도 그 도당으로 몰려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일본영사관에 구류되었다.¹⁸¹⁾ 법무아문 재판소로 이송된 후 신문하니 전혀 아니었음이 판

172) 參謀本部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ノ狀況』 「漁隱洞熊谷兵站司令官ノ電報」(58), 1895년 1월 30일

173) 『駐韓日本公使館記録』 「豊川·瑞興·鳳山 등지 東學黨討伐 戰況에 관한 坂井大尉의 報告書 送付의 件」, 1895년 1월 19일.

174) 『東學黨ノ狀況』 「仁川今橋兵站司令官ヨリノ電報」(朝報 58), 1895년 2월 7일.

175) 『東學黨ノ狀況』 「仁川高井兵站監ヨリノ電報」(朝報 58), 1895년 3월 12일.

176) 『司法稟報』 「黃海道觀察使閔泳喆報告」, 1896년 8월 31일 제3호.

177) 法部 刑事局, 『起案』, 建陽 원년 9월 29일.

178)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1981 『天道教百年略史』, 273 ~ 274쪽.

179) 韓祐勳, 1983 『東學과 農民蜂起』, 一潮閣, 185쪽. 한우근은 봉의포가 은전 1타(駄)를 사들여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순전한 농민군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청병과 연합하여 그 전위대 구실을 하여 저항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80) 『東京朝日新聞』, 「長壽山の亂徒」, 1895년 10월 8일.

명되었다. 법무아문은 이들이 잘못 염탐하여 붙잡혔으며, 억박지르고 형벌을 가한 나머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봉산부 관속이 동학교도임을 빙자해 침학 토색하여, 한영화 형제의 집이 불타고 돈 55냥을 빼앗겼고 이동식은 농우 한 마리 등 가산을 능탈 당하였다고 한다. 법무아문은 한영화에게 빼앗은 돈과 이동식의 소 한 마리를 엄히 조사하여 찾아주도록 특별히 관문을 보내 처벌하였다.¹⁸²⁾ 이들은 경성 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 입회 아래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¹⁸³⁾ 반면 장경현(張景賢)은 “비류를 우대하여 그 사정과 행적이 의심스러울 만하다”는 혐의로 법무아문 재판소 심문 후 『대명률』 「잡범편(雜犯編)」, “그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범죄를 한 일의 사정이 무거운 자”의 명문을 적용하여 장형(杖刑) 80대의 형벌에 처해졌다.¹⁸⁴⁾

13) 신천

신천의 동학농민군은 7명이다. 접주 김유영(金裕泳)은 1894년 가을경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하였다.¹⁸⁵⁾ 한화석(韓華錫)은 신천·재령 등지에서 일어나서 해주 취야장에 모였는데 이때 무리가 1만 인에 달하였다고 한다.¹⁸⁶⁾ 유해순(柳海洵)·장응봉(張應鳳)·차익환(車翼環)도 2차 봉기에 참여하였고,¹⁸⁷⁾ 전석환(全錫煥)과 최지태(崔之泰)도 접주로서 동참하였다. 그해 10월 13일 평양에 주둔한 일본 병사들이 신천으로 진격하여 동학농민군 수십 명을 살해하였고, 14일에는 장연부·신천군·장수산성·수양산성이 농민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이에 황해도 감영에서 임명한 의려장 신천군 진사 안태훈이 포군 70명, 장정 100여 명을 모집하여 영장 3명을 사살하고 습득한 조총과 환도(還刀)·갑주(甲冑)는 감영으로 보냈다.¹⁸⁸⁾ 반면 11월 9일 수천 명의 농민군이 각기 창과 칼을 들고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에 포수 노제석이 70여 명을 이끌고 대적하여 18명을 싸 죽였고 농민군들이 무너져 흩어지면서 진정되었다.¹⁸⁹⁾ 한편 일본 병사들이 신천읍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종현이 6~7천 명을 이끌고 후영장 김명선을 선봉진으로 삼아서 전투준비를 하였지만 그들의 기습 총격을 받아 도주하였고 이들 중 23명

181) 法部 編,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金永燁」, 개국 504년 3월 2일; 「判決宣告書原本 李東植 等 4名」, 같은 날; 「判決宣告書原本 李善道」, 같은 날.

182) 『司法稟報』 「鳳山에 보내는 관문」, 1895년 3월 4일, 제1호.

183) 法部 編,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韓達仲 等 3名」, 개국 504년 3월 2일.

184)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判決宣告書原本 張景賢」, 개국 504년 3월.

185) 『東學道宗釋史』 「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86) 權秉憲, 1935 『甲午東學亂』, 大東斯文會.

187)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188) 鄭顯爽, 『甲午海營匪擾顛末』.

189) 『甲午軍政實記』 「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8일.

은 참살되었다.¹⁹⁰⁾

14) 배천

배천(白川)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접주 변승명(邊承明)은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하여 신천·재령·송화·장연·해주·강령·문화 등지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하였다.¹⁹¹⁾ 배천군수 윤기선의 첩보에 따르면 11월 10일 비적 수천 명이 각각 창과 검을 휴대하고 읍내에 돌입하여 문서와 장부를 모두 불태우고, 수리(首吏)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부호를 잡아다가 돈과 곡물을 빼앗고 이튿날 연안으로 물러갔다고 한다.¹⁹²⁾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출동하였다. 소위 스즈키 아키라는 평산·배천·연안 등에서 적도들이 집합하고 있고 또 해주를 동서에서 협공하려는 것 같으며 배천 부근에 집합하는 것을 알았지만 일본군이 도착할 무렵에는 이 지역의 농민군은 해산하였다.¹⁹³⁾

15) 연안

연안의 동학농민군은 1명이다. 연안부사 첩보에 의하면 11월 7일에 5~6백 명의 비도가 평산에서 갑자기 연안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제로 몰고 가면서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무기와 돈과 곡식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한다. 이에 부사는 계책을 써서 “동도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각각 성명을 쓰고 관인을 찍어 증거로 삼는 게 좋다”라고 하여 귀화를 회유 설득하자 군기를 거두어 바치고 목숨을 구걸하는 등 모든 동도가 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⁹⁴⁾ 한편 11월 10일 배천에 들어온 수천 명의 농민군은 다음날인 11일 연안으로 물러갔는데¹⁹⁵⁾ 이는 일본군 출병 소식을 듣고 일시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같은 달 23일 도순무영에서는 연안부사에게 아직도 동도가 창궐하니 즉시 각 면과 동에 5가작통을 조직하고 치밀하게 수색하라고 전령하고 거괴를 체포하면 곧바로 효수하는 한편 각별히 보부상 두목에게 토벌에 신중하도록 지시하였다.¹⁹⁶⁾ 유근호(劉根浩)는 제2차 봉기 참여 후 체포되어 강령의 성재호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12월 처형되었다.¹⁹⁷⁾

190)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17일.

191) 康弼道, 『東學道宗釋史』「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192)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8일.

193) 鈴木彰,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194) 『甲午軍政實記』「延安府使李啓夏爲牒報事」, 갑오년 12월 14일.

195) 『甲午軍政實記』「黃海監司鄭顯爽爲牒報事」, 갑오년 11월 28일.

196) 『甲午軍政實記』「傳令延安府使李啓夏」, 갑오년 11월 23일.

197) 『侍天教宗釋史』「第十一章 甲午教厄」(1915).

16) 곡산과 풍천

곡산의 동학농민군은 2명으로 접주 김정석(金鼎錫)은 최재렴(崔在濂)과 함께 1894년 가을 동학농민군 대봉기에 참여하였다.¹⁹⁸⁾ 그러나 지역에서의 농민군과 관군·일본군의 접전은 파악되지 않는다. 풍천의 동학농민군은 손두순(孫斗淳)·이달홍(李達弘) 2명으로 제2차 봉기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¹⁹⁹⁾

17) 기타

기타 부·군·현 등 활동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 황해도 농민군으로 분류된 인사는 곽홍(郭弘)·김기원(金基元)·김낙천(金樂天)·김익균(金益均)·김하영(金河榮)·민원장(閔元長)·백신배(白信培)·이규서(李奎瑞)·임익운(林益運) 9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민원장은 강령접주, 김기원은 해주접주이고, 김낙천·이규서·임익운은 봉산에서 함께 농민군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곽홍과 김익균은 2차 봉기 당시 정양과 함께, 김하영은 임종현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황해도 관찰사의 서목에, “적당(賊黨) 백신배를 효수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백신배가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체포 처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⁰⁾

이 외에 강계의 이백초(李白樵)와 영유의 황찬수(黃贊洙) 등 평안도 2개 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 활동이 파악된다. 『시천교종역사』의 기사에 따르면, “(1894년) 평안도 강서·용강 등지의 교도 김사영(金士永) 등과 함흥부 김학수, 강계군 이백초 등이 각각 군중을 모아 포(包)를 일으켰다가 곧 해산하였다”²⁰¹⁾라고 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함경도 출신 참여자는 함흥의 김학수(金學水)가 유일한 사례이다. 1894년 10월 평곤(平楸, 평안도 병마절도사)의 서목에, “영유에 거주하는 황찬수가 전선을 절단하려다가 일본 병사에게 붙잡혀 북문 밖에서 효수당하였습니다”²⁰²⁾라고 되어 있다.

198) 康弼道, 『東學道宗釋史』 「第十三章松菴傳授戊戌曹難」.

199)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200) 『官報』, 開國 503년 11월 21일; 朴周大, 『羅巖隨錄』 1894년 11월.

201) 『侍天教宗釋史』 「第十一章 甲午教厄」(1915).

202) 『官報』, 開國 503년 11월 27일; 朴周大, 『羅巖隨錄』 1894년 10월.

5. 맺음말

경기도는 대부분 개별 지역 단위로 활동하였지만 충청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중심으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안성과 용인·음죽처럼 충청도 제천과 강원도 원주 등 인접 지역 군현과 도를 넘나드는 접주들 간에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하였다. 연천의 조한봉은 충청도 홍주에서 활동하다가 살해되었다. 이천과 음죽의 농민군들은 충청도 보은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고 충주·제천·단양·영춘·목계 등 충청도 일대와 영월·평창·정선 등 강원도 영서 일대를 드나들기도 하였다. 반대로 충주에서 활동하던 서종철은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항쟁을 지속하였다. 지평 농민군 중 일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활동하였다. 죽산의 박봉학과 이돈화는 충청도 괴산에서 체포되었다. 양지접주 정용전은 오랜 기간 호남집에서 활동하던 경험이 있었다. 반면 조선 정부는 농민군 활동이 치열했던 안성부와 죽산부는 성하영과 이두항을 부사로 파견하여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농민군 진압에 주력하였다.

이천과 음죽의 사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농민군에 투속하는 경우가 2건이 있고, 머슴이 적극 활동한 사례도 보인다. 진위와 안성에서는 3형제가 각기 농민군에 참여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농민군을 배반하였음에도 총살 후 가산이 몰수되었고, 피신한 농민군도 자산이 몰수되었다. 민보군을 이끌던 지평 현감 맹영재는 인접 지역인 여주까지 진출하여 도피한 농민군의 부인을 남편 대신 옥에 가두거나 어머니를 자식 대신 처형하기까지 하였다. 지평에서 그는 농민군 지도자 형제를 살해하였고, 양근에서는 자수한 인사까지도 처형하였다.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제2차 봉기 이전에 봉기를 하면서 해당 거주지역 단위를 벗어나 상호 간 연대하여 농민운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인제와 정선 등지에서는 일찍부터 최시형 휘하 동학 교단의 핵심 인사들이 활동하였고 최시형도 오랜 기간 이곳을 거처로 하여 은거하였다. 그 결과 동경대전 초간본 목활자본 등 경전을 간행하는 한편 교단 조직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던 중 1894년부터는 각지에 접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과 결합하면서부터 지역간 연대를 통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 지역의 농민군은 강릉 수천 명, 평창 5천여 명, 홍천 1천여 명, 정선 3천여 명 등으로 대체로 인구가 희소한 산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대비하면 매우 많은 주민이 농민군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영서에서 집결하여 대관령 등을 넘어 영동의 강릉으로 들어와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농민군 주력인 전라도 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 앞서 강원도 농민군은 1894년 9월 4일 강릉부를 점거하고 삼정(三政)을 바로잡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개혁을 선포하는 방문을 내걸고 집강소와 유사한 자치 질서를 마련하는 등 큰 활동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농민군 토벌에 각 면 단위 향촌 조직인 향회(鄉會)를 소집하고 5가작통제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었다. 평창과 정선·봉평에서는 민보군과

하부 단위로서 보부상과 포수(포군)·궁수·창수, 심지어는 장사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이곳에서도 면임과 집강을 통한 농민군 토벌 인력의 동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식량은 각면 각통의 호구에 분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흥천의 경우는 현의 포수 외에 경기도 여주·양근·지평 및 강원도 춘천의 포군까지 동원하는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평창 주민들처럼 화약을 제조하여 농민군에게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상도 보인다.

황해도 초기 농민군의 활동은 임종현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연합부대를 구성하여 그의 동선대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임종현은 초기 전투부터 황해도 관찰사가 집무하는 해주 감영을 점령하였고 강원도 강릉의 농민군과 마찬가지로 민폐와 읍막을 통렬히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강릉의 경우 조세를 바칠 필요가 없으므로 공납을 거두어 바치지 말자는 선언을 하는 등 조세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황해도는 서흥·토산·신계·수안·옹진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일본군과의 전투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동 시기 청일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평양전투 이후 남만주와 요동 반도로 출병한 일본군의 병력과 군수지원, 전신선 가설을 위한 후발대 및 병참 부대가 인천과 서울을 지나 북상 과정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주민들과의 접촉과 마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율 농민군의 경우 현감에게 일본 부대와 왕래하는 것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해주성 전투에서는 감영에서 800여 명의 사냥꾼을 동원하였고, 해주 감영과 일본 병사가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

황해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동학 교단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던 지역이다. 최유현·오응선·정량·김구 등 접주로 임명된 인사들도 일부 있지만 임종현·원용일 등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은 동학 교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인물들로 농민군 주력과는 연계하지 않은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한 것으로 출동한 일본군도 ‘가짜 동학당’으로 판단한 인물들이다. 황해도 농민군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제하면 핵심 조직은 화포영장과 산포로 화포영장은 산포 중에서 발탁하여 지도자급의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해주성 점거에 중심 역할을 하였고, 재령 관아를 점령했던 산곡조도 산포로 판단된다. 백낙희가 주도하는 후기 황해도 농민군 주력인 장연의 산포는 1896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그 물리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황해도 농민군의 일부는 장수산성 김원교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병으로 연결되었다.

東覽圖(道別圖, 京畿道) 조선 후기 제작



東覽圖(道別圖, 江原道)



토론문 6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 토론 |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경기·강원·황해지역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3,913명이다. 논문에서는 경기도 137명, 강원도 102명, 황해도 126명 농민군을 대상으로 활동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1. 동학농민군 활동 지역의 기준

동학농민군은 한 곳에 머물러 활동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을 넘나들었고 연합농민군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지역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출신, 활동, 체포·희생 지역 가운데 어느 곳을 중심으로 활동지역을 정해야 할까?

강원도 동학과 농민군 지도자 중에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이 평창 출신 이원팔이다. 강원도 동학 교단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고 관동대접주로 임명받았다. 강원도 농민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9월 이후 이원팔은 강원도에서 활동하지 않고 최시형·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 교단의 지도부와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관동수접주라 부르던 최맹순은 1894년 8월 20일 충청도·강원도·경상도의 각 접소에 통문을 돌려 상주·이정·소야 등지에서 큰 회합을 갖고 장차 읍을 치려고 도모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관동대접’과 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 등 13명의 접주가 모여 회합을 하고 예천 집강소에 통문을 보냈다. 최맹순이 예천에서 패한 뒤 평창으로 왔다. 평창 접소에 머물던 최맹순은 평창에서 100명 정도의 농민군을 이끌고 다시 예천 돌아가 10월 17일에 적성리를 습격하였다. 경상도 문경 벌천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원팔과 최맹순 뿐 아니라 활동 지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농민군이 많다. 서종철(徐宗轍)같은 경우도 그렇다. “충청도 충주에서 활동하던 ‘동학당 수령’으로 활동무대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겼다가 양 10월 18일(음 9월 20일)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2. 농민군참여자와 본문 서술

본문에서 서술에 포함된 농민군과 누락된 농민군이 있다. 논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를 꼼꼼하게 다루려고 하였으나 일부 서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농민군이 있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갑오군정실기>>에는 맹영재의 토벌대가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10월 21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쯤 홍천 화촌면(化村面) 조개대(鳥介堡)로 들어가서 전진하는 적의 형세를 알아보려 했더니, 길이 끊겼기 때문에 창수(鎗手) 10명을 적들의 모양으로 꾸며 고깔을 씌워 먼저 보냈습니다. 비류 4명을 사로잡아 처음으로 장야촌(長野村)에 진을 친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행군하여 총을 쏘아 잡은 자가 20여명입니다.

그 다음날 22일에 송치리(松峙里)로 들어갔더니, 고개가 높고 길이 험할 뿐 아니라 적들이 사방에서 불을 놓아 거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날 밤에 때에 맞춰 비가 내려 그 불이 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3일에 서석면(瑞石面) 어론리(魚論里)로 들어가는데, 100여명의 적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10여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승세를 타서 풍암리(豐巖里)까지 추격했더니 그들은 흙으로 보루를 쌓아 백기를 꽂고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접전을 해서 한낮부터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포병(砲兵)이 승세를 타니 적들이 점차 무너져서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여 총에 맞아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논문에서는 “10월 21일 맹영재 부대와 화촌면 장야평에서 접전하였고, 22일 밤에는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다.”고 하였으나 서석 풍암리 전투가 벌어진 날은 10월 23일이었다. 횡성쪽 토벌대는 23일이 아니라 풍암리전투가 끝난 뒤 10월 24일 새벽에 서석에 도착하여 26까지 주둔하고 횡성현으로 돌아갔다. 참여자 명단에 들어 있는 ‘사인순’은 장야평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까운 곳에 묘가 있다. 김덕원, 김우원, 김진협, 김진구, 김현서, 박종백, 엄하영, 오복선, 최도열은 서석 전투 참가자들이다.

강릉부를 점거하는데도 참가하였고 11월 25일에 정선에서 잡혀 효수당한 지왈길은 정선 여량출신 농민군 지도자였다. 이름을 알 수 없어 참여자 명단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강릉의 최가라는 인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농민군이 강릉부를 점령하였을 때 옥가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 접을 마련하고 강을 벌였는데 2-3일 사이에 300여 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한다.

3. 활동지역의 군현명

〈1872년 지방지도〉에 실려 있는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군현지도는 1894년 당시의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진이나 산성 같은 특수 지도를 빼고 보면 강원도는 간성, 강릉부, 고성, 금성, 김화, 낭천, 삼척부, 안협현, 양구, 양양읍, 영월, 울진현, 원주목, 이천(伊川), 인제현, 정선, 철원, 춘천부, 통천, 평강, 평창군, 평해군, 홍천, 회양부, 횡성현, 흡곡현이 있다. 경기도는 가평현, 강화부, 개성, 고양군, 과천, 광주, 교동부, 교하군, 김포, 남양, 대부, 마전, 부평, 삭녕군, 수원부, 시흥현, 안산군, 안성, 양근, 양성, 양주, 양지현, 양천현, 여주목, 연천현, 양성, 양주, 양지현, 양천현, 여주목, 연천현, 영평군, 용인현, 음죽현, 이천부, 장단부, 적성, 지평현, 진위현, 통진부, 파주, 포천현, 풍덕부. 황해도는 강령현, 곡산부, 금천군, 문화현, 배천군, 봉산군, 서흥부, 송화현, 순안군, 수안, 신계현, 신천군, 안악, 응진부, 은율현, 장련현, 장연, 재령, 토산현, 평산부, 풍천부, 해주, 황주가 있다.

군현 아래 면 단위로 들어가면 오늘날 행정편제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 강원도의 경우 대화면, 봉평면, 내면, 임계면, 신리면, 연곡면은 모두 강릉부에 속해 있었다. 지금은 대화면과 봉평면은 평창, 내면은 홍천, 임계면은 정선, 신리면과 연곡면은 주문진읍에 속한다. 그렇다면 1894년 내면에서 활동했던 농민군은 홍천으로 분류할 것인가 강릉부로 봐야 할 것인가? 홍천대접주로 불리는 차기석의 근거지도 내면이었다. 내면과 봉평면은 강릉부에 속한 각각의 면이었기 때문에 내면을 봉평 내면으로 이어서 표기하는 것은 내면이 봉평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4. 동학농민군 활동과 성격

강릉 선교장의 주인인 농민군 토벌대장 이회원은 차기석 농민군의 근거지를 “오대산이 10년 동안 적의 소굴이 된다는 정감록의 말을 누가 허무맹랑하다고 했는가? 두 개의 면(내면과 봉평면)은 100리가 되는 산골짜기인데 곧 양산박과 같은 소굴이 되었다”고 하였다. 오대산 약수포 쪽에는 농민군이 쓰던 3곳의 별당과 37채의 집이 있었다.

해주에서는 접주 김명선(金明善)이 수대산에 108명의 무리를 모아 양산박(梁山泊)을 자임하였다고 한다. 장연에서 일어나 해주성을 점령하였고, 재봉기한 백낙희 농민군 부대에서 김형진(金亨鎭)은 해주와 서울까지 점령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씨왕조를 전복하여 해도의 정씨를 임금으로 추대하자고 하였고, 백낙희도 정감록 사상의 기반 위에서 양왜 토벌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원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김개남이 임실 상이암에 들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구상과 비슷하다. ‘민란’ ‘동학운동’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스며 있던 변혁적 성격의 양상이다. 동학농민혁명 전체에 견주어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총괄 김양식(연구소장)
기획 이병규(연구조사부장)
진행 오주연(연구조사부)

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38 / www.1894.or.kr

발행일 2025년 6월 25일

편집·인쇄 달디자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